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www.snuaa.org 서울대미주동창회보

248호 2014년 12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

1952 Gallows Rd., #206

Vienna, VA 22182, USA

Tel. 703-462-9083 Fax. 703-462-9083

e-mail: snuaausa12@gmail.c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 세계 최고수준의 Brookings Institution에서 강사가 강연 중이다.

미주 동창회 한국학 연구그룹 지원과 연구소 설립기금 모금

미주 동창회가 제23차 전국 평의원 회의(2014.6.28)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서울대 미주 동창회 한국학 연구그룹’ 지원에 이어 ‘서울대 미주 동창회 한국학 연구소(SNUAA Korean Studies Institute)’라는 이름으로 Think Tank를 건립토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연구하며 미국 유수의 Think Tank들과 교류하면서 그 결과를 활용하여 한국에 유리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 Think Tank의 포럼, 브리핑, 정책보고서 등을 통해서 미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며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서구 학계의 편향된 학문적 시각

을 극복해 한국과 한민족의 시각에서 보는 정체성있는 새로운 학문적 토대를 쌓아가고자 합니다. 미국과 서구 학계에서는 21세기인 현재까지도 ‘한국’ 하면 일본의 식민지 혹은 중국의 변방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은 일제 강점기 한국의 식민화에 대한 당위성을 서구, 특히 영미 사회에 꾸준히 전파했습니다. 전후 한국의 신탁통치안은 이러한 일본의 악선전과 밀접히 연관돼 있습니다.

미국 학계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일본학으로 시작한 미주 한국 연구자 1세대와 이들에게 훈련된 2세대들이 기본적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도하고 있어 학계는 물론 이면 2~3세대들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독도, 위안부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미주 한인 사회의 노력은 아직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 미주동창회가 앞장 서서 한국학 연구자 모임과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연구소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대표되는 일본주도의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극복 ▶기존의 장학 사업을 초월해 한국은 물론 미주 및 전 세계에 한국의 이해를 돕게 되는 새로운 동창회 사업의 유형 개발 ▶서울대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학문 후계자 양성 등 모교와의 연계 강화 가능 ▶미주 한인 후속 세대에 정확한 역사인식과 후속 학문세대 개발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시각, 혹은 중국의 시각으로 편향돼 온 미국 등 서구에서 한국학 연구 관행을 바로잡는 이번 사업에 우리 동문들이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5년 1월부터 5개년 계획으로 연구소 건립을 추진하며 가시적



조문혜(선우문혜·약대 59) 박사

Inventor of the year award



조문혜(Moon Hae Sunwoo, 약대 59~63) 박사가 지난 10월 10월 16일 New Jersey Inventors Hall of Fame에서 수여하는 ‘2014년 Inventor of the year award’를 받았다.

수상에 대한 내용은 ‘Highly valued breakthrough patent related to demineralized bone matrix paste materials’이다.

조문혜 박사는 이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 논문과 24종의 특허를 소유하고 있다.

뉴욕지역 약대 동문회(회장 이대연·약대 65)에서는 조문혜 동문의 이같은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 10월 25일 이사회에서 기념패를 제작해 증정했다(왼쪽 사진). 뒷 사진은 시상식에서 관계자 및 수상자들과 함께.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조문혜 동문이다.***

<금영천·약대 72>

연구 결과를 내면서 2019년까지 \$10 Million의 예산을 갖춘 Think Tank를 만드는 대장정입니다.

▶서울총동창회에서도 기금모금홍보 = 금번 모금 운동은 서울-총동창회에서도 총동창회 회보 12월호에 동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학 연구프로젝트 팀 리더

= 하용출 교수(외교 67)

▶Brain Network 담당 부회장 = 이해진 교수(정치 55)

▶회장 = 오인환(문리대 63)

<연락처 = 서울대 미주 동창회 사무실. 전화 703-462-9083, 오인환 회장. 전화 301-775-3919, e-mail: ioh0858@comcast.net, snuaausa12@gmail.com> ***

NON-PROFIT
US POSTAGE PAID
DULLES, VA
PERMIT No. 645

소프라노 이희정(음대 03) 동문

‘국제 성악경연대회’ 우승

‘2014 알렉산더 & 부오노 국제 성악 컴피티션 성인 프로페셔널 부문에서... 카네기홀 연주회도

뉴욕에서 활동 중인 소프라노 이희정(음대 성악과 03·사진) 동문이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2014 알렉산더 & 부오노 국제 성악 컴피티션(BAIVC)’ 성인 프로페셔널(Professional Adult) 부문에서 영예의 우승을 차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희정 동문은 이 경연대회 이후 지난 10월 26일 오후 1시 30분 카네기 홀 웨일 리사이틀 홀에서 열린 ‘우승자 연주회’에 출연해 이 대회 우승자로서의 기량을 한껏 보여주기도 했다.

BAIVC는 고등학생과 성인 대학생, 성인 프로페셔널 등 연령대별로 나눠 치러지는 국제적인 콩쿠르로 1차 DVD 심사 후 한 달여간의 치열한 경합을 거쳐 최종 입상자를 결정한다.



올해 우승자는 이희정 동문을 포함해 총 4명이다. ‘2014 BAIVC’ 성인 프로페셔널 부문은 1위 이희정씨 이외에도 2위에 테

너 김지훈(대한민국 경기도), 소프라노 노신영(미국 인디애나)씨의 우리 한인 동포들도 수상자로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희정 동문은 인천 예술고등학교와 모교 음대(학사)를 거쳐 뉴욕 바드 칼리지에서 성악을 전공해 석사 학위를 받은 재원으로 현재 뉴욕 지역을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모교 서울대 음대에서는 소프라노 박미혜 교수를 사사했다.

이희정 동문은 그동안 뉴욕 리릭 오페라단 국제 콩쿠르 본선 파이널리스트, 한국 음악협회 콩쿠르 대학부 1위, 성정 음악콩쿠르 대학부 금상 등 많은 활동과 여러 분야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 <미주 한국일보>

동창회비 30% Campaign

미주 동창회보 발행과 동창회 운영에는 동창회비를 비롯한 각종 후원금이 원동력입니다. 매년 미 전역의 동문 10명 중 3명(30%) 이상이 동창회비를 내주셔도 미주 동창회는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으니 동창회비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새 회원 영입 Campaign

미주 각 지역에 거주하는 동문들 중에는 해당지역에 있는 서울대 동창회를 모르고 계신 동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위에 있는 그러한 동문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각 지역 동창회 행사에 참여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 Carolina 동창회 동문들(46학번-2011학번)과 함께. Raleigh, NC, 11월 15일)

미주 동창회장의 지역 동창회 방문: 격려 및 협조 요청

제12대 회장단 제2차년도에 들어서 오인환 회장의 출장이 잦아졌다. SNU Homecoming Day(10월 14일~25일) 참석차 서울-총동창회를 방문해 서정화 회장이 주재한 총동창회 운영위원회 겸 편집위원회, SNU 관악 골프회, 임광수 전 회장 흉상 제막식에 참석했다. 또 최종고 서울대 대학원 동창회장도 방문했다.

모교에서는 재미 동문들과 성낙인 총장 방문, 그후 김귀현 음대 학장, 안시현 모교발전기금 본부장, 박지향 중앙도서관장을 방문했다(11월 회보 참조).

워싱턴 DC로 귀환 후 워싱턴주 동창회(회장 이원섭·농대 77, 시니어 클럽회장 김재훈·공대 73, Seattle, 11월 8일), Carolina 동창회(회장 이상구·자연대 78, Raleigh, NC, 11월 15일), 뉴욕 동창회와 미주 의대 동창회(Fort Lee, NJ, 11월 22일)를 방문해 임원, 동문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 Washington State 동창회 Senior Club 동문(46학번부터 84학번)들과 함께(Seattle, 11월 8일)

→ Carolina Chapter - 김기현 전 회장과 서울대 졸업장(단기 4289년 3월 28일 졸업)(Raleigh, NC, 11월 15일). <아랫 사진> Carolina Chapter에서 2004, 2006, 2011년 학번 동문들과 함께(Raleigh, NC, 11월 15일).

본부 활동을 소개하면서 협조도 요청하였다. 12월 에 는 Philadelphia 동창회(12월 6일), New England 동창회(12월 13일), 2015년 1월 중순에는 Florida 동창회, 2월 중순에는 남가주 동창회 방문 일정이 잡혀 있다.



그 후 Chicago, Minnesota, San Francisco, Texas 등 동창회를 계획하고 있다. ***



차 례

- 3.<동문 시 감상>만남은 손수건/<영시 해설 감상> Autumn/ 게시판
- 4~5.<기획 Ebola>Ebola사태/ Ebola의 공포/ Fearbola
- 6~7.<모교소식>모교 편입생중 34% 모교출신/ 재학생 조연수, 올 사법고시 최연소 합격/ 취업전쟁 시즌 인문계열의 비애/ 2016년도 수시 우선선발 폐지/ 모교생들이 올해 가장 많이 읽은 책 그리스 비극

- 과 총,균,쇠/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 분당 서울대 병원 안과 우세준 교수 한길 학술상 수상/ 모교 도서관 신축 리모델링 기금 모금 캠페인
- 8.<외국인으로 서울대 유학>내 인생을 바꾼 한국으로의 모험
- 9.<세계정치 칼럼>노벨 정치상은 어떤가/ 친구/ 동문 미술작품 지상감상
- 10.<경제신간 안내>금과옥조의 거시 경제학 신화를 깬다/<동문 시 감상>빈손
- 11~13.미주 동문 동정

- 14~19.미주 각 지역 동창회 소식
- 20~21.<관악세대 아크로 광장>심판의 날/ 건강관리를 잘하면 암에 걸리지 않을까/ 한 표의 소중함을 일깨운 마라톤 투표
- 22.<영화 이야기>Tous les matins du monde/ 상당기간의 수수께끼/ 다양한 세금공제 사항들
- 23.<My Journey to>아메리칸드림 50년<17>
- 24.<달러 속 주인공 이야기-5>50달러 지폐의 율리시스 그랜트
- 25.<여행기>찾아가 본 대동강<1>

- 26.<여행기>아름다운 에메랄드 섬<2> 서울대 역사자료를 찾습니다
- 27.동창회비 납부명록
- 28~29.동문업소록, 편집후기
- 30.광고,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 31~32. 광고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것은 본 회보가 Copy Right를 갖습니다.

2014 갑오년(甲午年)을 보내며

송년시(送年詩)

서윤석(의대 62)VA
현대 시인협회 회원
미주 동창회보 편집위원



잡아 주지 못한
상처난 손들
먼 나라 일이라고
그 아픔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한 해를 마무리 합니다

하얀 말이 되어
인연들을 찾아
마냥 달리고 싶었던 해
결국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한
지나간 시간들

먼 산을 보고
소리쳐 봅니다
메아리쳐 온 이야기가
빙하가 되어 가슴에 쌓입니다

용서, 사랑, 자비
또다시 소리쳐 봅니다

수많은 별빛 아래에서
이웃들과 더불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다 나은 새해를 기다립니다 ***

Mentoring Program

정규 프로그램과 Online프로그램 병행

미주 동창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Mentoring Program은 미주 지역의 유명 대학교, 연구소, 미국 정부 기관, 산업체에 재직 중인 서울대 동문들이 그 동안 미주에서 쌓아 온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모교 재학생 후배들을 위하여 voluntary mentoring 을 하고 있다. 미국 대학의 학습체험과 대학원 진학 상담 과 알선,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인턴십 과정 알선, 기업체 취업 안내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모교 국제협력본부(SNU LA 사무소, 황정남 부소장)에서는 미주 동창회와 협력해 비용이 들지 않는 ONLINE Mentoring Program도 추가하기로 했다. 현 정규 멘토링 프로그램과 더불어 ONLINE Mentoring Program 에 관심이 있는 동문들의 자원봉사를 바라고 있다. 연락처는 미주 동창회 김정식 사업국장(Georgetown Univ. Oncology 부교수, 301-580-9736, jk99georgetown@gmail.com)과 황정남 서울대 미주 사무소 부소장 (2 1 3 - 9 0 5 - 9 4 8 2 , hwangjn@snu.ac.kr)에게 연락 주시기 바란다. 현재 정규 Mentor-

ing Program에 등록된 4명의 서울대 재학생들이 미주 동창회 김정식 사업국장과 임종식 박사(의대 51)의 알선으로 Mentor를 찾아 맺어주고 있다.

- 1. Sheen Kim (SNU College of Medicine 1 year) - for about 1 month (1/12/15 to 2/15/15) at USUHS, Dr. Ji's Lab
- 2. Jung Wha Chung (SNU CM 1 year) - for 1 week (4/26/15 to 5/21/15) passing through from Europe meeting.
- 3. Sooji Kim (SNU CM 1 year) - for 1 month.
- 4. Yoo Chin Ko (SNU School of Nursing) - for about 10 days.

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는데 경우에 따라 mentor, mentoring 기관 혹은 독지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반면에 ONLINE Mentoring Program 은 비용의 부담이 없어 유리한 점이 있는 반면 제한적인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ONLINE 으로 시작해서 반년 혹은 1년 이상 가면서 정규프로 그램으로 진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

<김정식 사업국장>



동문 시 감상

‘만남은 손수전’

박윤수(문리대 48) CA
미주 동창회 초대 회장

물개
잔잔한 바다와 넓은 모래밭
따뜻한 남가주 실 비치에
이삿짐을 풀었다

제2의 고향 미국의 수도와
친구들
이별의 슬픔을 안고
기대와 호기심
만남의 기쁨을 안겨줄
사람들일까?



실 비치의 사람들
인생의 우여곡절을 경험한
생명의 만년을 맞이하고 있는
주름살 가득한 삶의 투사들

인생은 만남이다
길 위에 구르는 이파리
하나처럼,
희미한 휘파람 소리처럼
다가와
내 인생에 머물며
나를 변화시키는 만남

만남은 기쁨이다
덕담이 있고
사랑이 있고
꽃처럼 활짝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만남

만남은 손수전이다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슬퍼하고 즐거워 하며
땀을 닦아주고
마지막까지 인생의
친구들이 되는 만남. ***

영시 해설, 감상



배효식(문리대 영문 52)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교수

Autumn

By Francis Ledwidge

Now leafy winds are blowing
cold,/And South, by West the sun
goes down,/A quiet huddles up
the fold/In sheltered corners of
the brown./Like scattered fire
the wild fruit strews/The ground
beneath the blowing tree,/And
there the busy squirrel hews/His
deep and secret granary/And the
night comes starry clear/The
lonely quail complains beside./
The glistening water on the mere
Where widowed Beauties yet
abide./And I, too, make my own
complaint/Upon a reed I plucked
in June,/And love to hear it
echoed faint/Upon another heart
in tone.(이제 나뭇잎을 몰아가
는 바람이 싹싹하게 부네요/남쪽
에서 서쪽으로 태양은 지고/양떼
들은 조용히 웅기종기 모여드네
요/갈색 나뭇잎의 피신처 구석진
곳으로/흩어진 불꽃처럼 야생 과
일이 널려있네요/바람 타는 나무
밑 땅에/그리고 거기 바쁜 다람
쥐는 짝아 길을 낸다오/그의 깊
고 비밀한 곡식 창고에/그리고
별처럼 맑은 밤이 온다네/외로운
메추라기는 곁에서 한탄한다네/
호수의 반짝이는 물/거기 홀로된
미인 요정들이 아직도 산다네/그
런데 나 역시 스스로 탄식한다네

/6월에 내가 뽑아 만든 갈대 피
리를 붙여/그리고 희미하게 퍼져
가는 것을 듣기 좋아한다네/또
다른 가슴 위에 곡조가 되어)

이 시를 쓴 시인 Francis Edward
Ledwidge는 Janeville, Slane,
Ireland 출신으로 ‘농민 시인’
혹은 ‘전쟁 시인’으로 잘 알려
져 있다. 검은 새에서 따온 ‘흑
조 시인(The poet of the black-
birds)’이라는 별명도 유명하
다. 게다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젊은 나이로 싸움터에서 전사한
‘영웅 시인’으로도 불린다.
9남매 중 8번째로 태어난 시인
은 5살 되던 해, 아버지를 여의
고 13살에 학업을 중단, 돈을 벌
어야만 했다. 생계를 잇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농터에
서, 구리쇠를 파는 광산에서, 거
리를 보수하는 일에서부터 상점
내 허드렛 일까지 온갖 일을 찾
아다니며 돈을 벌어야만 했다.
이런 환경 탓에 시인은 어릴 때
부터 가난의 쓰라림과 고통을 겪
으며 살아왔다. 가난 때문에 정
규 학교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
했으나 독학으로 시를 쓰기 시작
했다. 그의 어머니 Anne Lynch 여
사는 아들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못한 것이 한이었다. 그러나 이
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는
14살 되던 해에 이미 지역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그러다 운 좋게 Lord Dunsany라
는 시인을 알게 됐는데, 그는 당
시 Dublin과 London에서 문인으
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던
새니 경은 레드위지의 시집을 출
판하는 데도 문학적,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유
명한 시인 William Butler Yeats
를 소개해주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도움으로 레드위지
는 ‘들의 노래(Songs of Fields)’
라는 시 모음을 출판하게 됐다.
그는 민족주의자였고 애국자이기
도 했다. 영국의 음악가 Michel
Head가 그의 시를 작곡해 널리 불
려지고 있다.

<시 감상>

사람들은 흔히 가을을 좋아한
다. 아마도 한여름 찜뽕 더위에
시달렸을지언정 살살 불어오는
바람이 더위를 몰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평론가들은 레드위지가
노래한 이 가을에 대한 시는 영
국 시인 John Keats가 쓴 ‘가을
에게(Ode to Autumn)’라는 시와
비교된다고 말한다.

뛰어난 언어적 표현으로 가을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서글
프게 묘사한 부분은 물론 들관
풍경과 그곳 동물들의 모습을
특유의 감각으로 아름답게 묘사
하고 있다. 특히 따스한 털옷을
입고 있는 양떼들이 추위 웅기종
기 낙엽이 모이는 구석으로 떼지
어 드는 모습을 그린 구절은 아
름답기까지 하다. 다람쥐의 생태
를 노래한 부분에선 동물이나 사
람이나 먹을 것을 준비하려는 모
습은 같은 것이란 느낌을 받게
된다.

이 시를 읊조리고 있노라면 가
을 밤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진
다. 알고 보면 짝 잃은 메추라기
처럼 사람이나 짐승이나 외로운
것은 매한가지이리라. 호수에서
사는 요정조차 짝을 잃으면 헛헛
하고 쓸쓸한 마음에 탄식할런지
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시인 역
시 헛헛함을 달래고자 피리를 불
며 외로움을 새의 가슴에 옮기려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도 이러한 심경을 노래한
곡이 있다. ‘아! 가을인가(김수
경 시 나운영 곡)’에 나오는
‘아 가을인가 아 가을인가, 아
아아 가을인가봐, 물통에 떨어진
버들잎 보고, 물 길는 아가씨 고
개 숙이지’라는 구절이 바로 그
것. 고개를 숙이는 것은 ‘또 한
해가 가니 쓸쓸하구나’ 혹은
‘난 올해도 시집을 못 가는구
나’ 등 여러 모양으로 탄식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다.

그러고 보면 가을은 탄식의 계
절인가 보다. 레드위지가 한탄의
계절로 가을을 그린 연유도 여기
에 있지 않을까 싶다.***

<drhyopai@gmail.com>
www.absw.edu

게시판

미주 동창회 제14대 회장 후보추천 공고

미주 동창회는 미주 사회에서
활동하는 동문 회원 중 미주 동
창회원들의 친목과 모교 발전
에 기여할 차차기 회장 - 제14
대 동창회장(임기 2017.7 ~
2019.6) - 후보자 추천을 서울
대 미주 동창회 정관 및 추천위
원회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후보추천 마감 = 2014년 12월

31일.
▶회장후보 공약 = 2015년 1~5
월중 동창회보에 공약 발표.
▶2015년 6월 = 제24차 전국평
의원회의에서 투표. 차차기 회
장 확정.
서울대 미주 동창회 인선위원
장 김은종(제11대 미주 동창회
장) e-mail : edk@npcims.com.
전화 310-667-2350 ***

Homepage Strip 광고 모집

Monthly updates and mainte-
nance를 위한 안정적 자체비용
확보를 위해 Homepage에 strip
광고 기증을 해주실 동문들을
찾고 있으며 동창회와 관련 사
업체와 광고계약을 하고자 하
니 관심있는 동문들과 관련 사
업체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연

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원영 전화 646-623-7701
Webmaster(wonyoungkim1@gmail.c
om,
▶손재욱 IT 위원장 전화 267-
736-2992) jhaahs@timhaahs.com,
▶오인환 회장 전화 301-775-
3919(ioh0858@comcast.net)***

오인환 회장 출장 일정

오인환 미주 동창회장은
Philadelphia 동창회(12월 6
일), New England 동창회(12월
13일) 방문에 이어 2015년 1월
중순에는 Florida 동창회, 2월

중순 경 남가주 동창회 방문 일
정이 잡혀 있다.
그후에 Chicago, Minnesota,
San Francisco, Texas 등 동창회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IRS감사대비 내부감사 일정과 담당 감사위원

▶감사기간 = 2014년 1 ~ 12월-
100% 마칠 때까지 요청한 세금
보고자료 보내주기 바랍니다.
▶박숙 위원(Chicago,847-707-
9693 jhcspe@naver.com,) = 달라
스·룩키마운틴·시카고·중부텍
사스·휴스턴 동창회.
▶김창수 위원(NY, 212-760-
1768.changsookimcpa@
hotmail.com) = 뉴욕·뉴잉글랜
드·조지아·오하이오·필라델피아 동창회.
▶김지영 위원(남가주,213-308-

0009 jkym@yahoo.com) = 남가주
·북가주·샌디에고·아리조나·하
와이 동창회.
▶노상문 위원(DC, 703-749-
1110 cpa_noh@yahoo.com) = 미네
소타·워싱턴 DC·플로리다·캐롤
라이나·테네시 동창회.
▶배규영 위원장(Heartland,
kybae8533@gmail.com, 913-709-
2335) = 알래스카·오레곤·워싱
턴주·유타·하틀랜드 동창회.
내부감사에 대한 문의는 배규
영 위원장께 연락을 바랍니다. ***

지역 동창회 후반기 행사

▶워싱턴 DC 동창회(회장 장경
태) 송년회 = 12월 30일(화) 오
후 5시 The Westin Tysons Cor-
ner Hotel Falls Church, VA.
▶휴스턴 동창회(회장 이호성
(공대 72) 송년회 = 12월 20일
(토) Seoul Garden, Houston, TX
에서.
▶시카고 동창회(회장 김호
범) 총회 및 송년회 = 11월 30
일 오후 6시 Drury Lane Oak-
brook에서. 이날 11명으로 구성
된 장학생 선발 위원회 심사 결
과 10명의 장학생을 선정, 장학
금을 지급. 수상자 명단과 2015

년도 장학생 선발에 관한 내용
은 www.snuachicago.org에 내년
공고할 계획이다.
▶남가주 관악연대(연대장 고
정범) 해끝잔치 = 12월 28일
(토) 오후 6시. Garden Suite
Hotel, Banquet Room, 681 S.
Western Ave., LA, CA
▶워싱턴주 동창회(회장 이원
섭) 송년회= 12월 7일(일) 오후
5시 Bellevue Hyatt Hotel.***
▶샌디에고 동창회(회장 최흥
수) 송년회 = 12월 6일(토) 오
후 6시 Town & Country Hotel,
San Diego, CA에서.***

지역 동창회장님들께 드리는 부탁사항

▶지역동창회 주소록을 표준화
된 Template Spread Sheet를 써
서 유지해 주시고 본부에도 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동창회를 대표하는 평의
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연회
비(\$100)를 납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동창회 분담금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음대 김귀현 학장께서 미주

지역 음대 동문들의 연락처를
알고 싶어합니다. 아직 못 보
낸 지역 동창회는 속히 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지역동창
회는 DC, S. California, N.
California, NY, Philadelphia,
Washington State, Oregon, Dal-
las Texas, Central Texas, Ten-
nessee, Vancouver 등 11개 지역
동창회.***

<기획> Ebola

Ebola 사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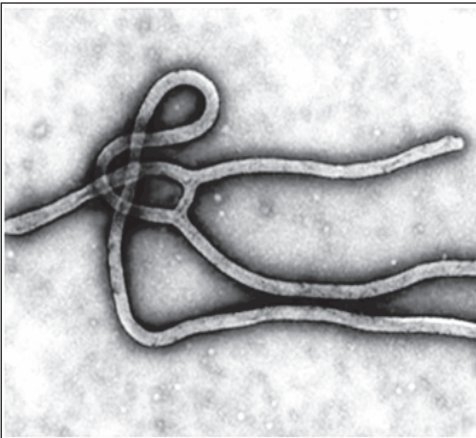
정명철(농생대 82) DC George Mason University/National Center for Biodefense and Infectious Diseases 교수

2014년 들어 ‘21세기의 흑사병’으로 불리는 에볼라(Ebola)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번 에볼라 사태의 시발점은 지난 2013년 12월 기니의 2살 남자 아이에서 처음 발병해 그의 가족의 일부가 사망한 사건으로 과학자들은 믿고 있다. 이로부터 서아프리카의 나라 시에라리온·기니·라이베리아를 중심으로 올 2월 창궐하여, 2014년 10월 말 현재 1만3천540명이 감염되고 4천 941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미국 질병통제예방본부(CDC)는 집계하였다.

더 심각한 것은 나이지리아를 필두로 다른 나라로의 확산이 진행 중이며 민주 콩고에서 변종들이 다수 발견되어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9월과 10월에는 미국에서도 감염자가 나타났으며, 스페인에도 감염자가 나타나 사망하는 등 전 세계적인 대 재앙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에볼라 출혈열(바이러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긴급상황’을 선포하고 실험용 치료제 사용을 승인하였다.

현재 WHO의 발표에 따르면 감염환자 숫자의 증가속도가 한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확신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이에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대응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에볼라 바이러스란** = 에볼라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성 출혈열을 일으키는 필로 바이러스 과에 속하는 바이러스다. 에볼라바이러스 속(Ebolavirus)에 속하는 4~5



↑<그림1> 에볼라 바이러스의 구조 사진.

가지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종류로는 분비부교 바이러스, 자이르 에볼라 바이러스, 수단 바이러스, 타이 숲 바이러스다. 다섯번째 바이러스인 레스틴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중 이번에 발발한 에볼라는 자이르 바이러스의 변종인 것으로 밝혀졌다.

에볼라는 한 줄의 긴 RNA 유전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겉에는 막으로 둘러 싸여 있는 긴 사슬 모양의 바이러스다(그림 1). 비리온(하나의 바이러스를 일컫는 말)은 다양한 관 모양의 형태이고, 지름은 통상 약 80nm이며 길이는 보통 1,000nm이나, 1,400nm까지의 비리온도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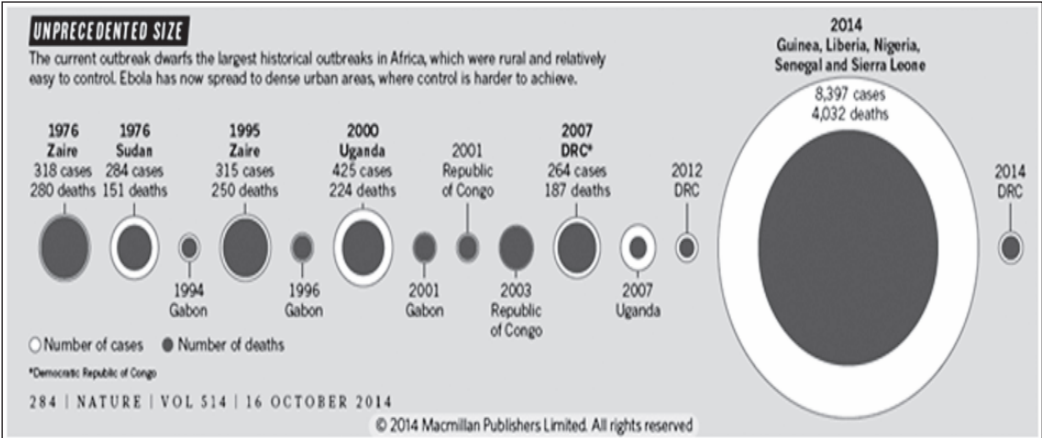
▶**유래와 발병사례** = ‘에볼라’라는 이름은 처음 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콩고 공화국 주변의 강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약 8~10일(평균 2일, 최장 21일) 간의 잠복기 후 갑자기 심한 두통, 발열, 근육통, 오심, 구토가 나타난다. 발열이 지속되면서 심한 설사가 발생하고, 대개는 기침을 동반한 가슴 통증도 발생한다. 전신에 기운이 없어지고, 혈압과 의식이 떨어지게 된다.

발병하고 5~7일째에 대개 구진 같은 피부발진이 나타나고, 이후에 피부가 벗겨진다. 이 시기쯤부터 피부와 점막에서 출혈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열골과 목, 고환의 부종, 간종대, 안구충혈, 인후통 등도 나타날 수 있다.

회복하는 경우 발병 10~12일 후부터 열이 내리고 증상이 호전을 보일 수 있으나, 해열되었다가도 다시 발열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 치사율은 바이러스의 아형에 따라 50% ~ 89%로 매우 높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지난 1976년



↑<그림2> 에볼라 감염 발생건수(바깥 원) 및 사망자수(안쪽 원). 출처:네이처, 514권(2014)

수단과 자이르(현재의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됐다. 자이르의 경우 그 해 318건이 발생해 280명이 사망하였고, 수단의 경우 284건이 발생하여 151명이 사망했다.

초기의 치사율은 90%에 가까운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 이후 매년 조금씩 중앙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 건수가 보고되어 왔지만(그림2), 올해 들어 ‘에볼라 창궐(Ebola Outbreak)’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과학자들은 이 사태를 미리 예견하였다고 한다. 2012년 레슬리 로벨(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우간다에 머물며 최소 4건의 에볼라 사태를 경험했고, 뭔가 큰 것이 올 것이라고 예견했다. 마치 대지진 전에 선행하는 작은 미진이 있듯이.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번 사태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때문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

▶**감염경로** =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 뭔가 다른 특성을 가진 바이러스 일 가능성, 동물과 인간 간의 장벽을 넘었을 가능성,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따른 숙주 과일 박쥐의 서식이 변화 됐을 가능성 등을 들고 있지만 아직 분명히 밝혀진 것은 없다.

이번 서부 아프리카 사태의 경우 유례없이 급속도로 퍼진 이유는 ‘서 아프리카 주민들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익숙하지 않았고,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방법이 미숙했기 때문에, 에볼라가 도시 중심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에볼라 출혈열의 최초 감염은, 감염된 원숭이나 과일박쥐의 피나 체액에 접촉하여 옮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여러 바이

러스 매개체 중에서 과일박쥐가 에볼라의 주요 매개체이면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채 전파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모기, 딱이나 진드기 같은 매개체, 공기를 통해서도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에볼라 창궐이 서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된것도 이 지역에만 매개체인 과일박쥐가 서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5종의 에볼라 바이러스 중 레스틴 바이러스를 뺀 나머지 4종이 인간에 감염된다(그림3 참조). 인간에게 에볼라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이후 사람 대 사람의 감염이 가능하다. 주로 체액이나 혈액이 상처나 점막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감염 환자의 토사물, 혈액, 대소변, 모유 수유 등의 접촉은 금물이다.

남성 생존자는 약 2개월 동안 정액을 통해 질병을 옮길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성관계를 피해야 한다. 그러나 레스틴 바이러스를 제외하고는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혈액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의 항체, 바이러스성 RNA, 바이러스 그 자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진단을 확인한다. 무엇보다도 감염 환자나 혹은 감염된 동물의 혈액이나 타액을 통해서 전염이 이루어지므로 에볼라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환자의 혈액이나 타액 접촉을 피해야 한다.

▶**치료 및 예방** = 위에서 언급했듯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포함한 필로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와 달리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지 않고, 다만 감염된 혈액이나 타액을 통해서 전염된다. 따라서 다음의 두가지 방법이 가장 좋은 예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첫째는 감염된 환자를 격리하는 것이고, 둘째는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모두 추적하여 감시하는 것이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초기 격리 치료라는 대응에 실패할 경우 많은 보건관련 사람들,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격리 치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의료진도 에볼라 감염에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초기 의심환자의 선별 및 격리는 의료진들에 필수라 하겠다. 사실 10월 8일 현재 의료진 중에서 416건이 발생 그중 233명이 사망하였다.

두번째 방법인 추적 감시는 어마어마한 인력과 예산이 요구되어 사실상 현실성이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시설의 확보 및 감시 추적 시설의 확충은 이번 사태의 확산을 방지하는 좋은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현재 실험중인 약물이나 백신을 사용하는 것이다.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약물은 지맵(ZMapp)으로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의 조합물이다. 원숭이 대상 실험에서 100% 치료 효과를 보았고, 두 명의 미국인, 두 명의 라이베리아 환자 및 영국 간호사에 대한 투여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었지만, 스페인 신부와 라이베리아 의사의 경우는 사망하였다. 아직 안정성 검사나 100% 완치는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머지 않아 치료제로 시중에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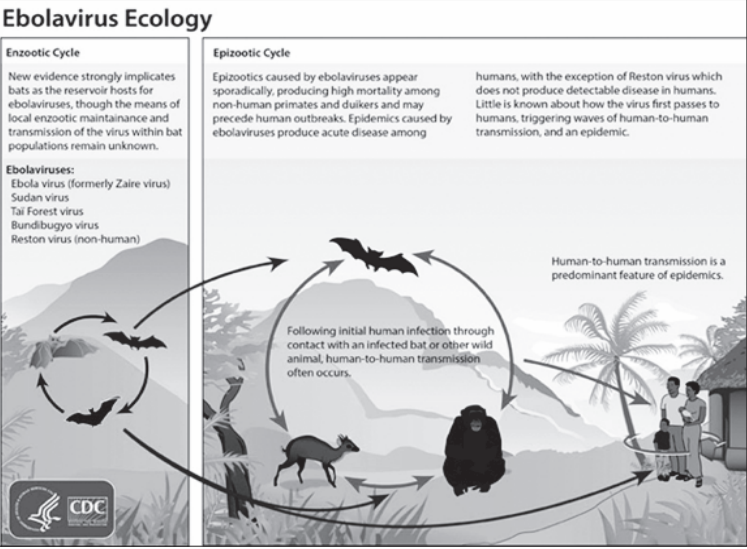
그 외에도 RNA 간섭(RNAi)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TKM-Ebola라는 약물, 기존의 독감 치료제인 파비피라비르(아비간)도 주목을 받고 있다.

▶**대처** = 일반인들이 어떻게 에볼라에 대처할 수 있을까가 가장 궁금할 것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본부(CDC)는 에볼라 창궐지역 여행자를 위한 예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주의깊은 위생관리. 예를 들면, 비누물, 알콜 등으로 손을 씻고 혈액이나 체액과의 접촉을 피하라.
- 감염된 사람의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옷, 침대시트, 주사바늘, 의료 장비 등과의 접촉을 피하라.
- 에볼라로 죽은 사람의 장례식이나 매장예식을 피하라.
- 매개체인 박쥐, 유인원 등의 체액, 혈액, 날고기 등을 피하라.
-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서부아프리카의 시설들을 피하라.
- 귀국 후에는 21일간 격리, 발병여부를 관찰하고, 발병시 즉시 병원을 찾아라.

<5면에 계속>

↓<그림3> 에볼라 바이러스의 생활주기 및 감염경로. 출처: http://www.cdc.gov/vhf/ebola/resources/virus-ecology.html.



↓<그림4> 유엔이 제시한 에볼라 확산 방지법. 감염된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염되므로 매개체나 감염환자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기획> Ebola

Ebola의 공포



박명운(보대원 74)
보건학 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지난 3월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Ebola Virus Disease는 필로 바이러스과에 속하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으로 바이러스 출혈열의 일종이다.

▶**에볼라 바이러스** = 에볼라 바이러스는 1976년 콩고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원숭이나 박쥐를 통해 인간에게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실하지 않다.

국제보건의료계는 에볼라 사태가 심각하게 발전되리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도 8월에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WHO 통계에 따르면 10월 23일 현재 총 1만141명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 이 중 4천 922명이 사망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는 최악의 경우 에볼라 감염자가 53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에볼라 치사율은 25~90%에 이른다. 현재까지 에볼라 백신과 항바이러스제가 없으므로 치료는 수혈, 수액 및 영양 공급 등 증상 억제요법을 사용하고 있다.

WHO에 따르면 미국·독일·스위스 등에서 에볼라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 검증되면 내년 초부터 서아프리카에 공급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러시아 보건당국은 에볼라 치료에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했다고 10월 초에 밝힌 바 있다.

▶**미국에도 전염** = 미국 CNN 등은 에볼라 바이러스병에서 완치된 미국인 환자 7명 중 4명이 에볼라 생존자의 혈청을 투입하는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혈액에서 추출한 항체의 투명한 액체인 혈청에는 면역 항체, 각종 영양분 등이 함유되어 있다. 혈청 치료란 감염성 질병을 앓은 뒤 항체가 형성된 사람의 혈청을 다른 환자에게 주입해 면역력을 키우는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최근 미 전역에 ‘에볼라 공포

(fear)’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심장부이며 인구 840만명의 최대 도시인 뉴욕 한복판에서 에볼라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

뉴욕 방문객 수는 지난해 외국인 1천140만명을 포함해 총 5천 430만명에 달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10월 23일 맨해튼 벨뷰병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에서 “내과 전문의인 크레이그 스펜서(33세) 컬럼비아대 의대 외래교수가 에볼라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스펜서 교수는 ‘국경없는 의사회(Medecins Sans Frontieres/Doctors Without Borders)’ 소속으로 지난 9월 16일 아프리카 기니에서 에볼라 환자를 치료했다. 국경없는의사회(MSF)는 1971년 파리에서 결성된 긴급의료단체로 세계 어느 지역이든 전쟁·기아·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의사의 구조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48시간 이내에 구호활동에 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1999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최초 확진 환자인 라이베리아 국적인 토머스 에릭 덩컨은 지난 9월 20일 미국에 도착하여 병원에 입원한 28일까지 약혼녀 루이즈 토로의 아파트에서 지냈다. 이 기간 토로는 고열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사 증세를 보인 덩컨을 간호했다. 덩컨은 30일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10월 8일 사망했다.

한편 약혼녀 토로는 덩컨이 텍사스주 델러스의 병원에서 에볼라 확진판정을 받은 지 정확히 21일 만에 격리 조치가 해제됐다. 이에 감염의학 전문의인 아메시 어델리아 박사는 “에볼라 환자와 접촉했다고 무조건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피어볼라(fearbola)** = 미 정치인들이 ‘fearbola(fear와 ebola의 합성어)’ 확산을 막기 위해 나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덩컨 환자 치료에 참여하여 에볼라에 감염됐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간호사 니나 펄을 10월 24일 백악관으로 초청해 포옹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스펜서 교수가 에볼라 발병 전 식사를 했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서맨서 파워 UN주재 대사는 에볼라가 창궐하는 서(西)아프리카 3개국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0월 25일 현지로 떠났다.

에볼라 바이러스병의 공포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4월 대책반을 구성해 국내 및 국외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국 국립검역소, 시·도 및 시·군·구 감염병 담당 부서에 추적조사 및 역학조사에 대한 지침을 배포해 국내 유입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실험실 안전등급을

Fearbola

이종호(인문대 81) CA
미주 중앙일보 논설위원

<fear+(E)bola>. 보이지 않는 적이 더 두렵다. ‘균’이 무서운 것도 그래서다. 신대륙 발견 후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는 95% 이상 줄었다. 정복자의 총칼에 의해서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들이 옮겨온 병균 세균 바이러스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중세 유럽에서도 주기적으로 전염병이 돌았다. 심할 땐 흑사병으로 전 인구의 3분의 1이 희생됐다. 19세기엔 콜레라, 20세기 들어서는 스페인 독감이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조선도 예외가 아니었다. 임진왜란 직전 조선인 셋 중 하나는 역병(疫病) 즉 돌림병으로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 역병(장티푸스)·마마(천연두)·호열자(콜레라)는 한 세기 전만 해도범보다 무서운 이름이었다. 군에 대한 공포는 그렇게 온 인류에게 트라우마가 되었다. 새로운 균이 발견될 때마다 전 세계가 화들짝 경기를 일으키는 이유다.

이번엔 에볼라다.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것은 38년 전 아프리카 콩고 북부 에볼라강 인근에서였다. 세계보건기구 집계를 보니 발견 당시인 1976년부터 2012년까지 2천387명이 감염됐고 1590명이 목숨을 잃었다.

강화하여 에볼라 바이러스 진단 검사가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8월 에볼라 바이러스병 발생 지역에 현지대응팀을 파견해 WHO 등 현지 국제기구와 공조해 현지 상황을 파악했고,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개인 보호 장비를 보급했다. 또한 정부는 에볼라 확산 지역인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 서아프리카 3개국에 의료진을 11월에 파견, 보건·의료인(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현장 안전관리자)을 모집하고 있다.

▶**우리 한국도 의료진 파견** = 우리나라 파견 의료인력의 활동 기간은 현지 교육과 활동, 격리 기간까지 포함해 7~9주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나라에는 에볼라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의사는 아직까지 없다. 따라서 아프리카에 우리나라 의료진을 파견해 인도주의적 지원도 하고 에볼라 치료 경험도 쌓아야 한다.

정부의 에볼라 바이러스병 대책 중 검역(檢疫)강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해외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에볼라 발생국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우리나라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기니·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 등 서아프리카 3

그런데 올해 사달이 났다. 감염자도 사망자도 폭발적으로 늘어 10월 15일 현재 9천216명이 감염, 4천555명이 사망한 것이다.

올해 감염 및 사망자의 99.8%는 서부 아프리카 세 나라 기니·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에 집중됐다. 지구촌 전역이 집단공포에 휩싸여 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조금만 열이 나도 조금만 기침해도 격리시킨다. 환자 치료에 관여했던 사람이 탑승했다는 이유로 멕시코에선 크루즈 유람선의 입항조차 거부했다. 에볼라 환자가 나오자 미국 여행을 계획했다가 취소한 한국인도 있다.

치사율이 70%까지 이른다는 에볼라 확산은 물론 막아야 한다.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 같은 과잉대응엔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유력한 숙주는 아프리카 과일박쥐다. 그놈을 직접 잡아먹거나 그 배설물에 오염된 동물을 잡아먹지 않는 한 감염되기 힘들다고 한다. 사람끼리는 콧물·침·혈액·정액 등으로만 옮는다. 공기 전염은 되지 않는데도 이렇게까지 벌벌 떠는 것은 아무래도 뉴스의 영향이다.

여기서 불편한 진실 한 가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확인된 위협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는 뉴스 선택에도

적용된다. 따지고 보면 세상엔 에볼라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것들이 널려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에이즈로 목숨을 잃는다. 미 전역에서 독감으로 매년 수만 명, 단순 감기로도 수천 명이 죽는다. 총기사고로 교통사고로 희생되는 사람 역시 해마다 수만 명이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더 이상 큰 뉴스가 되지 않는다. 현대의 뉴스는 불안과 공포 의심과 흥미를 팔아야 산다. 대중의 시선을 붙들어야 매는 데 그만큼 좋은 재료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에볼라가 딱 그렇다.

뉴스를 전하는 언론 종사자로서 이런 말 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제라도 제발 뉴스 하나하나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무 불안해 하지도 말고 흥분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게 뉴스 과잉 시대에 안정과 평화를 누리며 사는 비결이다.

에볼라에 전전공공할 시간에 차라리 안전벨트 확인하고 음주운전 않고 독감 예방주사 맞는 편이 나와 가족의 안녕에 훨씬 더 요긴하겠다.

시간이 가면 결국 에볼라도 잠잠해질 것이다. 온 세계가 나서고 있고 그동안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외면했던 글로벌 제약사들의 태도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긴 이것도 그렇게 호들갑 떠는 뉴스 덕분이었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4면에서 계속>

WHO가 제시한 일반인들을 위한 에볼라 확산 방지법은 그림 4에 잘 나타나 있다.

(1) 감염 증상을 보이는 사람과의 육체적 접촉금지 (2) 규칙적으로 손 씻기 (3) 에볼라 증상을 보이는 사람과의 악수 금지 (4) 박쥐, 원숭이, 죽은 동물 피하기 (5) 야생동물은 피하기거나 완전히 익혀 먹기 등이다.

하루 속히 에볼라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지만, 향후 에볼라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투자, 그리고 대중 교육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사태와 같은 창궐이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금번 에볼라 사태는 많은 인명피해도 유발했지만, 큰 경제적 손실도 초래하였다. 여행이나 무역 제한으로 서아프리카 지역

경제가 국민 총생산 기준 20~7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사망한 부모들로 인한 고아 및 난민 발생, 고립으로 인한 교육체계 붕괴 및 가난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로 발생한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국제기구들이 나서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

개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에볼라 바이러스병의 최대 잠복기인 21일 동안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서 증상여부를 추적 조사하는 등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National Medical Center)은 국가 중앙의료기관으로 에볼라 관련 상황파악, 초기 대응, 교육 및 훈련 등을 위해 에볼라 태스크 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는 국내 환자 발생 및 유입상황에 대비해 전국 17개 병원을 국가지정 에볼라환자 입원치료병원으로 정하고 544병상을 준비했다. 이들 병원 의료진에게 개인보호 장비를 보급하고 이동식 검사 장비를 구비하도록 조치했다. 또 의심환자 이송을 위한 이동식 격리 침상, 휠체어, 환자 후송을 위한 비행기 탑재 장비 등을 확보하기로 했다. 에볼라 바이러스 보호장비 C등급 전신보호복 5300개를 배부한다. 에볼라 발병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력은 개인보호장비로 전신보호복(팔·다리·몸통이 연결된 형태의 가운), 안면보호구, N95마스크 또는 전동식호흡장치(PAPR), 이중 장갑, 이중 덧신(겉 덧신과 방수 덧신), 앞치마(에이프런) 등을 갖추어야한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인 폴 앨런은 에볼라 퇴치에 써달며 900만 달러를 기부한지 한 달 만에 또 1억 달러를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에 기부했다. 앨런과 MS를 공동창업한 빌 게이츠는 지난 9월 5천만 달러를, 페이스북 창업자 마이클 저커버그도 2천500만 달러를 에

볼라 퇴치기금으로 내왔다.

▶**에볼라의 감염경로** = 에볼라 출혈열의 감염경로는 감염된 사람의 체액, 분비물, 혈액 등과 직접 접촉, 에볼라 환자 치료 중 개인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가운 등) 미착용 등으로 인한 의료진의 병원 내 감염, 감염된 원숭이, 과일박쥐 등 동물과의 접촉 등이다. 물·음식·공기를 통해 감염되지 않으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잠복기(2~21일)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는다.

주요 증상은 갑작스런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목아픔 등이며, 이후 통상적으로 구토, 복통, 설사 등 소화기 증상과 함께 간과 신장 기능의 악화 증상이 나타난다. 이 시점에서 출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진단과 치료** = 진단은 에볼라 바이러스 유전자검사법(RT-PCR), ELISA, 항원검출검사, 혈청중화검사, 바이러스 분리 등을 실시하며 치료는 증상에 따라 한다.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으므로 감염된 환자에게 수혈, 영양 공급, 경구 수분 보충요법 및 정맥 주사액 치료 등을 통해 증상 억제 요법으로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돕는다.

에볼라 감염자 및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니·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 등 3개국에 대해 특별 여행 경보발령이 내려졌으므로 해당 국가 방문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이미 해당지역을 방문 중인 경우에는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질병에 대한 공포는 안전수칙 체득, 성공적인 치료 경험 등이 쌓이면 줄어들기 마련이다. ***

모교 소식

모교 편입생 중 34%는 모교 출신 의·약 계열 쏠림 심화, 균형발전 우려

최근 3년 동안 모교 서울대로 편입학한 학생 10명 중 3명은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교 편입생 중 70% 가까이 의·약 계열로 들어갔고, 인문계열 편입생은 3%에 불과했다.

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최근 서울대에서 받은 '2012~2014년 서울대 편입학 모집단위별 합격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서울대 편입생(학사 및 약학대학 편입) 366명 중 34.2%에 달하는 125명이 서울대 출신이었다.

편입생의 출신대학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서울대 125명, 연세대 36명, 고려대 30명, 4개 사관학교 27명, 카이스트 18명, 한양대 13명, 외국대학 11명, 기타 10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약학대학의 경우 편입생 202명 중 절반이 넘는 113명이 서울대 출신이었고, 연세대 25명, 고려대 24명, 카이스트 14명, 포항공대 7명, 기타 19명이 뒤를 이었다.

단과대별 편입생 쏠림 현상도



심각했다. 전체 편입생 중 248명(67.8%)이 간호학과, 의학과, 약학대학 등 의·약계열로 들어간 반면, 인문계열 편입생은 12명(3%)에 불과했다. 사회과학계열도 15명을 선발하는데 그쳤고 그나마도 절반가량인 7명이 경제학부로 편입했다.

그러나 편입생의 전공은 인문계열이 69명(19.0%)에 달해 인문계열 출신 학생들이 취업이 잘되는 의약계열이나 경제학부 등으로

넘어갔음을 보여줬다.

국회 관계자는 “서울대 편입학은 공인 영어성적, 전공 이론, 면접, 서류심사 등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 이미 선별된 인재가 다시 뽑힐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모집정원이 의·약계열로 쏠려 인문계 고사(枯死)를 부채질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취업전쟁 시즌 인문계열의 비애 취업을 문과 47~53.7%, 이과 52~71.1%

“학점 3.7에 토익 910, 오픽(OPic) IH, 테셋(TESAT) 1급에 컨설팅회사 인턴 6개월, 작은 공모전이지만 입상 경험도 있다. 15군데 원서를 냈는데 두 곳에 합격하고 그마저 인적성에서 모두 탈락했다.” (국어국문학과 4년)

“학점 3.9에 토익 960, 토스(토익스피킹) 8, 한국사 2급, 어학연수와 인턴 2개월 경험도 있다. 15~20군데 원서를 내 3~4곳에 합격하고 그중 1곳과 면접 진행 중이다.” (사회학과 4년)

“학점 3.5에 텡스 900, 토플 112, 토스 8, 책을 쓴 경험이 있다. 10군데 원서를 냈으나 모두 탈락했다.” (사회학과 2014년 2월 졸업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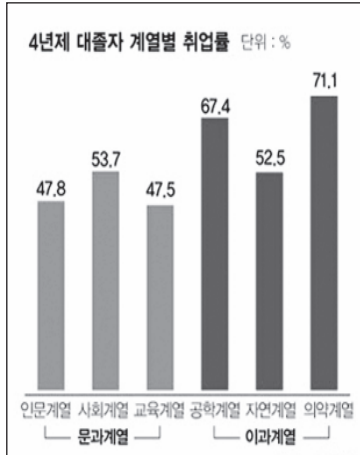
2014년 취업난은 모교 출신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매년 10~11월은 ‘취업 시즌’으로 기업,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채용 일정이 이때 몰려 있다. 조선일보 기자가 지난 11월 7일 아직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학생들을 만났다.

대학의 취업 상황은 통계로 알 수 있다. 교육부의 대학알리미 웹사이트(www.academyinfo.go.kr)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54.8%. 2012년에는 55.6%, 2011년 56.1%였다.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4년제 대졸 2명 중 1명은 취업에 실패한다는 얘기인데, 취업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취업률은 그보다도 낮다. 취업을 통계에는 대학원 진학자 등이 제외돼 있다.

대학원 진학생 중 일부는 ‘취업 유예기간’임을 고려하면 실질 취업률은 더 낮다. 게다가 취업률이 높은 전공과 그렇지 않은 전공이 확연히 다르다. 교육부의 ‘전국 4년제 대학원 및 취업률’ 자료에 따르면 인문계열 졸업자 취업률은 47.8%. 사회계열 53.7%, 교육계열은 47.5%다. 이과계열 중 공학계열 취업률은 67.4%, 자연계열 52.5%, 의약계열은 71.1%로 문과계열보다 훨씬 높다. 취업난이라도 명문대 졸업생에게는 조금 낫진 이야기였다.

1998년 IMF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도 “명문대생은 좋은 곳에 취직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난해 하반기 서울대 인문계열 졸업생 취업률은 42.3%에 불과했다. 고려대가 49.9%로 높았을 뿐 연세대 38.6%, 성균관대 42.3%, 한양대 37.8%로 40%대 진 후 취업률을 기록했다. 취업률은 낮아지는 추세다. 서울대 인문대 영문학과 졸업생의 2012년 취업률은 65.5%였다. 그러나 2014년 43.5%로 20% 넘게 줄었다. 2013년 70%이던 사회학과 취업률도 2014년 54.5%로 크게 줄었다. 이제는 취업 시장에서 명문대 프리미엄은 없다시피하다.

모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후 3년째 취업준비 중인 A씨는 “대학 동기, 선배들이 자조적으로 하는 말 중 ‘차라리 장학금 받고 취업교육을 제대로 해주는 대학에 갔으면 더 나았다’라는 게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연세대와 고려대 재학생들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한다. “좋은 대학을 졸업해 기대 삶의 수준이 있다. 눈을 낮춰 취업하긴 쉬운 일이 아닌데 주변에서는 무조건 ‘기업 보는 눈’이 높은 게 아니냐는 얘기만 한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모두 취업시즌에는 마치 고3 시절로 돌아간 듯 잠을 줄여 준비해야 한다. A씨가 다니는 스터디는 4개. A씨는 “기업마다 전형이 다 달라 일일이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요즘 대학 입학전형이 다양하다는데, 기업은 비교할 수도 없이 다양하다. 출제 범위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토익 점수가 만점에 가까운 A씨도 영어 스터디를 다닌다. 기업에 따라 영어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질문을 영어로 하는 기업도 있지만 영어 토론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 기업이 외국계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인 데도 영어 직무를 뽑는 거예요.” ***

<조선일보>

재학생 조연수(자유전공학부 경제학 2년) 동문

올해 사법고시 최연소 합격 영예



올해 제56회 사법고시 3차 시험에서 최종 204명이 합격했으며 이중 모교 재학생 조연수(21세·경제학 2년·사진) 동문이 최연소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13일 “올해 사시 응시자 7천 428명 중 3차 최종면접을 거쳐 합격자 204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과 6일 치러진 3차 면접시험에는 지난 해 3차 시험 불합격자 2명을 포함한 205명이 응시했다. 이 시험에서는 법률가로서의 기본 소양과 인성, 논리력 등을 검증했다. 법무부는 응시자 중 6명을 심층면접에 회부해 1명을 탈락시켰다. 3차

시험 불합격자는 내년도 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최고 득점자는 평균 56.72점(2차 시험 총점 425.45점)을 받은 김신희(34·경찰대 졸업)씨다.

합격자를 출신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가 40명(19.6%)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26명)·한양대(22명)·성균관대(20명)·고려대(14명)·부산대(12명)·이화여대(12명)·건국대(6명)·경찰대(6명)·경희대(6명) 등이었다.

로스쿨 도입의 영향으로 20~24세 합격생의 비중이 지난 해 전체의 14.7%에서 올해 5.4%로 크게 줄어 들었다. 반면 30대 비중은 늘어 30~34세(27.1%→37.3%), 35세 이상(8.8%→15.7%)로 집계됐다. 전체 합격자의 평균 연령도 지난 해 28.4세에서 30.2세로 높아졌다. 연령이 높아진 만큼 대학 재학생 비중(35.3%)이 적었다. 여성 합격자는 총 68명(33.3%)으로 지난해 40.2%에서 약간 줄었다.

내년 시험은 오는 1월 3일~9일 원서 접수를 받아 1차 시험은 3월 7일에 열린다. 자세한 일정은 1월 2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내년도 선발 인원은 150여명으로 법무부는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매년 선발 인원을 줄여왔다.***

2016년도 수시 우선선발제 폐지

“전부터 폐지 논의…입시생 영향 등 검토해 대안 마련할 것” 2015년도 ‘우선선발’ 용어 없애…내년부터 제도 자체 폐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수시모집 우선선발전형과 관련해 모교가 단계적인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선발제도는 수시모집 일반전형에서 1단계 합격자 중 일부 학생에 대해 2단계 면접·구술고사를 면제해 곧바로 합격시키는 제도로 평가요소는 학업 능력, 학업의 활동, 봉사성·리더십 등이다.

하지만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이 같은 평가기준을 통과해 서류전형만으로 합격하는 학생 대부분이 특목고·자사고 출신 학생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이 학생들에게 특혜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돼 논란은 꾸준히 일어왔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모의원이 모교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학년도 입시에서 102명의 우선선발 학생 중 89.2%인 91명이 특목고·자사고 출신인 반면 일반고 출신은 6명으로 전체의 5.9%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각 대학에 수시모집 우선선발제도를 폐지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그런데 올해도 이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자 성낙인 총장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에서 “우선선발제도 자체를 2017년부터 없애겠

다”고 밝혔다.

성 총장은 “다양한 학생을 뽑기 위한 취지인 우선선발제도로 특목고, 자사고 등 출신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공정한 오해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말썽의 소지가 있는 수시 우선제도 자체를 폐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 총장은 국감에서 우선선발제도 폐지의 시기와 관련해 “2016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7년까지 무조건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에서는 이미 ‘우선선발’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진 상태다. 2015학년도 입학요강을 보면 ‘우선선발’이라는 단어 대신 ‘2단계 전형 면제자’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이에 대해 모교 관계자는 “계속 문제가 되니 우선선발제도를 두면 안 된다는 논의가 잠정적으로 있어 왔다”며 “‘우선선발’이라는 단어는 확실하게 없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6학년도부터는 제도 자체가 조금씩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올해에는 우선선발제도의 명칭만 바뀌었지만 내년부터는 제도 자체를 없애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뉴시스>

모교생들이 올해 가장 많이 빌려 읽은 책

그리스 비극과 ‘총, 균, 쇠’

도서관 대출 상위권 점령. “교양과목 때문에 읽지만 글쓰기 확실히 늘어 인기”

올해 서울대 도서관에서 가장 바빠 움직인 책은 그리스의 비극 중에서도 ‘에우리피데스 비극’이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10월 31일 현재까지 서울대 도서관에서는 ‘에우리피데스 비극’과 ‘총, 균, 쇠’가 대출 순위 공동 1위(92회)를 차지했다. ‘아이스킬로스 비극’이 3위, ‘아리스토파네스 희극’이 6위, ‘오이디푸스 왕’이 9위로 집계됐다. 그리스 고전이 대출순위 상위권을 점령한 것이다. 친병희씨가 번역한 ‘에우리피데스 비극’은 ‘메데이아’, ‘트로이아의 여인들’, ‘엘렉트라’ 등을 담고 있다. 모교는 학생들이 그리스 고전을 많이 빌려 읽는 현상에 대해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교양 과목(3학점) 때문으로 해석했다.

모교 인문학 연구원 김현 교수(서양 고전학)가 개설한 이 강좌는 몇 년 전 수강 정원 30명으로 출발했지만 지난 해 50명, 올해는 100여 명으로 늘어났다. 한 학기에 그리스 고전 열다섯 작품을 읽어야 하고 보고서도 여러 편 내야 하지만 ‘글쓰기를 확실히 배울 수 있다’는 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다. 니체는 ‘비극의 탄생’에서 ‘무서운 깊이 없이 아름다운 표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썼다. 김현 교수는 “짜깁기가 아닌 원전 읽기 중심으로 강의하면서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주려고 했다”며 “길고 짧게 호흡이 다른 글을 여럿 쓰게 해서 좀 고통스럽겠지만 각오하고 온 학생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화와 종교, 상상력이 연결되면서 사고의 폭을 넓혀준다는 것도 장점이다. 올해 고려대 도서관에서는 김진명이 쓴 ‘고구려’, 조정래의



↑ ‘총, 균, 쇠’와 함께 올해 모교 재학생들이 도서관을 통해 가장 많이 읽은 것으로 조사된 ‘에우리피데스 비극’의 표지.

‘정글만리’,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무라카미 하루키의 ‘1Q 84’,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제3인류’가 대출 1~5위였다. 소설의 인기가 높았다. 연세대 도서관에서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김애란의 ‘두근두근 내 인생’,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총, 균, 쇠’,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순으로 나타났다. ***

분당 서울대병원 안과 우세준 교수

‘한길 학술상’ 수상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 병원의 안과 우세준 교수가 제112회 대한 안과 학술대회에서 ‘한길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최근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정 한길 의료재단은 2007년 대한 안과학회에 지원해 ‘한길 학술상’을 제정한 바 있다. 이 학술상은 국내에서 안과학 분야 학술연구에 공이 큰 안과학회 회원을 선발해 기금 1천만원을 포함함으로써 국내 안과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길 학술상’은 안과의 사에게 주어지는 국내의 학술상 가운데에서는 가장 큰 상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이 상을 받은 우세준 교수는 ‘한길 학술상의 최연소 수상자’가 됐다.*** <중부일보>



↑분당 서울대병원 안과 우세준 교수(가운데)가 제112회 대한 안과학술대회에서 한길 학술상 수상 후 병원 의대 교수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 = 분당서울대병원 제공>

모교 도서관 신축 리모델링 기금모금 캠페인

“서울대 도서관의 친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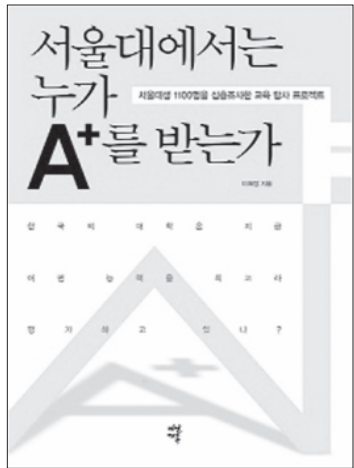
모교 서울대 도서관이 4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인 테다가 재학생 이용 수와 소장 장서의 포화상태로 한계상태에 부닥쳐 도서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네이밍(Naming) 캠페인과 리모델링 모금 캠페인을 다음과 같이 벌이고 있다. ▶Naming 모금 캠페인 = 재학생 등 후배들이 사용할 책상, 의자, 서가에 기부해준 선배들의 이름을 넣어 후진들이 영원히 기억하도록 해놓는다. <도표 참조>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모금 캠페인= 도서관은 학생들이 하루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그러나 현재의 중앙도서관이 관정 도서관과 함께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낡은 시설의 리모델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해 5월 이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조천식 동문이 ‘중앙도서관 시설환경 개선기금’으로 50억원을 후원한 외에도 300여 명의 동문들이 9억원 넘게 기부했

다. 중앙도서관 시설개선을 위한 모금 액수는 3년간 총 1천억으로 이 모금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주어 후배들이 선배들의 정성을 새기며 더욱 모교의 미래를 만들어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 가구·공간 Naming 모금 종류			
종류	내역	모금액	선택□
열람석	열람석 의자	100만원(\$1,000)	□
	4인 테이블	300만원(\$3,000)	□
	8인 테이블	500만원(\$5,000)	□
서가		500만원(\$5,000)	□
멀티미디어실	멀티미디어세트	500만원(5,000)	□
개인캐럴	개인실	1천만원(\$10,000)	□
그룹스터디룸	4~6인실	3천만원(\$30,000)	□
	8~10인실	5천만원(\$50,000)	□
세미나실	30석 규모	2억원(\$200,000)	□
	60석 규모	3억원(\$300,000)	□
컨퍼런스룸	100석 규모	10억원(\$1,000,000)	□
패컬티 라운지		10억원(\$1,000,000)	□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기 바라고 있다. ▶캠페인 기간= 지난해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모금 목표액= 3년간 총 1천억원의 모금 운동을 벌인다. 이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은 <http://friends.snu.ac.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도서관 홍보팀>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이혜정 지음·다산에듀 펴냄)

공부를 잘 한다는 서울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4.3점 만점인 학점에서 4.0점 이상을 맞은 최우등생은 전체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법을 연구하는 교육학자로서 이 학생들의 특별한 공부법을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 저자의 원래 의도였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할수록저자의 당혹감은 커졌다. 초·중·고교시절의 ‘주입식 교육’과 별 다를 게 없는 수용적 학습을 고수하는 학생들일수록 최고 학점을 받고 있던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가 이렇게 가르쳐도 되나?’, ‘비관적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겠다는 교육 목표는 어디로 갔나’ 저자의 의문은 연구 프로젝트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실제 저자가 서울대 최우등생 46명을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읽다 보면 압담해지는 기분을 지을 수가 없다. 학생들은 “교수님이 하는 말은 농담까지 다 받아적는다”, “1학년 때 나만의 아이디어를 찾는 식으로 공부했다가 시험을 망쳤다. 이후 그냥 고등학교 때처럼 교수님

말씀을 다 받아적으니깐 다시 성적이 올랐다”고 말한다. 이렇게 수업시간 교수의 ‘말’을 한 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적는 최우등생은 인터뷰에 응한 전체학생 중 87%였다. 반면 예습은 안한다. 인터뷰 참가자 46명 중 37명이 예습은 전혀 안한다고 했고, 나머지 20%도 예습보다 복습에 더 중시한다고 한다. 사실 교수의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업이라면 예습 같은 건 필요 없다. 이렇게 만들어진 최우등생들은 어떤 모습일까. “교수와 다른 의견을 쓸 경우 높은 학점을 못 받을 것이라 생각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겠다는 학생은 46명 중 5명에 불과하고, ‘교수 의견이 당연히 더 타당한 것 아니냐’며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 저자는 미시간대 학생들도 비교해서 살펴본다. 혹시 이런 모습이 세계 명문대의 공통적 특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역시 서울대가 문제였다. 일례로 미시간대에도 교수의 말을 다 적는 방식으로 필기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이들은 전혀 높은 학점을 받지 못했다. 서울대 최우등생들의 고독점 전략은 미 명문대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서울대는 이들이 어떤 인재가 되길 바라며 A+ 학점을 주고 있는것일까. 서울대는 교수를 흉내 내기만 할 뿐 교수를 절대 넘어서지 못하는 조교 같은 제자를 기르는 것이 목표인가. 저자는 대학공부의 길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다. 우선 ‘지식소비자’를 만들고 ‘결과’만 가르치는 교육에서 벗어나 ‘지식생산자’를 기르고 ‘과정’을 알려주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경제>

“도서관 기부 미주 동문들께 감사”

모교 졸업생들의 논문은 모교 도서관이 모두 검색 서비스하고 있고, 한국의 모든 석·박사 논문은 KERIS에서 운영하는 RISS 서비스(<http://www.riss.kr/index.do>)에서

검색 및 원문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외국 대학의 석·박사 학위 논문은 ProQuest PQDT, DOD database(<http://search.proquest.com/pqdt/dissertations/fromDatabases-Layer?accountid=6802>)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최근 많은 대학들이 Institutional Repository (대표적으로는 <http://dspace.mit.edu>)를 만들어 석·박사 학위 논문을 저장해두고 있고 또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google 에서도 pdf로 검색되고 있다. 전 세계 학위논문 상당수가 디지털화 되고 있고, 이를 검색할 수 있는 여러 database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는 모교 석·박사 학위논문의 디지털화와 검색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모교 도서관 신축 및 네이밍 모금에 미주 동창회 많은 동문들이 참여(표 참조)해 감사하고 있다. 일부 공간과 가구는 네이밍이 완료, 일부는 아직 남아 있다. ***

<모교 도서관 김미향>

기부동문 이름	금액(\$)
이만택(의52)	5,000
김정희(음56)	1,000
오태요(의56)김명자	5,000
강창욱(의57)	1,000
고광선·양남주(공57)	10,000
최인갑(공57)	1,000
정동구(공57)	10,000
김진우(의58)	10,000
이홍표(의58)	1,000
반기문(문63)	5,000
오인환(문63)	1,000
김자역(의69)	1,000
박상원(음69)	1,000
손재욱(가77)	1,000
백승석	3,000
뉴욕 동창회	1,000

외국인으로 서울대 유학 생활을 회상하며

내 인생을 바꾼 한국으로의 모험



Greg Scarlitoiu(외교 90)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아들아, 한국으로 간다니까 기분이 어끌니?’

나는 전 날 1990 이탈리아 월드컵 축구경기를 늦게까지 보는 바람에 늦잠을 자고 있었다. 그 날 내가 어머니께 들은 질문은 아마도 내가 받아본 질문 중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이상한 것이었으리라.

▶공산주의에서 보낸 19년 = 그 이유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보면 알 수 있다. 나는 당시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대학 영어영문학과에 갓 입학한 19살짜리 신입생이었고, 근 몇 달 동안 많은 일들을 겪고 있었다. 가끔은 그 모든 일들이 버겁기도 했지만, 내 인생에 엄청난게 멋진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불운하게도 인생의 처음 19년 동안을 동유럽에서 가장 억압적인 공산주의 국가에서 보내야 했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세스쿠는 1971년 평양을 처음 방문하고 나서 루마니아식 주체 사상이 가미된 개인숭배 체제를 구축했다. 이 체제는 그와 절친했던 김일성이 만들어 낸 북한의 ‘로동자 천국’ 개념과 북한식 개인숭배 체제를 거의 본떠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대한 사업들을 집행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외채를 졌다. 1980년대 루마니아는 자본재와 소비재의 수입을 모두 급격하게 줄였고, 내수 시장에서 식량을 빼돌리면서까지 수출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수출했다. 자본재의 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루마니아의 경제는 붕괴 직전까지 망가졌다. 루마니아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나 여행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전혀 보장받을 수 없었고, 차우세스쿠가 세운 내부 안보 기관들의 감시와 억압에 늘 시달려야 했다.

이런 상태에서 루마니아 국민들은 매일 공공 배급제도로 배당되는 극소량의 음식을 사기 위해 몇 시간이고 줄을 서야 했다. 전기가 끊기는 것은 일상다반사였고, 유일한 TV 방송국은 하루에 고작 두 시간만 방송했는데 그것마저도 차우세스쿠와 그의 아내를 찬양하는 내용 뿐이었다.

루마니아 방송국은 해외 스포츠 경기 중계를 거의 중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특수 제작된 안테나로 불가리아 방송 전파를 잡

아 당시 매우 인기가 있었던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간신히 볼 수 있었다.

1989년 12월 루마니아의 공산주의는 무너졌고 대통령 부부는 소총수들에 의해 처형 당했다. 비록 루마니아는 하룻밤 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1990년대 초반은 이전과는 다르게 매우 개방된 시기였다. 정치판은 부패했고 시민사회는 갓 태동한 탓에 혼란스러웠지만 굶주림과 에너지 부족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루마니아인들은 이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고, 해외로 여행할 수 있었고, 사라져가는 공산주의의 유산을 마지막으로 보려고 루마니아로 붓물 터지듯 밀려 들어오는 수백 수천 명의 외국인들과 자유롭게 만나고 얘기할 수 있었다. 또, 최신 해외 출판물을 읽고 해외 유학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할 수도 있게 되었다. 수십 년 만에 루마니아인들은 해외 유학 장학금을 타기 위한 경쟁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주로 내 영어와 프랑스어 실력을 활용해서 이런 종류의 시험을 세 번이나 치렀다. 1990년

“외교부 장관을 역임하신 윤영관 교수님, 하용출 교수님, 박상섭 교수님, 최정운 교수님 등 외교학과 교수님들의 지도로 1998년 석사과정도 무사히 마쳤다”

대의 처음 몇 달간은 나도 여느 패기 넘치는 젊은 루마니아인들 처럼 공산주의 이후 루마니아에 어울리는 개발 모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했다. 오랜 시간의 고립에서 벗어난 후 루마니아는 외국 서적과 출판물들로 넘쳐나고 있었다.

나는 특별히 국제 개발에 대한 서적들을 열심히 탐독했는데 이는 내 인생을 바꿨다. 나는 어느 날 ‘한강의 기적’ 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고속 경제성장에 관한 자료를 읽게 됐는데, 이로 인해 한국의 성공신화에 매료돼 이 주제로 보고서를 제출한 적도 있다.

▶한국정부 초청 장학생 = 1948년 10월 이후 루마니아는 과거 공산주의 동맹국가인 북한하고만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1990년 3월 루마니아는 한국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그 직후 부카레스트에 새롭게 들어선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남한에서 최초로 유학할 루마니아 학생 후보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대사관 직원이 한강의 기적에 대해 내가 쓴 보고서를 본 후 나를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한다. 그 후 어머니께서 루마니아 교육부로부터 받으신 전화 한 통화로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대한민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한국에서 유학하는 것에 대해 나는 전혀 걱정하지도, 고민하지도 않았다. 나는 당시 갓 스무살이

었고 여행을 해 본 적도 없었지만, 너무나도 낯설지만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던 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매우 신나 있었다.

▶외할머니만 반대 = 나는 일본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행을 결심했다. 부모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신 것만 보더라도 나의 한국행은 운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나와 부모님은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오래 있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으로의 여정은 당시 아무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유일하게 나의 한국행을 걱정하셨던 분은 나를 18살 때까지 키워주셨던 외할머니였다. 외할머니께서는 극동지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계셨다.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봐라 가야. 거기서 먹을 것이나 있겠니? 그 사람들이 고작 하루에 쌀 한 그릇이나 줄 것 아니니?’

이와 반대로 외할아버지께서는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 전혀 놀라지 않으셨고 내가 북한이 아니라 남한으로 간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만족해 하셨다.

▶서울에 루마니아인은 단 5명 뿐 = 나의 할아버지께서는 공산화 이전 루마니아에서 공군 교관이었지만 회한하게도 나는 오늘날까지도 고소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에 서 탄 서울행 비행기는 내 인생 최고의 비행이었다.

1990년 8월 말 대한항공 여객기가 김포공항에 거의 도착할 무렵

풍경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와지붕의 곡선이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나는 전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차원에 들어선 기분이었다. 그 후 몇 년 간 실제로 한국에서 살면서 나는 그때 느꼈던 기분을 계속 느낄 수 있었다.

내 한국 친구들과 외국인 친구들은 내가 루마니아 대사로부터 저녁식사에 초대받는 것을 항상 신기해 했다. 그러나 사실 이는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었다. 거의 1년 내내 서울에 거주하는 루마니아인은 고작 나를 포함해 다섯 명이었기 때문이다.

나를 제외한 다른 루마니아인들은 새로 온 대사와 부인, 축구 골키퍼 선수, 그리고 바이엘 그룹 한국대표의 루마니아인 부인이었다. 이들 4명은 한국에서도 보호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일상과 어느 정도 분리돼 살았다. 그러나 나는 한국의 일상에 내딛겨져 한국에서 공부하고, 살고, 친구를 사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음식과 문화를 탐험하는 엄청난 모험을 했다.

두 개의 전혀 다른 문화와 문명권 사이를 연결하는 최초의 사람으로 활동하는 것은 꽤나 어렵고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무살이라는 나이에도 나는 그 책임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 나는 학생, 언어 교사, 교수, 공학자, 항공기 조종사, 음악가, 프로 스포츠 선수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났다. 내가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되었을 때를 되돌아 볼 때마다 그 때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교류가 전무했던 두 나라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루마니아인들이 한국에 관해 아는 것이라고는 서울 올림픽과 태권도 밖에 없었다. 한국인들이 루마니아에 관해 아는 것이라고는 악명 높은 공산주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세스쿠, 드라쿨라 백작, 유명한 체조선수 나디아 코마네치, 그리고 루마니아인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안소니 퀴이 출연한 동명의 영화로 유명해진 루마니아 태생 작가 콘스탄틴 게오르규가 쓴 ‘25시’이 정도 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혼자자 아니었다. 내가 오기 전에도 이미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정부 초청 장학생들이 와 있었고, 내가 온 후에도 정부초청 장학생 제도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정부 초청 장학생들이 왔다. 우리는 그 유명하다는 ‘인터내셔널 하우스’(국제회관)에서 살면서 세계화가 전 세계에 퍼지기도 전에 이미 국적, 인종, 언어, 종교를 뛰어넘는 우정을 맺었다.

나는 인터넷도, 휴대폰도 없던 시절 서울에 왔다. 외국인 학생들 간의 우정과 만남의 장이었으나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 인터내셔널 하우스 로비의 전화기 앞에는 늘 외국인 학생들이 길게 줄을 서서 고국에 전화를 하곤 했다. 그로부터 10년 뒤 내가 한

국을 떠났을 때,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인터넷망이 가장 잘 보급된 국가가 돼 있었고, 휴대폰 통신망은 기하급수적으로 규모가 성장하고 있었다. 또, 한국의 조선, 반도체, 자동차, 철강 산업은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서울대 언어 교육원에서 얻은 것 많아 = 서울대 언어 교육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동안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얻은 것이 정말 많았다. 나는 늦게 도착한 탓에 한국어 초급반 수업을 두 번이나 빼졌는데, 처음으로 수업을 듣던 날 내 동급생들과 실력이 이미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고 느낄 정도로 위축되어 있었다.

세 번째 수업 시간에 우리는 식당에서 비빔밥을 주문하는 표현을 익혔는데, 내가 유일하게 한국어로 주문할 수 있었던 음식이 그것 뿐이었기에 그 후 몇 주 간 나는 매 끼니마다 비빔밥을 먹어야 했다. 이 때 이후로 나는 지금까지도 비빔밥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한 번은 늘 맨 앞 줄에 앉았던 재일교포 요시에게 교사와 한국어로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적이 있었다. 우리는 아직 초급반이었기 때문에 요시에게 한국어로 교사와 자유자재로 대화하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3주 뒤 나는 그들이 한국어가 아닌 일본어로 대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그 정도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6개월 후 나는

처음으로 한국어로 대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뛰어난 실력과 넘치는 열정을 갖춘 언어 교사들 덕분에 10개월 후 서울대 외교학과 입학면접을 볼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웅변대회 최우수상 = 입학 후 처음 1년은 끔찍했다. 두 학기 동안은 영어로 시험을 치를 수 있었지만 수업 내내 도통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는 채로 앉아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훌륭한 한국인 친구들과 유능하고 친절한국인 교수님들의 도움 덕분에 이내 전문 학술용어들을 차근차근 익혔고 내 전공 분야에 대해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도달했다. 비록 나는 오늘날까지도 한국어를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서울대에 입학한 이후 2년이 지났을 때 나는 한국어로 말하는 것에 자신감을 느낄 정도로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었다.

1996년 5월 나는 교육부와 KBS, 내외경제신문이 후원한 외국인 웅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탔다. 덕분에 몇년 간 TV 방송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탔는데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었고 지금도 소중히 여기는 추억이 되었다.

1994년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교학과 석사도 계속했다. 한국의 외교부 장관을 역임하신 윤영관 교수님, 하용출 교수님, 박상섭 교수님, 최정운 교수님을 비롯한 외교학과 교수님들의 친절 한 지도로 1998년 석사과정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한국 여성을 아내로 맞아 = 그 때 나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도 했다. 1997년 설날 아내 부모님을 처음 뵈었는데, 내가 한국어를 잘했기 때문에 보수적인 고교 교사였던 두 분은 모두 나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 지난 17년 동안 처가와 돈독한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 나는 사업차 한국에 자주 오는데 매번 가족과 동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장인 장모님께서는 아내나 나의 두 딸들보다 나를 더 자주 보신다.

나는 한 번도 한국에서 살고 공부하고자 했던 결심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나는 다시 한국으로 왔을 것이다. 졸업 후 진로를 정하느라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이제 나는 내 길이 무엇인지 확실히 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24년 전에 시작되었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나는 매 순간과 매 단계를 계속 즐겼다. 한국어와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배우는 것은 매우 보람찬 일이다. 그러나 한국어를 배우는 데 수 년을 투자하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의 주요 경제대국 중 하나이며, 내가 아내와 갓난 딸과 함께 미국유학을 위해 한국을 떠났던 14년 전보다 지금 한국에는 기회가 더 많이 넘치고 있다.

보스턴에 있는 터프츠 대학의 플레처 스쿨(The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에서 공부했던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서울대에 있을 때 나는 APSIA(Association of Professional Schools of International Affairs) 소속 학교들의 과일을 모두 검토해서 플레처 스쿨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13면에 계속>

세계 정치 칼럼

“노벨 ‘정치상’ 은 어떤가?”



이원택(의대 65) CA
미주 의대동창회보 편집위원장

이목구비가 또렷하다. 카메라발이 잘 받게 생겼다. 말랄라라! 이름도 듣기 좋구나! 한 번 띄워 보자.

11살이면 초등학교 4~5학년짜리다. 겨우 코흘리개를 면한 나이다. 그가 BBC 방송의 한 블로그에 탈레반의 여성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문을 올렸다고 볼 수는 없다.

▶17세 소녀의 노벨 평화상 = 말랄라 유사프자이(Malala Yousafzai)는 반 탈레반 운동가 지아우딘 유사푸자이에 의해 계획적으로 짜맞추어진 파키스탄 판 우상이다. 17세 소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다니 말이 되는가?

말랄라의 아버지 지아우딘은 무서운 사람이다. 의사가 되겠다는 딸을 세뇌시켜 “자신이 의사가 되기보다는 다른 여성들이 쉽게 의사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라”라고 바람을 넣고 나서 15세 때 탈레반의 총격을 받은 후엔 “총에 맞은 사람을 치료하기보다 총에 맞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라는 말이 나오게 했다.

지아우딘은 이상주의 교육자로 말랄라가 태어나기 전부터 여성 취학률이 20%에 불과한 스왓밸리에 남녀공학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한 사람이다. 그는 자기 딸을 9살 때부터 대중매체에 출연시켜 ‘여성의 세속적 교육을 금지한’ 탈레반에 도전해 왔다.

탈레반은 이 부녀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급기야 2012년 10월 9일 하교 버스에 탄 말랄라에게 탈레반 테러범이 머리와 목에 3발의 총격을 가해 그녀는 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6시간이나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영국으로 이송돼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후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파키스탄 사람들은 너무나 기적적인 완쾌를 보고 그녀가 머리에 총을 맞은 적이 없고 그에 대한 ‘신화’는 서방 세력의 음모라고 믿고 있다. 그곳에서는 현 정권 핵심 지지파를 제외한 국민들 대부분이 말랄라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떨떠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합작 드라마 = 말랄라를 ‘서방의 꼭두각시’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단다. 따지고 보면 ‘말랄라 신드롬’은 자신의 딸을 부도처럼 파키스탄의 여성 총리로 만들어보겠다는 한 사나이의 집념과 파키스탄에서 탈레반이 정권을 잡을 수 없도록 그 뿌리를 뽑으려는 서방 세력의 합작 드라마다.

제 국민들 인권도 제대로 못 챙기는 미국이 언제부터 남의 나라 국민들의 인권 옹호에 나섰으며 아직도 대영제국의 환영에 사로잡혀 있는 영국이 언제부터 여성 운동에 앞장서 왔는가?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핑계로 2008년, Texas 주 Eldorado의 한 물몬 계통 종교 집단에서 야기된 성인에 대한 근친상간 등 437명의 어린이에 대한 ‘아동 학대죄’를 없던 일로 한 적이 있다. 너무 어려서 수상 노릇을 해 먹어 할 일이 없어진 고든 브라운은 유엔 교육 특사라는 명함으로, 같은 또래의 토니 블레어는 누가 바람둥이라 할까 봐 페미니스트라는 기치를 들고 ‘말랄라 노벨상 만들기’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명목은 여성인권 옹호지만 실제로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 즉 파키스탄에서

‘친 구’



문성길(의대 63) VA
워싱턴 DC동창회 전 회장

어느 사람은 외로울 때, 절실히 도움과 위로가 필요할 때, 막상 찾아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알고 놀라움과 함께 인생을 한참 잘못 살아온 것 같아 한없이 슬퍼진다고 한다.

특히 똑똑하다든가, 남들 도움없이 한참 잘 나가던, 소위 성공했다던 사람들의 경우에서 더욱 그런 것 같다.

이런 말이 있다. “잘 나갈 땐 온갖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몰려드나 그렇지 못한 땐, 모든 이들이 떠나며, 오직 병마(病魔) 등 반갑지 않은 손님들만 찾아온다”고. 그렇기에 평소 덕을 쌓으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또 듣고 있다.

‘3대(代)의 덕을 쌓아야 그 후손의 장례 날에 일기가 쾌청하

다’는 옛 사람들의 말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친구, 참 좋은 말임에 틀림없다. 저쪽에서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면, 더 더욱 이쪽에서 먼저 다가가 무언가 진정으로 해주어야 한다. 꼭 반대 급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저 좋아 하는 그런 거 말이다.

얼마 전 한 친구의 고회연(古稀宴)에 다녀왔다. 눈에 띄는 하객 중엔 병마에 시달리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이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할 지도 몰랐는데 이분을 초청한 고회를 맞은 친구의 배려의 깊은 마음 씀씀이에 정함을 느낄 수 있었다.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이 분과 아무 말은 비록 못했지만 포옹과 오랫동안 권 양손 악수로 이미 서로가 할 말은 다한 것 같았다.

옛날 고사(古事)가 생각난다. ‘백아절현(伯牙絕絃)’이 그것이다.

중국 진(晉)나라 때 유백아(俞伯牙)라는 거문고의 대가가 사



세상에 시험도 보지 않고 미리 상을 주는 법이 어디 있는가.

말랄라도 들은 풍월이 있는지라 “나에게 상이 주어졌 것은 그간의 업적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할 일을 더 잘 하라는 격려로 생각한다”고 젊잖게 한마디 했다. 17세에 125만달러의 상금을 탔으면 팔짝팔짝 뛰어야 할 나이이다.

그녀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두 총리를 시상식에 초대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제부터는 일국의 총리 급과 맞먹게 됐다는 얘기다. 전·현직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영웅’으로 호칭되고 이례적으로 근엄한 영국 여왕으로부터 트위터와 축하 메시지를 받았으며 미국 현직 대통령 부부가 ‘타임’지에 축하성명을 발표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으니 얼마나 우쭐대고 싶겠는가.

말랄라 노벨 평화상의 막후 수상자인 지아우딘은 외교관인 영국 주재 파키스탄 교육영사가 되어서 그런지 말을 아끼고 있다. 아니면 불현듯 자기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가를 깨닫고 숙연해 했는지도 모른다.

▶미성년에게 오히려 집만 지워 = 이제 말랄라는 17세의 처녀가 젊어지기에는 너무나 커다란 짐을 지게 되었다. 결혼도 쉽지 않으리라. 언제 암살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려야 하며 평생 억압받는 불쌍한 여인의 표정을 지어야 할 것이다.

‘말랄라’란 말은 파슈툰족 말로 ‘비탄에 빠진’이란 뜻이라니 시인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어떤 계기가 있었나 보다.

금년에 말랄라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하게 된 인도의 카일라쉬 사티아르티(Kailash Satyarthi, 60세)는 대학교수를

신으로 자기의 고향 초(楚)나라에 갔을 때다.

휘영청 밝은 달밤에 거문고를 연주할 때 종자기(鍾子期)라는 고향 친구가 거문고 소리를 듣고 있었다. 놀랍게도 이 친구는 백아가 강물을 바라보고 거문고를 켜면, 종자기 이 친구도 강물을 쳐다보았다.

그리하여 이 두 사람은 고향 친구에서 의형제로 발전했다.

이듬해 다시 고향을 찾았을 땐, 종자기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서, 백아는 거문고를 마지막으로 쳐고 줄을 끊어 버렸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음을 슬퍼한 것이었다.

이런 경지의 친구 관계를 ‘지음지교(知音之交)’라 하며, 친구관계에서 으뜸으로 여기고 있다. 친구 관계 뿐이겠는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해당되어야 할 좋은 표본이다.

참고로, 친구지간 표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어린 시절부터 비밀 없이 절친한 죽마고우(竹馬故友), 숙명 같은 수어지교(水漁之交), 견고한 금석지교(金石之交), 편안한 막역지교(莫逆之交), 허물이 없는 관포지교(管鮑之交), 목숨 걸고 맺은 신의의 문경지우(刎頸之友).

허물을 덜어주고 마음을 헤아려주는 친구관계. 남녀관계의 사랑, 아니 모든 인간관계에서 선택 아닌 필수여야 하겠다.***

집어 치우고 30년간 인도의 어린 이들을 노예와 다름없는 강제 노동 시장에서 구해 내려고 노력해 온 아동 인권 운동가다. 물론 18세 미만의 어린이를 융단(carpet)이나 양탄자(rug) 짜는 공장으로 보내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아동 학대’ 내지는 ‘성장권’을 박탈하는 행위다. 그래서 ‘러그 마크 제단’을 만들어 아동 노동을 착취하지 않은 러그에 인증 도장을 찍어 주는 사업을 벌려 왔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고통만 학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미성년에 대한 성추행은 그 정신적 후유증이 더 크다. 또한, 나쁜 일만이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아니다. 크리스마스도 스트레스고 승진을 하는 것도 다 스트레스다.

말을 걸어야 비로소 대답을 하는 수줍은 한 시골 소녀가 일약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10대로 부상한 말랄라, 한창 천진난만한 공상의 날개를 펼쳐야 할 나이에 아비규환의 참담한 현실 세계로 내동댕이쳐진 말랄라 유사프자이가 가련하다. 모든 꽃들과 마찬가지로 여자도 갓 피어났을 때가 제일 싱싱하고 아름답다. 꽃망울이 채 터지기도 전에 세계열강에 의해 꽃잎이 갈기갈기 찢겨 버린 그녀—.

이 세상의 모든 정치꾼들이여! 제발 어린이를 그대들의 이익을 위해 혹사하지 말지어다. 그것이 야말로 아동 학대죄 중에도 제일 사악하니, 아동이 아동으로 대우받는 아동의 권리를 위해 평생을 싸워 온 사티아르티가 어른들에 의해 만신창이가 된 말랄라와 함께 노벨 평화상에 지정된 것은 과연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동문 작품 지상(紙上) 전시회

양구 38휴게소에서 본 겨울 풍경

이병학(李炳學)

▶작품소개 = oil on canvas, 162.5×130cm, 2012년 작품.

〈작가약력〉

▶1966년 모교 회화과 졸업
▶1990~1992 국립 현대미술관 초대작가
▶한국 현대미술전, 예술의 전당 전관 개관 기념 초대전.
서울대 개교 50주년 기념 초대전, 한-터키 현대미술교류전, 제6회 대한민국 종교예술제 초대전, 아시아 미술 초대전.
쉐필드 미술대축제 등 국내외 초대전 및 개인전 다수.
▶현재 한국미협·한국기독교미협·상형전 회원,
서울대 미대 동창회 감사 ***

경제신간 안내

“금과옥조의 거시 경제학 신화를 깬다”



신현명(상대 62)
한국은행 전 감사실장

1. 오류와 허구의 거시경제학 100년

화폐(돈)는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이다. 인류는 돈의 발명에 이어 신용을 도입했고 은행과 중앙은행을 탄생시켜 화폐 신용경제를 완성했다.

물물교환 형태의 시장경제로부터 화폐신용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사회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시경제학자들이 통화와 실물의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써 현재까지 100년 동안 거시경제학은 완전한 오류와 관념에 의한 허구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해 오랫동안 인류사회는 이루 측량할 수 없는 폐해와 재앙을 겪어 온 것도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거짓 이론은 화폐수량설이다. 이는 프리드먼 등 통화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주류경제학자들의 이론으로서 거짓 및 통화경제학에서 금과옥조가 된 이론이며 10여 년 전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이 현재의 금리중심 통화정책으로 바뀔 때까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시행되었던 통화량중심 통화정책의 이론적 근거였다.

2. 통화플로우수요·공급함수의 도입으로 거시경제의 진실이 규명되다

이 책은 새로운 시각 또는 경제학 방법론에 의한 또 하나의 이론서가 아니고 사실에 입각하여 실제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규명한 것이고 따라서 진실 그 자체다.

이 책은 가계와 기업 등 실물 경제주체들의 매일 매일의 실제 시장활동을 반영하는 함수인 통화플로우 수요·공급함수(통화조달운용함수)를 분석도구로 도입하여 일체의 가정이 없이 구체적인 숫자에 의한 현실적 예시와 가감산 수학만 이용하여 통화와 실물의 사실관계를 규명하였다.

이 함수는 실물시장 함수와 자산시장 함수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사전적 함수와 사후적 함수로 구분된다. 사전적 실물시장 함수에는 실물수요와 공급, 신용수요와 공급 그리고 통화수요의 증감의 크기가 반영된다. 사전적 함수에서 물가와 실물거래량, 이자

율과 신용수수액 그리고 통화량증감이 결정되어 사후적 변수로서 사후적 함수에 표시된다.

여기서 물가, 이자율 그리고 통화량 사이에서는 상관관계만 성립됨이 확인되고 물가와 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원리가 규명되었다. 또한 이 함수에서 재화수요 등 실물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이 증가되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며 통화수요(지출에 대비한 통화수요와 부의 보유수단으로서의 통화수요)도 증가하여 통화량이 증가되는 것임이 확인되었다. 즉 통화량 증가는 인플레이의 원인이 아니라 인플레이의 현상 또는 결과임이 입증되었다.

통화량이 증가되어도 즉 경제주체의 보유통화가 늘어나도 금리인상 등으로 전망이 어두워지면 수요가 둔화되어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 기존이론은 통화량 증가가 인플레이의 원인이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에서는 통화수요가 감소한다고 주장하는데 통화수요가 감소하면 통화량도 감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완전히 틀린 주장이다. 이 함수를 벗어난 통화량 공급은 불가능하다.

통화량이 증가되는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실물시장에서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마이너스저축(저축에 대응되는 변수는 투자가 아니고 마이너스저축임)이 발생하는 경제주체(기업과 가계)는 자기가 보유하는 통화를 사용(통화수요의 감소를 의미)하거나 신용수요를 갖는다.

반대로 저축이 발생하는 경제주체는 저축의 일부로 자기의 보유통화를 증가(통화수요의 증가를 의미)시키고 나머지는 신용공급을 한다. 이 날 통화수요 증가가 통화수요 감소보다 커서 한 나라 전체로는 통화수요 증가가 있게 되면 초과신용수요가 발생하여 통화수요 증가만큼 은행대출이 증가되어 통화량이 증가됨이 확인되었다.

여기서 발견된 중요한 사실은 사전적으로 마이너스 저축과 저축이 갖는 관계다. 사전적으로 마이너스 저축>저축이면 실물수요>실물공급이 되고 마이너스 저축<저축이면 실물수요<실물공급이 되며 마이너스저축=저축이면 실물수요=실물공급이 된다.

여기서도 물가와 금리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원리를 알 수 있다. 투자 및 소비수요가 증가하면 사전적으로 마이너스 저축>저축이 되고 실물수요>실물공급이 되어 거래량이 증가하고 통화량이 증가하며 물가와 이자율이 상승하고 사후적으로 마이너스 저축과 저축이 증가된 수준에서 일치됨을 확인하였다.

통화승수 이론은 본원통화(은행의 지급 준비금과 현찰)가 은행에 예치되고 대출되는 과정이 반복되어 일정배수의 통화를 만들어낸다는 이론인데 이는 현실에

서는 일어나지 않는 공상에 불과한 이론이다. 은행은 예금으로 돈(은행의 돈인 지급준비금: 지준)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대출을 통해 예금형태의 돈(은행의 부채)을 창출하여 경제주체에게 공급한다. 여유지준이 없어도 은행들은 대출을 하고 나중에 다른 은행이나 중앙은행에서 지준을 차입하면 된다. 따라서 은행정기예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모순이다. 은행정기예금의 증가는 통화수요 증가로서 은행대출과 통화량을 증가시키기만 할 뿐이다.

3. 화폐수량설은 왜 착각에 의한 오류인가?

화폐수량설은 피셔의 교환방정식 $MV=PT$ 로 나타내진다. 여기서 M은 통화량(현찰과 은행예금), V는 통화유통 속도, P는 재화의 평균가격, T는 한 나라 전체의 재화거래량(실질기준)이며 따라서 PT는 거래에 따른 통화결제액(통화흐름) 또는 명목거래량이다. 피셔나 프리드먼은 이 방정식에 의거하여 일정기간 동안, 예컨대 어느 날 한 나라에서 이날의 통화량에 통화유통속도를 곱한 만큼의 명목거래량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통화유통속도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보고 따라서 통화량 증가를 일정비율 이내로 억제해야 하며 이것을 초과하면 이는 명목거래량 PT만 증가시키게 되고 이 때 T가 증가되지 못하면 P가 상승하여 인플레이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착각에 의한 오류다. 먼저 인플레이는 실물수요가 증가하여 거래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재화의 재고가 부족하게 될 때 나타난다. 영업사전에 의하면 V는 통화의 소유자가 바뀔 비율이다. 즉 사람들이 보유하는 통화를 모두 합한 통화량 중에서 통화의 소유자가 바뀔 비율이다. 이는 사람들이 보유하는 돈 중에서 거래에 사용된 돈의 비율 즉 돈사용률이라고 할 수도 있다. PT만큼 통화의 소유자가 바뀌는 것이므로 V는 PT를 M으로 나누어 구해진다. 따라서 거꾸로 M에다 V를 곱하면 거래액 PT가 되는 것($MV=PT$)은 산술적으로 너무나 당연하다.

문제는 피셔나 프리드먼이 M과 V가 PT를 결정한다고 본 것이다. 즉 이들은 사후적으로 당연히 성립되는 식을 인과관계식으로 둔갑시키면서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오류를 범했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은 학자들도 이 식이 사후적으로 당연히 성립되는 항등식에 불과하다고 인정한다는 것이다. 사후적 변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모든 돈에는 돈의 주인 즉 소유자가 있다. 그리고 돈의 주인이 재화나 서비스 구입을 위해 돈을 얼마나 사용하기로 하느냐에 따라 즉 수요에 따라 돈사용액(PT)이 결정되는 것이고 이것을 전체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돈 통화량(M: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의 한도)으로 나누면 돈사용률이 얼마였는지 참고로 알아볼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돈의 주인이 돈을 얼마나 사용하기로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돈사용률이 돈사용액을 결정한다는



동문 시 감상

빈 손

이영식(언어 51)
목포대 전 교수·시인

별을 따라
앞산에 올랐다가
달빛만 한 짐 지고
내려왔지요.

파도를 낚으려
바닷가에 나갔다가
노을만 한 아름 안고
돌아왔지요.

추억을 만나러
고향 찾아 갔다가

눈물만 실컷 흘리고
돌아왔지요.

마음을 구(救)하러
산사(山寺)에 올랐다가
목탁 소리만 듣고
내려왔지요.

영원(永遠)을 찾아서
한평생 해마다가
미련 없이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유를 들면 어느 호텔의 객실 수는 고객들의 사용도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날 사용된 객실 수를 전체 객실 수로 나누면 객실사용률이 나온다. 산술적으로는 전체 객실수에 이 날의 객실사용률을 곱하면 사용된 객실 수가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객실 수와 이 날의 객실사용률이 이 날 사용된 객실 수를 결정한 것은 결코 아니고 고객들의 수요가 사용된 객실 수와 객실사용률을 결정한 것이다. 만약 호텔 층축이 완공되어 객실 수가 늘어나면 수요는 변동이 없어도 객실사용률은 떨어질 것이다.

피셔나 프리드먼의 이론은 통화량이 주어지면 일정비율(V)의 통화흐름(PT)을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이는 돈이 일정비율에 따라 그 주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인의 주머니나 은행계좌에서 나와서 스스로 거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가?

이와 같이 아무 의미도 없는 통화유통속도를 가지고 그것이 안정적이나 불규칙한 것이냐에 관해 케인즈학과와 통화주의자들 사이에 오래 동안 논쟁이 있었던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08 금융위기 이후 미 연준이 양적완화로 4조달러 이상의 국채를 매입하여 통화량이 크게 늘어났지만 수요부진으로 통화유통속도가 크게 떨어졌는데 이는 당연한 것이다. 통화유통속도가 떨어져서 즉 돈이 잘 안 돌아서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어서 통화유통속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국채 매각으로 보유통화가 증가된 사람들은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고 주식매입으로 주식을 가격을 높일 뿐이다.

2008 금융위기처럼 부동산거품 붕괴로 인한 부채상환부담 증가로 가계소비가 위축되어 발생하는 공황에서는 저금리에도 수요는 증가되지 않는다. 즉 케인즈가 말하는 유동성합정은 존재하

지 않으며 단지 공상일 뿐이다. 현재 미국 경제가 다소 회복된 것은 주식거품으로 자산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의 소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4. 1997 한국의환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화폐수량설에 의한 통화정책이다.

1997년 한국의환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한국은행이 화폐수량설에 근거한 통화량중심 통화정책을 시행하면서 1985-88년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통화량 증가분(당시 총통화의 45%인 약 25조원)을 거액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여 환수함으로써 20%의 초고금리를 초래한 데 있다.

당시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무리하게 환수하지 않았다면 통화유통속도만 크게 떨어졌을 뿐일 것이다. 한 마디로 거시경제학 주류경제학자들은 허황된 거짓이론을 무비판으로 받아들여 인류를 오도하고 인류사회에 엄청난 폐해를 끼친 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5. 금리중심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은 매우 다행한 일

늦게나마 중앙은행들이 금리중심 통화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은 아주 다행한 일이다. 이는 중앙은행들이 통화가 경제주체의 통화수요에 따라 내생적으로 공급됨을 인정한 때문이다. 통화가 내생적으로 공급된다는 것은 통화승수이론이 맞지 않음을 의미하며 통화가 내생성을 갖는 것(실물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그 결과 통화량이 증가되는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은행들은 화폐수량설의 뒷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Shattering Cherished Macroeconomic Myths: Solutions to the Current Global Economic Crisis’ (신현명 지음, 영문판, 도서출판 향지, 2012년, 46배판 PP 486)***

동문 및 동문단체 동정(일부 중앙·한국일보 인용)

송상현(법대 59) 국제 형사재판소장

뉴욕 프랜시스 루이스 고교서 특강

유엔 연설차 뉴욕 방문 길에 학생들 만나 “가난했던 한국, 이젠 세계 변화 위해 노력 상임이사국 거부 않으면 김정은 기소 가능” “국제 이슈 외면하면 리더 될 수 없다” 고 말해

지난 10월 29일 오후 3시 쿤즈 프레시메도의 프랜시스루이스고교 오디토리엄. 땀뿜땀한 한글로 ‘웰컴, 송 판사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등의 글씨와 함께 태극기를 그려 넣은 그림들이 붙여진 연단으로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법대 59)이 들어서자 좌석을 빼곡히 채운 200여 명의 학생들이 환호했다. 인자한 웃음으로 학생들을 맞이한 송 소장은 “유엔 연설차 뉴욕을 방문했는데 여러 분을 만나게 돼 반갑다”며 “오늘 강연을 통해 여러 분들이 국제적 정의에 대해 인식하고 더 나은 세계가

되기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영감을 받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6.25 전쟁 당시 힘들었던 유년 시절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한 송 소장은 “9살의 나이로 하루에 10마일씩 시진들을 보며 걸어서 음식을 구하려 다녔고 독립운동가였던 할아버지가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는 것을 보며 자랐다”며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에서 법조인이 돼 이제는 법과 정의를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때 뉴욕의 로펌에서도 일한 적이 있는데 당시 극도로 긴 시간 일에 파묻혀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힘들고 괴로운 시간까지 모든 경험들이 모여 결과를 만들어내니 자신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 지난 10월 29일 뉴욕에서 처음으로 플러싱의 프랜시스루이스 고교에서 강연한 송상현(법대 59) 국제 형사재판소 소장(뒷줄 가운데)이 학생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조언했다. “50년간의 산고를 거쳐 설립된 ICC는 인류의 염원이 담긴 곳”이라고 표현한 송 소장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냉전 시대가 지나며 국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가 범람하고 있는 현실점에 국제사회 동향을 외면하고서는 결코 리더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소장은 “최근 ICC에서는 현

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케냐 대통령 우후루 케냐타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로 법정에서 선 것이 이슈”라며 “ICC 설립 초기 아무도 이 재판소가 살아남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ICC는 법을 통해 누구에게나 정의를 적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강연 후 한 학생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을 기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송상현 소장은 “북한이 현재 ICC 가입국은 아니지만 유엔이 직접 나서서 ICC에 제소하고 상임이사국들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후 송 소장은 학생들과 같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며 “학창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송상현 소장 = 2003년 2월 초대 ICC 재판관으로 선출된 후 2006년 1월 재선됐다. 2009년 3월 재판관 18명의 비밀투표로 재판소장으로 선출됐고 2012년 3월 연임됐다. 12년째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고 서울대 법대와 뉴욕대 법대에서 교수로 활동했으며 국제거래법학회 회장 한국 법학교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이었던 고하 송진우 선생의 손자다. ▶국제형사재판소(ICC) =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지난 2003년 설립된 세계 최초의 상설 전쟁범죄 재판소로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한다.***

하와이 대 한국학 센터 소장 이상협(경제 82) 교수

한인 경제학자 두번째로 사이언스 게재

하와이 대학 한국학 센터 소장이며 이 대학 동서센터 선임 연구위원인 이상협(경제 82·사진) 교수의 논문이 한국인 경제학자로는 두번째로 과학저널인 ‘사이언스’ 10월호에 공저자로 게재됐다(공저자 중 또 한 명은 안중범 경제수석). ‘사이언스’에 한국인 경제학자의 논문과 이름이 게재된 것은 지난 2007년 경북대학교 최정규 교수가 처음이다. 최정규 교수 역시 지난 1990년 모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동문이다. 이상협 교수는 모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역시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마쳤다. 그 뒤 도미해 미시간 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하와이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및 한국학 센터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하와이 대학 동서센터 선임 연구위원직을 겸하고 있다. 이 교수는 또한 세계 인구분야의 가장 큰 글로벌 연구 프로젝트의 하나인 국민 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의 아시아 지역 본부장도 맡고 있다. 몇년 전까지 서울대 하와이 동



창회 회장 및 총무로 오랫동안 봉사해 미주 동창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은 바 있다.***

이 음악회에서는 리스트의 ‘순례의 해 1년(스위스)’ 6악장(월리엄 텔 성당, 발렌슈타트 호수에서, 전원, 샘 가에서, 폭풍우, 오베르만의 계곡) 전곡을 피아노 건반 위에 올려졌다. 이어 2일(일) 워싱턴지구촌 교회 아침예배에 참석, 연주했다. 11월 5일(수) 오후 7시30분 케네디 센터 데뷔 공연에서는 아반티오케스트라와 함께 베토벤 협주곡 1번(1-3 악장)을 협연했다. 케네디 센터 연주는 프라이데이 모닝 뮤직 클럽(FMMC)이 주최한 ‘워싱턴 인터내셔널 음악대회’에서 우승, 1만 달러의 상금과 특전으로 받아 마련된 것으로 모든 음악회 입장료는 없이 무료로 진행됐다. 제갈 동문은 “지난 2005년 워싱턴 서울대 동창회 초청으로 워싱턴을 찾은 데 이어 9년 만에 두 번째 방문했다”고 말했다.***

참가 명복을 빕니다

▶최애옥(Sonia Aiok Lee, 간호대 47, 모교 간호대 교수 역임) 동문 작고 = 지난 11월 10일 Chicago IL 자택에서.

▶송세엽(의대 51) 동문 상배(喪配) = 지난 9월 11일 NY에서 지병으로. ▶이용환(의대 62) 동문 상배(喪配) = 지난 11월 27일 Houston, TX에서.

‘시카고 타임즈’ 주필 겸 고문 육길원(사대 59)동문

한인문화회관서 창간 1주년 행사



육길원 동문(사대 59·사진)이 주필 겸 고문으로 재직 중인 ‘시카고 타임즈’가 창간 1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15일 오

후 6시부터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시카고 동창회(회장 김호범)는 모교에서 교수로 재직한 바 있는 고은 시인을 초청, 동문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했는데 ‘시카고 타임즈’는 고은 시인과 대담 기사를 11월 14일자 창간 특집에 게재했다. 고은 시인 초청행사에서는 루시 박(의대 69) 교수의 엘러지에 대한 강연도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시카고 동창회 동문들과 골든클럽 회원들이 많이 참가해 육길원 동문과 함께 했다.***

조화유(문리대 61) 동문 차남 케네스 조 교수

서울공대 대학원 초청으로 특강



중국 칭화대와 부산대로부터도 초청돼 특강 실시

조화유(문리대 사회학과 61) 동문의 차남 케네스 조(한국명 조건·35세·사진) 교수(텍사스 A&M 대학)가 서울대 공대 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학장 고승

영 교수) 초청으로 서울대에서 지난 11월 5일 도시계획학의 특강을 실시했다. 조 교수는 도시계획학 중에서도 교통문제 전문가로 11월 7일에는 부산대학교에서도 특강을 했다. 그는 지난 2013년에는 중국 칭화대학에서도 특강을 한 바 있다. 이번 서울공대 대학원 특강을 계기로 서울공대 건설환경공학부와 Texas A&M University 도시계획학부가 연구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조 교수는 “비록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강의하긴 했지만 아버지의 모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어 특히 기뻐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조 교수는 University of California 시스템 안에서 캠퍼스를 옮겨 다니며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전 과정을 마친 후 30세 때 교수로 임명되었다.***



피아니스트 제갈소망(음대 02)

워싱턴 DC에서 무료연주회로 분주

10월 31일 워싱턴 한인장로교회 이어 11월 1일 한국문화원, 5일 케네디 센터 연주회

피아니스트 제갈소망(음대 02·USC 음악대학원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사진 왼쪽) 동문의 피아노 음악회가 지난 10월 31일 워싱턴 DC의 워싱턴 한인장로교회에서 실시됐다. 11월 5일 케네디 센터 공연에 앞서 제갈 동문은 이날 31일 오후

8시 페어팩스 소재 워싱턴 한인장로교회(9524 Braddock Rd., Fairfax, VA), 11월 1일(토)에는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의 연주 등 분주하게 독주회를 가졌다.

현경대(법대 60)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워싱턴 DC에서 한미평화통일 포럼

“북한의 인권 개선과 신뢰 구축이 한국 통일의 초석” . 워싱턴 DC 총영사관 강도호(외교 81) 총영사도 참석

현경대(법대 60)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지난 11월 12일 워싱턴을 찾아 한미 동맹 중요성과 북한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월 13일 열린 한미 평화통일 포럼에 참석차 방문한 현 부의장은 “남북한이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지금의 경제 발전을 이룬 것에는 한미 동맹이 큰 역할을 했다. 양국이 전략적, 안보적 혹은 경제적 이득이 아닌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맺어진 동맹이기에 가능했다.

현 부의장은 또 “대한민국의 건국과 경제발전에서처럼 한국의 통일에서도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현 부의장은 통일에 있어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우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



는 게 민주평통의 여러 목표 중 하나” 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 통일은 동독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의지와 서독 주민들이 동독 인권 문제를 감시하고 여러 지원을 했기에 가능했다” 고 말했다.

또한 “한국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을 언급하는 등 대북 정책을 주요과제로 삼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1972년부터 2002년까지 40년간 총 226건의 남북한 합의가 있었지만 북한이 각종 제재에 대한 반발로 무효화를 선언하는 등 모두 휴짓조각에 불과하게 됐다” 고 지적했다.

“남북한이 서로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쌓아가는 게 모든 문제 해결의 초석” 이라고 박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11월 13일 워싱턴 DC 하얏트 리

←12일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를 찾은 현경대 수석부의장이 인사 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이 강도호 워싱턴 DC 총영사관 총영사.

젠시 호텔에서 열린 포럼에는 한미 양국의 주요 인사와 전문가 등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도전’ 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모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를 지냈다.

그 뒤 정계로 진출해 제11대부터 12·14·15·16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지난 2013년 5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이순신 미주 교육본부 이사장 이내원(사대 58) 동문

VA에서 ‘다큐멘터리 이순신’ 해설

“이순신 장군 재발견했죠” “일본인도 존경한다니 뿌듯”

“그분에 대해 그동안 껌테기만 알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인들조차 그 분을 존경한다는 사실에 새삼 가슴 뿌듯합니다.”

지난 10월 25일 버지니아의 한미과학협력센터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이순신’ 상영회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재발견의 장이나 다름없었다.

이날 상영회에서는 KBS가 ‘역사스페셜’을 통해 방영한 ‘불패의 장군, 신화가 되다’와 ‘영웅의 선택, 급류 앞에 서다’ 등 2편이 대형 화면으로 소개됐다. ‘불패의~’는 각종 사료와 한일 역사학자들의 증언, 임진왜란 당시 일본 장수들의 후손 인터뷰 등을 통해 이순신의 진면목을 알렸다. 임란 당시 일본 해군을 이끈 와

키자카 야스하루를 등장시킨 이다큐는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 근대 일본 해군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 해군 장병들이 매년 통영의 이순신 장군 사당을 찾아 진혼제를 올린다는 내용도 소개됐다.

특히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격파하며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의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이 이순신 장군을 자신의 스승으로 여겼다는 기록도 전해주었다.

‘영웅의 선택~’은 한산대첩에서부터 명량, 노량해전 등을 소개하며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전쟁에 미친 영향 등을 현지답사를 통해 입체 조명했다.

이날 3시간 동안 진행된 상영회에는 130여 명이 참석해 이순신 바로 알기에 나섰다. 다큐 방영 후 이내원(사대 58) 이순신 미주 교육본부 이사장은 해설과 함께



↑이순신 다큐멘터리 상영회가 열린 10월 25일 한미과학협력센터에서 이내원 동문이 해설과 질의 응답을 받고 있다. 이날 사진전도 함께 마련돼 참석자들의 눈길을 모았다. 30여점의 사진들에는 임란 당시 전투의 현장과 장군의 다양한 영정, 함선의 구조 등이 담겨 있어 이순신 장군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줬다.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의에 답하며 잘못 알려진 충무공에 대한 사실을 알렸다.

행사장에는 임진왜란 당시의 무기와 함선, 전적지 등 희귀한 사진 30여점도 전시돼 참석자들의 발걸음을 붙들었다. 또 2세들을 위해 해군사관학교 제작 영어판과 만화 동영상, 전적지 순례, 조선무기 해설이 포함된 교육용 DVD도 실비에 제공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일보 주최, 이순신 미주교육본부가 주관했으며 재미한국학교워싱턴협의회와 미주한인노인봉사회가 특별 후원했다. ***



르그 소재 모자르티움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미국과 한국, 유럽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

비즈니스 컨설팅 명강사 홍병식(물리 53) 박사

터보 자선재단 ‘개척자상’ 수상



비즈니스 컨설팅 명강사로 칼럼니스트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홍병식(물리 53·사진)박사가 터보 자선재단으로부터 ‘개척자상’을 수상했다.

지난 10월 4일 터보 자선재단(TurboCharitable Foundation)이 수여하는 개척자상을 받은 홍 박사는 “공적도 쌓지 못한 제가 수상을 해서 몹시 쑥스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제 전도사’라는 닉네임이 늘 따라다니는 홍병식 박사는 라디오 서울의 칼럼니스트로 인기를 누렸다.

공학도의 눈으로 경영의 현장을 단순명쾌하게 분석하는 칼럼, 또

40여 년간 미국 경영의 현장을 관찰하여 얻은 성공의 료런 비결을 들려주는 명강의는 미국 대학 강단에서 한국과 미국 기업체 간 부들이 다시 듣고 싶은 강연으로 손꼽힌다.

지난 2006년 ‘예지’가 출간한 홍 박사의 ‘사람을 움직이는 행복경영’에서 밝혔듯 “아무리 자동화 시대라 해도 성공의 열쇠는 사람이 쥐고 있다. 사업은 사람으로 시작해 사람으로 끝나는 데, 사람들은 서로에게 신뢰를 느낄 때만 의사소통하고, 그 때만 서로의 말에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움직이는 게 바로 경영”임을 늘 강조한다.

홍 박사는 모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와 휴즈 항공사에서 통신위성 사업매니저로 일했다. 그후 US 인터내셔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고 경영 컨설턴트와 강사로 활동했으며 70대에도 그의 강의 스케줄은 언제나 1년치가 꽉 차 있었을 정도였다.

저서로 ‘사람을 움직이는 행복경영’ 외에 ‘홍박사의 5분 경영 1, 2’ ‘이 아침에 삶의 지혜를’ 등이 있다.

터보 자선재단은 미 시장점유율 2위 규모의 상업용 냉장고 제조 회사인 터보 에어그룹(회장 브라이언 김) 산하 자선단체다.***

피아니스트 고경림(음대 01) 교수

피바디 음대 동문 트리오 연주회



피아니스트 고경님(음대) 몽고메리 대 음대 교수가 소프라노 권기선, 플루티스트 오현아 오현

아씨와 함께 지난 11월 15일 락빌 소재 몽고메리 칼리지 뮤직리사이틀 홀에서 트리오 무료 콘서트를 가졌다.

바하의 마태수난곡 중 아리아, 생상의 ‘보이지 않는 폴룩’, 헨리 비숍의 ‘보라, 저 다정한 종달새를’이 듀오로 무대에 올려지며 메릴랜드대학 음대 박사인 황신애 작곡가의 ‘시편 73편’도 연주된다.

이들 3인은 피바디 음대 동문으로 피아니스트 고경님 동문은 서울대, 피바디 음대 졸업 후 메릴랜드대 음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워싱턴 어드밴티스트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피아니스트 황지인(음대 01) 동문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독주회

볼티모어에 거주 중인 피아니스트 황지인() 동문이 피아노 독주회를 통해 깊어가는 가을저녁을 아름답게 더치했다.

지난 10월 18일 버지니아의 애난데일 소재 코리아 모니터에서 열린 독주회에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고별’ 3개 악장(아다지오, 안단테, 비바시시마멘토)으로 음악회 막을 올린 황 동문은 5분 분량의 라벨 피아노 소품 ‘물의 회룡’에 이어 라흐마니

노프의 ‘코렐리 변주곡’, 현대 미국작곡가인 주디스 랑 자이몬트의 ‘위저즈’를 피아노 건반에 올렸다.

리스트의 ‘베네치아와 나폴리’ 3악장 연주로 피날레를 마무리한 황 동문은 특히 1악장 ‘쿤돌라를 짓는 여인’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수채화 같은 톤으로 더치하며 깊은 서정을 표현했다.

모교 음대와 피바디 음대 출신인 황 동문은 오스트리아 쾰스부

김익창(의대 51) 그레이스 김(사대) 부부

6.25 참전용사 부부 초청 오찬

지난 11월 11일,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킨 군인들의 희생을 기리는 ‘베테런스 데이’를 맞아 캘리포니아 실비치에 거주하는 김익창(의대 48·UC데이비스 의대 임상정신과 전 교수)박사와 그레이스 김(전상옥·사대 52) 부부가 캘리포니아 옐리카카운티의 한인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김익창·그레이스 김 부부는 5일 가든그로브 북경식당에서 재향군인회 미남서부 지회 관계자들과 실비치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6.25 참전용사 부부 2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위로했다. 참석한 6.25 참전용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전쟁에 대한 경험담을 나누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의 참전으로 지금의 한국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승해 회장은 “이같은 자리를 마련해 준 두 분께 감사하다”며 “이제는 점차 수가 줄어가는 6.25 참전용사들이 서로 마음을 합해 친교하면서 지역 한인 후손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김익창 박사는 이날 참석한 참전용사들에게 자신이 쓴 자서전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을 선물하면서 6.25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기도 했다. 현재 파킨스 병을 앓고 있는 김익창 박사는 모교 의대에 재학하던 중 6.25를 맞아 첩보활동과 통역관 활동 등을 하면 경험한 전쟁의 참상을 책으로 펴내기도 했다.

실비치에 거주하는 채락순씨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함께 경험한 참전용사들이 모여 당시의 상황을 되새기고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한다”며 “한국군을 비롯



한 미군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지금의 한국이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미노인회 지사용 이사장은 “한국전쟁 당시 후방 지원을 담당해 전투에 참여하지는 못했었다”며 “책을 통해 한국 전쟁의 모습을 다시 기억하고 참전용사들이 모여 대화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살자는 의지를 다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은 김익창·그레이스 김 부부가 실비치 레저월드에 한인 6.25 참전용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해마다 개최해 온 바비큐 파티를 대신해 마련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8년 동안 실비치 라구나우즈에 거주하는 미군 참전용사들을 대상으로 바비큐 파티를 개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다.

그레이스 김(전 레저월드 한인

←김익창·그레이스 김 동문 부부(앞줄 오른쪽에서 3, 4번째)가 00한인 6.25 참전용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회 회장) 동문은 “이사 온 후 얼마 안 돼 백인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며 “한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오해를 풀어야겠다는 마음에서 바비큐 파티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동문은 “일부 미군 참전용사들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희생을 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상 그 고마움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마음을 먼저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애나하임에 거주하는 김익창 동문의 조카 김진선씨는 “교수로 재직할 때부터 나눔의 삶을 살아온 두 분의 모습을 보면 항상 숙연해진다”며 “자신들이 참전용사이면서 다른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신 두 분들의 뜻이 잘 전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병연(공대 68) 동문 부인 김문희 시인
‘특별한’ 시집 ‘당신에게 가는길’ 출간

중견 시인으로 김병연(공대 68) 동문의 부인인 김문희 시인이 최근 특별한 시집을 출간해 LA ‘작가의 집’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는 한국 경기도 파주의 출판단지 의 수제 전문출판사 ‘시월’에서 특수양장본으로 제작된 시선집 ‘당신에게 가는길’이다. 1,000권 한정판으로 펴낸 이 시선집은 한지에 활판 인쇄로 사람이 직접 한 자 한 자 찍어서 제작, 영구 보존이 가능한 책으로 저자가 그동안 펴낸 시집에서 고른 시 100편이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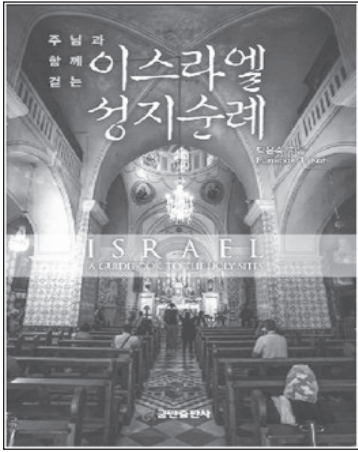
김 시인은 “2011년 LA 해변문화제에 초청 강사로 왔던 문정희 시인이 선물로 준 시집을 보고 한 눈에 반해, 지난 해 경주에서 열린 국제 PEN대회를 마치고 직접 파주에 있는 출판사를 방문, 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 시인의 이 시선집은 ‘시월’에서 특별 제작하는 100권의 책 중 30권째 시집인데 편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저자가 원한다고 해서 출간할 수



있는 책자가 아니다. 김 시인은 출판기념회를 서울 ‘문학의 집’에서 한국문단 원로들 축하 속에 연 뒤 LA에서도 가졌다.

국제 PEN 한국본부 미주연합회 회장을 지낸 김 시인은 한국문학상, 영랑문학상, 미주펜문학상, 해외소월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 시집 ‘눈뜨는 풀잎’, ‘가을강’, ‘당신의 쫓불켜기’와 수필집 ‘가난한 영혼들이 우수의 강을 건널 때’, ‘파피꽃 언덕’ 등 10여 권이 있다.***



오클라호마 주립대 전 교수 탁은숙(문리대 54) 동문

‘이스라엘 성지순례’ 출간

11월 9일 샌프란시스코 팔로알토 아이 교회서 출판기념회

탁은숙(문리대 54 팔로알토 아이교회 장로) 동문이 지난 10월 ‘주님과 함께 걷는 이스라엘 성지순례(사진)’를 펴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의 가이드 북 역할을 할 책은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배경과 나사렛을 시작



으로 에인켈렘·베들레헴·예루살렘 등 성지 기록이 담겨 있다.

게다가 사진 작가인 리사 초르니씨의 233장의 성지 사진이 곁들여져 있어 현장감을 살려냈다.

탁 동문은 “성지순례는 남편인 고 고재곤 장로의 팔순 생일을 기념해 떠나려고 1년간 준비했는데 관련 자료와 말씀을 찾아 읽으며 준비하던 어느 날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 나

라로 가셨다”고 말했다.

2012년 갑자기 맞이한 이별에 얼빠진 사람처럼 살아가던 탁 동문에게 자녀들이 성지순례를 강하게 권했다고 한다.

탁 동문은 “남편의 80세 생일이 아니라 저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2000년 전 예수가 세례 받으셨던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기도했을 때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이 넘쳐흘렀다”고 고백했다.

또 “주님께서 가시관을 머리에 쓴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행하신 길을 따라가며, 주님이 나를 대신해 감당하신 고통도 체험했다”고 말했다.

이런 감사함과 체험을 담은 저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의 출판 기념회가 지난 11월 9일 샌프란시스코의 팔로알토 아이 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회에는 성지 순례 이야기와 찬양, 사진전 등이 함께 개최됐다.

모교 화학과를 졸업한 탁 동문은 메릴랜드대에서 영양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미 농무부 인간 영양연구소 연구원, 오클라호마 주립대 교수를 지냈다. 슬하에 3남매 중 막내 딸이 루시 고 연방 판사다. ***

◀8면에서 계속▶

▶다시 미국 유학 = 플레처 스쿨에서 배우면서 나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균형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서울대에서 국제개발, 국제법, 국제 인권법, 동북아 정치 안보와 경제 현안에 대해 얻은 지식을 심화시킬 수 있었다.

제네바 소재 국제노동기구의 다국적 기업과(Multinational Enterprises-MULTI) 부서에서 몇 달간 일하고 졸업한 뒤 나는 버지니아 알링턴 소재 국제과학기술 연구소(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stitute, ISTI)라는 국제 개발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거의 6년 동안 나는 미국 국제개발처(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세계은행,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의 계약업체들과 일했다.

나는 사업 개발(business development)부터 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 그리고 잠비아·탄자니아·도미니카 공화국·스리랑카·방글라데시와 같은 현장에 기술적 지원을 조달하는 일까지 국제 개발 프로젝트 분야의 업무 전반을 경험해볼 수 있었다.

국제개발 업무는 매우 보람찬 일이었고, 특히나 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나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찾고 있었다. 나는 플레처 스쿨 졸업논문을 북한인권에 대해 썼고, 그 후 수년 동안 북한인권에 대한 감을 잃지 않기 위해 워싱턴 DC 소재 공영 방송국인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에서 매주 라디오 칼럼과 방송을 쓰고 녹음했다.

2008년 7월 드디어 나는 한미경제연구소(Korea Economic Insti-

tute, KEI)의 사업쟁점 대외사업국 국장으로 일하게 되면서 한국 전문가들과 일할 기회를 얻었다. KEI에서 한반도와 한미 관계에 대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연구하고 글을 썼다. 또, 한미 자유무역 협정(KORUS FTA), 한미 동맹, 혹은 국제개발과 국제안보 분야에서 커져 가는 한국의 역할과 같은 중요 현안과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 대중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홍보활동도 진행했다.

내가 담당했던 활동들을 더 자세히 말하자면, 주한 미국 대사와 주미 한국 대사를 기조 연설자로 초청해서 다양한 도시들을 순회한 행사를 기획하고 집행한 적이 있었고, 한반도 현안에 대한 수많은 세미나와 발표회를 기획하고 집행했다.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2011년 7월 나는 워싱턴 DC 소재 북한인권위원회(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RNK) 사무총장이 되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HRNK는 북한인권 연구와 홍보 분야에서 활동하는 가장 중요한 미국 소재 초당파 비정부기구 중 하나다.

HRNK의 목표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 현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

북한 정권은 벌써 3대째 권력을 승계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다. 지금도 무려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

북한 인권 옹호 기관들과 북한인권 전문가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목소리로서 HRNK의 역할은 지금 더 중요해지고 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상은 매우 가치가 있지만 매우 어렵기도 하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야말로 이 이상을 실현시

키기 위해서 내 지식과 경험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에 처음 도착한지 24년이 지났지만 한국에 대한 내 열정과 소명의식은 여전하고 나는 여전히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이제 미국 시민권자인 나는 공산주의 국가 루마니아에서 나고 자라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고, 공부하고, 일해본 사람으로서 독재정권 하에서 시달리는 2천400만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 도착한 첫 날부터 나는 한국에서의 1분 1초를 늘 소중히 여겼다. 아직 한국에서의 내 모험이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서울에 도착했던 첫 날 느꼈던 그 강렬한 호기심으로 한국에서의 모험을 계속하고 있다.***



워싱턴 DC 의대 동창회

우래옥에서 모임, 조직 재결성

신임 회장에 김진수 동문
선출..., 99·88한 세대
들 분위기 일신 바람도

워싱턴 DC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에서 거주 중인 의대 동문들이 동창회를 새롭게 재결성했다.

이 지역 의대 동문들은 지난 11월 13일(목) 오후 버지니아의 한식 레스토랑 우래옥에서 모임을 갖고 신임 동창회장으로 김진수(의대 66졸) 동문을 선출하고 총무에 조병선(의대 71졸) 동문을 선임했다.

이 지역 의대 동창회는 지난 90년대 후반기까지는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해왔으나 그 이후 유명무실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쉬움을 느낀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같이 재결성하게 된 것이다.

이 모임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한 동문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진 김부근(의대 58졸) 전 회장은 “지난 해 박명영(의대 72졸) 동문이 작고한 지 6개월 후에야, 그것도 신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동창회 조직이 없다 보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럴 수는

↓최고 원로 임종식(의대 57졸)박사 부부가 참석했다. 부인은 인사말 중 한국의 어머니상과 미국의 어머니상에 대한 이야기도 곁들였다.*



↑김부근 전 회장이 모임의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서두르게 된 것입니다.”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김진수 회장은 “타주에서 은퇴 후 7년 전 이곳으로 이주해 왔는데 30여명 되던 동문들이 점점 늘어나는데도 동창회가 없었습니다. 이 지역이 은퇴한 후 거주하기 좋은 인기 지역 전국 6위인 곳인 만큼 계속 동문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동창회가 없다는 것이 있을



↑<왼쪽 사진>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김진수 동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총무를 맡게 된 조병선 동문과 부인이 참석 동문들에게 미소를 보내고 있다. 조 동문이 “총무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가 다 한다”고 할만큼 조 동문 부인은 이날도 모임 행사에 아주 적극적인 봉사를 해주었다.***



수 없지요.”

이날 김진수 회장은 서윤석(의대 68졸) 동문을 신임 회장으로 적극 추천했으나 서 동문은 “김 회장께서 먼저 회장직을 맡아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한사코 고사했다.

신임 총무로 선임된 조병선 동문은 “이미 등록된 의대 동문들 수만도 51명이나 됩니다. 아직 젊은 80·90세대들도 1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구요. 의대 출신 동문만으로 올해 골프 모임도 두 차례나 가졌을 만큼 분위기가 다시 무르익었지요. 선배들께서 총무를 맡아달라고 적극 부



↑워싱턴 DC동창회 장경태 회장도 참석해 의대 동창회 재결성을 축하해주었다.

탁을 해와 다시 봉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날 박종철(의대 99졸) 동문과 신원석(의대 88졸) 동문이 가장 젊은 층에 속했는데 공교롭게도 졸업연도 탓에 “99·88한 동문”으로 많은 인기를 한 몸에 받기도 했다. 따라서 앞으로 의대 동창회의 분위기를 일신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중용받았다. 이에 편승해 신원석 동문은 “Green Project를 통해 모교 의대 동문들을 미주 지역으로 적극 유치하는 프로젝트를 실현해 오고 있는데 박종철 동문도 그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

<글·사진 = 편집주간>

↓99·88의 가장 젊은 세대. 워싱턴 DC동창회 총무를 맡고 있는 신원석(의대 88졸)동문이 부인과 함께 참석했다.박종철(의대 99졸) 동문은 빗속에서도 발티모어에서 2시간이나 걸려 참석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뉴욕 동창회 객승용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욕 동창회 + 미주 의대 동창회

Double Tree 호텔에서 합동 송년회

뉴욕 동창회(회장 객승용·의대 65)와 미주 의대 동창회(회장 서인석·의대 67)가 지난 11월 22일 오후 Fort Lee Double Tree 호텔에서 합동 송년회를 개최했다.

모두 270여 명의 많은 동문이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여 선후배간에 풍성한 선물과 즐거운 시간을 나누며 한 해를 마무리 하는 행사를 가졌다.

내빈으로는 이준행(공대 48) 골든 클럽 회장, 오인환(문리대 63) 미주 총동창회 회장, 손재옥(가정대 77) 미주 총동창회 차기 회장, 이만택 미주재단이사장, 뉴잉글랜드 동창회 윤상래(수의대 62) 전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종율(사대 51) 전 장학위원장과 박상원(음대 69) 뉴욕 동창회 전 회장이 동창회에 봉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행사의 '서울대 뉴욕지역 동창회 장학생' 시상식에서는 미 동부에 유학하고 있는 정한별(CUNY)·김희주(Columbia)·류태호(Stony Brook)·윤수연(MIT) 동문 등 4명이 2014년 장학생으로 선발돼 동창회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았다.

모국 총동창회가 수여하는 '이준행 특지 장학금' 시상식도 함께 열려 동포사회에서 선발된 박상현, 트리사 머스키 학생에게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

→<오른쪽 윗 사진>2014년 장학생으로 선정된 동문들이 관계인사들과 기념촬영했다.아랫 사진은 미주 의대 동창회 서인석 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한 임원진이 함께 한 모습이다.오른쪽에서 세번째는 뉴욕 동창회 객승용 회장 ***



뉴욕 골든클럽

2014년 한 해를 보내는 하이킹

오늘이 2014년 11월 12일 Har-riman State Park 지역에서 한 해를 보내는 하이킹을 실시했다.

화씨 60도를 넘는 푸근한 날씨였지만, 하늘은 잔뜩 찌프리고, 빗방울이 살짝 스치며 바람도 불었

↑ 뉴욕 동창회 골든클럽(회장 이준행·공대 48·오른쪽에서 세번째) 회원들이 11월 12일 올해의 마지막 하이킹에서 한 자리에 모였다.***

다가 햇살도 보일 듯 말 듯, 매우 복잡한 날씨였다. 그럼에도 다소 거동이 불편한 노용면(의대 49)·김종율(사대 51)·최수용(상대 55) 회원 내외분이 참석해

덕담을 나누며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불고기 바비큐를 준비하는 동안 이경태(공대 63) 회원이 가져온 튜나 회와 물오징어를 안주로 삼

아 맥주와 와인을 곁들였다.

이어 송성문 원장 주관으로 회원들은 스트레칭, 근육이완 운동 등 간단한 신체운동으로 건강관리법도 배우고 나서 차콜에 구운 군고구마도 함께 맛있게 나누어 먹었다.

항상 동창회 장학기금 마련 때문에 애쓰시는 김종율 위원장을 위하여 우리 골든클럽 이준행(공대 48) 회장 제안으로 장학기금 찬조금도 즉석으로 거두어 전달했다.

이번 피크닉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 낙엽을 밟으며 하루를 보냈지만, 내년에는 5·7·10월 꽃피고, 푸르르며, 단풍이 물드는 계절로 일정을 잡아 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피크닉 행사를 준비할 생각이다.

이날 참석회원(25명)은 김재경(주운정)·김종율(김옥수)·노용면(장신순)·손경택(손정희)·손영철(손정자)·송학린·이경태(2)·이준행(이세영)·장동만(고애자)·정인식·조달훈(조승자)·최수용(최상림)·홍종만(홍예경) 회원 등이다.***



남가주 동창회



Westridge G.C.에서 골프대회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이서희 법대 70)의 주계 골프대회가 지난 10월 25일(토) La Habra에 있는 Westridge Golf Club에서 100여 명의 동문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각 단과대 동창회 차원의 다른 여러 행사가 겹쳤음에도 예상보다 많은 동문들이 참가하여 동문들간 우애를 한 층 돈독히 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서희 동창회장은 “많은 선배 동문들이 사업으로 분주한 가운데서도 다른 행사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주어 더욱 뜻깊은 하루를 보내게 됐다”고 감사해하고 “참가 동문들 뿐 아니라 따로 sponsor를 해준 동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동창회 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 성공적인 골프대회로 마무리하게 되어 동문들 모두 뿌듯한 마음으로 대회를 마쳤다.

이날 김창신(사회과학대 75) 총무국장의 탁월한 진행 솜씨로 행사가 진행됐고, 박제환(인문대) 재무국장은 필요한 부분 부분 세심하게 챙기어 행사가 아주 부드럽게 이루어지도록 일조했다.

필자(홍선례 Club 협력위원장)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멋진 brochure를 제작해서 더욱 흥을 돋구어 주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각 hole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 주었다. 또한 그간의 동창회 CD를 만들어 보여주기도 했다.

고정범(법대 79 관악연대장 동

문은 professional한 솜씨로 행사 사진을 담당해주었고 박혜옥(음대 69) 수석 부회장을 비롯한 김양희(음대 77)사업국장, 김한신 동문은 안내와 접수, 유성중 동문은 event hole에서 수고해주었다. 특히 박혜옥 수석 부회장은 따끈한 커피를 가져오셔서 분위기를 더욱 포근하게 만든 바 있다.

김인중(농대 74) 대외협력위원장은 신문광고, Tee Sign제작을 전담하는 수고를 해주었다. 그 외에도 행사 때마다 많은 동문들이 각자 자신의 일처럼 봉사해주어 타 단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날 수상 영광을 차지한 각 부문별 동문은 다음과 같다.

▶Champion = 남자 : 오흥조(치대 56), 여자 : 백옥자(음대 71)

▶Medalist = 남자 : 김면집(공대 86), 여자 : 제영혜(가정대 71)

▶Longest = #9 hole 남자 : 윤은석(사대), 여자 : 장미애(자연대 84)

▶Closest = #6 hole 서치원(공대 69)

▶Straightest = #17 hole 이서희(법대 70)

▶버디상 = 김규정(사대 77)

▶의상상 = 유성숙(사대 80)

▶커플상 = 남중우(공대 62), 이국진(공대 71)

▶최연장자상 = 이기준(법대 54)

▶최연소자상 = 김면집(공대 86)

▶특별상 = 김진형(문리대 55)**

<글 = 홍선례(음대 70)클럽 협력위원장. 사진 = 고정범(법대 79) 관악연대장>

↑이서희(법대 70) 남가주 동창회장이 이날의 남가주 동창회 최고 원로들을 모시고 기념촬영했다. 왼쪽부터 강규찬(치대 59) 동문, 방석훈(농대 55) 미주 동창회 전 고문, 최종혁(대) 대학원 동창회 전 회장, 이기준(법대 54) 남가주 동창회 전 회장, 오흥조(치대 56) 미주 동창회 제7대 회장, 김상찬(문리대 66) 남가주 동창회 전 회장, 지인수(상대 59) 미주 동창회 전 편집위원장, 이서희 동창회장.**

↓남가주 동창회 이서희(법대 70) 회장이 이날 골프대회 각 부문에서 입상한 동문들에게 상패를 증정했다. 왼쪽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 champion 오흥조(치대 56) 미주 동창회 제7대 회장, 여성 champion 백옥자(음대 71) 미주 동창회 조직국장, medalist 김면집(공대 86)동문(최연소자상도 수상), birdie상 김규정(사대 77) 동문, closest 서치원(공대 69) 남가주 동창회 전 회장, longest 윤은석(사대) 동문.**





남가주 동창회 '초우회'

↑ 남가주 동창회 초우회 회원들이 부부 동반으로 Monument Valley를 비롯한 가을 여행을 다녀왔다.***

유타·애리조나 주 가을여행

남가주 동창회 '초우회' 회원들이 부부 동반으로 지난 9월 25~28일 3박 4일간 전세 버스로 유타주 남부와 애리조나주 북부에 걸쳐 있는 Monument Valley, Bryce Canyon, Zion Canyon의 아름답고, 신비하고, 경이로운 자연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 이상이 된 것은 장시간 오가는 작은 버스 공간에서 오랫동안 동창회를 위해 헌신하며 다져진 끈끈한 우정과 40~50년간 조강지처들에게 초우회의 대권을 이양한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였다.

이 날 여성 동지들은 따로 뒤에

모여 웃고 떠들며, 요즘 한국에서 대유행하는 드라마 '기분좋은 날'의 주제가인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를 배워 합창했고 남편들도 결국 같이 배워 합창함으로써 마음이 일치해 하나가 되는 삶의 기쁨을 만끽하였다.

버스 안에 비치된 TV 영상과 스피커를 통한 수많은 유모어와 향수를 불러오는 옛 노래, 신나는 현대 음악, 조용한 클래식 감상도 인상적이었다. 그 외 중국관영 매체가 고증을 통해 만든 역사 다큐멘터리 '대국굴기'를 한국 KBS가 방영해 돌풍을 일으킨

작품도 감상했다. 15세기 이후 바다를 정복해 세계 강국이 된 스페인과 포르투갈, 17세기 세계 상권을 반 이상 차지했던 네덜란드,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 탈 아시아를 외치며 일어난 일본, 현재 세계 최강 미국 등 한 편당 50분씩 되는 장편을 모두 감상한 회원들의 식지 않은 지적 탐구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뉴먼트 밸리는 2억 7천만년 전의 지층이 풍화, 침식에 의해 형성됐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 한다. 색이 다갈색인 것은 철분의 산화현상이다. 특히 서부영화 촬영지로 많이 이용돼 말을 타고 달리는 존 웨인과 인디언들을 연상케 하지만 원주민 나바호 족들은 현재 고물 길차로 관광객을 태우고 빨간 먼지를 날리며 운전하는 아이러니한 삶을 살고 있

다. 이곳에서 촬영한 우주시대의 현대 영화도 다수 있다.

'초우회'는 오홍조(치대 56) 미주 동창회 7대 회장이 2003년 회장직을 마치고 제의한 것으로 회원은 당시 같이 수고한 방석훈(농대 55·남가주 전동창회장)과 필자(지종근·농대 56)을 비롯 라철삼(문리대 64) 편집위원장, 이종도(공대 66) 총무국장, 김건진(문리대 62) 전 동창회장, 김영(수의대) 전 동창회장과 노명호(공대 61)전 동창회장 등이 같이 창설했다.

회원은 대부분 노장들이나 사업과 취미생활도 적극적이다. 오전 회장 부부는 사진작가로 촬영을 위해 이곳에 수십 번 왔으며, 부인 오 여사는 1만명이 경쟁한 세계 아마추어 사진전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기도 했다.

오 전 회장은 히말리야 등산도 즐기고 있다. 또한 김영 전 회장 부부는 히말리야 에베레스트 트렉은 물론 4~5일간 바다 낚시로 잡은 생선으로 회원들을 초대해 만찬을 벌이는데 부인은 국제 마라톤대회까지 출전하는 열정을 보이고 있다.

<노년의 찬가> 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은 무엇과 비교도 안 되고, 나무가 타다 남은 숯 덩어리, 석탄이 타다 남은 코크스는 화력이 4배 증가한 섭씨 800도 넘어 철광과 고철을 녹여 철강을 만들어 인류 문명 건설에 공헌하지 않는가! 인생 누구나 지나가는 노년의 열정은 각자 마음에서 오는 것, 신의 의지에 부합하는 것 같다.***

<글 = 지종근(농대 56)>



남가주 동창회 영화 동아리 'CINE Club'

매주 화요일 '작가의 집' 모임

남가주 동창회에는 동아리도 많아 여가를 즐기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반 경 '작가의 집(대표 김병연·공대 68)'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CINE Club'도 그중 하나다. '작가의 집'에는 300여 명이 관람 가능한 메인 아트홀(Banquet은 200명)과 소극장을 겸한

제2 전시실, 세미나실 등이 있다. 특히 전시실은 15feet의 높은 천장과 대형스크린, 최고의 음향 장치를 비롯, 완벽한 Multimedia System을 갖추고 있다.

이날 영화관은 50~60명이 관람할 수 있는 소극장(제2전시관)으로 Speaker가 6대가 설치돼 있어 입체적 음향효과가 좋았다.

홀러간 명작이 너무 오래 돼 기억이 가물거릴 때, 한글 자막이 나오면서 옛 중고교 시절 뿜뿜 모르고 보던 때와 판이하게 달라 '아 그랬구나' 하면서 애매했던 부분을 뒷받침해준다.

그동안에 본 영화가 100여 편에 달하니 동아리 모임이 참 대단하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Sound of Music, 클레오파트라, 벤티, 투로이, Desert Fox, 샹그리라(유토피아 마을), Summer Time, Phantom of Opera, Top Gun, To sir with love, Gravity, Silk Road, Forrest Gump, August Rush, Ray Charles, 초원의 빛, 모정, 연정, Red Violin, 인터넷으로 보는 세계 유명 관광지, 세계 강대국의 흥망성쇠, 설국열차, 루시 등 매 주 1~2편씩 1년이면 80편이 넘는다.

그 뿐이라. 3번째 주 화요일은 외부 극장으로 직행한다. LA downtown의 Regal LA LIVE의 최신 시설로 개관한지 몇년 안된 멋진 게 디자인된 극장이다. 바로 옆은 리치 칼튼 호텔이다.

지난 10월 14일(화) 6시30분 마침 딸 아이가 Universal Pictures

에서 일해 많은 영화 CD를 갖고 오기에 4개를 선택했는데 이 중 'NON-STOP'을 보기로 했다.

구경도 식후경이라 우선 최신통동문이 한턱 쏘는 해장국을 흥선레 총무가 order해 따끈히 먹고, 신정연 동문과 조무상동문께서 사온 다과 후식까지 곁들이니 든든하다.

이혜영(공대 56)동문이 매주 제목 선정과 상영을 해주는대로 최신통(의대 53), 지종근(농대 56 내외), 신정연(미대 61), 조재국(농대 67), 김병연(공대 68), 박혜옥(간호대 69), 조무상(법대 70), 홍선레(음대 70), 김인중(농대 74), 김창신(문리대 75) 등 13분이 여유있게 영화감상에 들어갔다.

'NON-STOP'은 2014년 Mystery-action film으로 Universal Pictures가 제작, 1월 Paris에서 첫선을 보였다. Liam Neeson이 주인공인데 New York에서 London행 Boeing 767 non-stop flight에서 일어나는 일로, 그의 Cell Phone으로 문자 메시지가 온다. '150만불을 Specific Bank Account에 안넣을 경우 20분마다 비행기 안

에서 사람이 죽을것이다'라는 협박에 스틸있는 주인공의 액션과 체치로 범인을 잡고 승객들을 무사히 구출한다는 106분간의 내용이다.

그런데 한참 스틸을 느끼던 중 옛날 우미관처럼 도중 전기가 나갔다. 휘파람 소리와 "Money Back"이란 소리가 들릴 법도 했지만 몇 남성 동문들이 이리저리 움직여 다시 복구시켜준다. 그래서 남성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집에 있는 남편들에게 잘 해야겠다"고 여자 동문들이 속삭인다.

10시 정도 다소 늦은 시간에 끝났지만 Story가 항상 마음에 와닿으니 그 시간이 값지고 많은 지식을 얻어간다. 꼭 참석해야 된다는 강박감이 없어 좋고 매월 생일파티도 함께 나눈다. 본인 생일을 식구들이 모를 때, 섭섭할 때가 있다. 그럴 때 딱 안심맞춤이 아닐까? 여유로운 문화생활도 인생 중 시간을 어디에 얼마나 투자하느냐가 인생의 황혼빛을 발한다.***

<글·사진 = 백옥재(음대 71) 미주 동창회 조직국장>



시카고 동창회

이용훈 동문 초청 음악회 개최

시카고 동창회(회장 김호범·상대 69)가 Judson University와 공동으로 지난 11월 25일 화요일 오후 Harper College Performing Arts Center(1200 W. Algonquin Rd. Palatine, IL 60067)에서 세계 정상급 테너로 최근 모교 음악대학 신임 교수로 부임한 이용훈(음대 94) 동문의 음악회를 가졌다.

이 음악회는 모교 서울대에서 신임 교수 연구 정착금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용훈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인 ‘Opera Star Korean Art Song 프로젝트’의 첫 시작이기에 뜻이 깊은 연주회였다. 450석의 연주홀을 꽉 메운 이번

↑<윗 사진>이날 음악회에서 피아노 홍소정(왼쪽) 동문과 첼로 장성찬 동문의 반주로 이용훈 테너(왼쪽에서 세번째), Victoria Holland 소프라노, 김기봉 바리톤(오른쪽) 동문이 피날레 곡으로 ‘그리운 금강산’을 함께 불러주었다.<오른쪽 사진> 이용훈 동문이 시카고 동창회 동문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연주회에서는 핀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모든 청중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여 아름다운 한국의 가곡들을 들으며, 그 소리에 매료되었다.

‘한오백년’을 우렁차게 부르는 이용훈 테너의 목소리는 과연 세



계 정상의 오페라 가수의 소리였으며, 모든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김기봉 바리톤과 듀엣으로 부른

향수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주었으며, 한국계가 아닌 Victoria Holland, 소프라노가 ‘동심초’를 부르고, 또 이용훈 테너,

김기봉 바리톤과 함께 셋이서 ‘그리운 금강산’을 정확한 한국어 발음으로 부를 때, OSKA (Opera Star Korean Art Song) 프로젝트의 열매를 미리 맛볼 수 있었다.

이용훈 교수가 시작한 이 ‘OSKA 프로젝트’는 우리의 한국 가곡이 세계 곳곳에서 외국인 성악가들에 의해 더욱 많이 불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뜻을 같이 하는 동포 음악인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세계적인 프로젝트이며 이번 음악회가 그 첫 스타트 무대였다.

앞으로 이용훈 교수는 세계 각국의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에서 연주를 할 때 마다 시간을 내어 그 도시에서 이번 시카고에서와 같은 한국의 가곡과 민요를 소개하는 연주회를 가져 외국인 가수들이 한국 가곡을 부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번 음악회는 한국 가곡의 세계화를 위한 Opera Star Korean Art Song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뜻도 있었다. 따라서 이 음악회를 통하여 후원금을 모으고 있으며 이후원금은 Opera Star Korean Art Song 프로젝트의 일환인 한국 성악 디션 연구와 한국 가곡을 부르는 외국인 성악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Drury Lane에서 제2차 이사회

시카고 동창회가 2014년도 제2차 이사회를 지난 9월 27일 토요일 오후 6시 Oakbrook Terrace Drury Lane 에서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금년도 행사 및 사업보고, 재무 및 장학기금 관리보고, 장학생 선발 경과보고, 차차기 회장 선발전 인준,

차기 회장단 인준, Golden Club 행사 및 사업 보고, 장학기금 모금 음대동문 음악회, 세종문화회의 고은 시인 초청 강의 및 시 낭송회 행사, 기타 사업 및 활동 보고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최고 원로인 문병훈(사대 47) 동문이 인사말을 통해

“California Winter Home에서 2천500 Mile을 운전, 춘계 골프대회에 참석해 Longest Drive상을 받았다”고 밝혀 동문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사진 = 임현재(의대 59)·노영일(의대 62) · 글 = 노영일>

<글·사진 = 김호범(상대 69) 시카고 동창회장>



샌디에고 동창회

한인노인회에서 건강교실 개최

샌디에고 동창회(회장 최홍수·자연대 87) 지역봉사 추진위원회(위원장 이문상·공대 62)가 지난 11월 21일(금) 샌디에고 한인 노인회(회장 유석희)에서 2014년 봉사활동으로 노인 건강교실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건강교실은 동창회 내 지역봉사 추진위원회가 실시하는 두번째 행사로 샌디에고 한인노인회 소속 100여 명의 동포 노인들이 참석하였다.

샌디에고 동창회에서는 57학번 의대 출신으로 3명의 전문의사 동문들이 나와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의를 해주어 우리 동포 노인들의 건강생활을 위해 크게

↑샌디에고 동창회가 지역 동포 노인들의 건강 생활을 위해 마련한 건강교실 행사 후 의대 동문 강연진과 관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앞줄 왼쪽부터 임춘수(의대 57) 동문, 신영규(의대 57) 동문, 윤진수(의대 57)동문. 뒷줄 왼쪽부터, 유석희 한인노인회 회장, 김경자 (음대 62)동문, 임용갑(공대 84)동문, 김향자(약대 61) 여성동문위원회 위원장, 최홍수(자연대 87) 동창회장, 이문상(공대 62) 지역봉사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인근(공대 59)동문, 김주성(농대 83) 부회장.***

기여해주었다.
먼저 신영규(비뇨기과) 전문의



↑샌디에고 동창회가 지역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교실에서 노인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는 ‘전립선 비대증과 암의 증상,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실제적인 예를 들어가며 자세하게 강연

을 해주었다.
이어 윤진수(산부인과) 전문의는 ‘노년기에 오는 호르몬 결핍

증, 골다공증,유방암에 관하여’를 주제로 특히 여성 노인들의 건강생활에 대한 강연을 자세하게 해주었다.

또한 임춘수(신경내과) 전문의는 ‘중풍과 치매의 예방과 치료’를 주제로 각각 노년기 건강생활에 아주 유익한 강의를 해준 것이다.

특히 이날 동문 의료진들이 해준 건강 의학 강의는 연로한 우리 동포 노인들에게서 많이 생길 수 있는 질환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서 그런지, 참석한 노인들이 건강 세미나에 대해 아주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경청을 해주었다.

한편 샌디에고 동창회 전문의 동문들은 제한된 시간 내에 좀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주었다.

1시간 남짓의 강의를 끝난 후에는 샌디에고 동창회 최홍수 회장(자연대 87)이 동창회 내 지역봉사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기회가 된다면 한인회 노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건강교실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샌디에고 동창회에서는 이날 참석한 노인들 모두가 드실 수 있도록 떡을 준비하였다.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한인노인회에서 점심 식사를 실비로 제공해주었다.***

<글·사진 = 최홍수(자연대 87) 샌디에고 동창회장>



필라델피아 동창회

한인음악인협 30주년 콘서트 후원

필라델피아 동창회(회장 전방남·상대 73)가 필라델피아 한인음악인 협회 3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후원했다. 이 음악회는 지난 10월 18일 토요일 엘킨스 파크에 위치한 Keneseth Is-

rael 회당에서 200명의 한인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기념음악회에서 관객들의 이해를 위해 해설과 자막을 지원해 관객들의 이해와 감상에 큰 도움을 줬다는 평이다.

필라 음악인 협회 관계자는 “이번 음악회는 한인 음악인협회 30주년 기념인 만큼 관객들에게 좋은 연주와 감상을 위해 연주 전 해설을 했다”며 “그 곡을 알고 듣는 것이 감상에 중요하기 때문에 해설에 대한 반응은 좋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연주회에서는 한글과 영어 자막을 지원했다. 그 곡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연주자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

는 지를 알기 위해 한글과 영어 자막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됐다. 음악회 후 리셉션 자리에서도 많은 동포들이 자막에 대한 칭찬이 많았다.

음악회는 바이올린 송규호, 첼로 현지연, 피아노 홍지나의 Brahms Piano Trio No. 1 in B major, 1st mov(Crea Ensemble)로 시작해 심희진·이규원·오에스터·채주원씨 등의 연주로 이어졌다.***



관악세대/Acro광장

‘거꾸로 식사법’의 힘

이원영(인문대 81) CA
미주 중앙일보 논설위원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한의학 박사

얼마 전 ‘거꾸로 식사법’이란 책을 낸 박민수 교수(고려대 보건대학원)는 만신창이가 됐던 자신의 몸을 획기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게 된 계기를 책에서 설명한다.

그는 의사로서 한창 활동하던 40세 전후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허리 둘레는 36인치로 늘어나 배불뚝이 아저씨의 모습을 갖게 됐다. 몸무게가 늘면서 요통이 찾아왔고 아침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오른쪽 폐 위에 동전만한 음영이 잡혔다고 했다. CT촬영을 했더니 폐암이란 진단이 나왔다. 5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단계였다.

우선 2주간 항생제 치료를 하고 다시 촬영하기로 했다. 박 교수는 최악의 상황을 수백 번씩 생각하며 가족들 옆에서 숨죽여 있어야 했다.

그런데 2주 후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음영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이 떠나가라 환호했다고 한다. 게다가 음영은 폐암이 아니라 폐렴 조직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었다.

건강 문제로 지옥과 천당을 오간 박 교수는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본 뒤 철저한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자신의 식습관이 탄수화물 위주 섬유질 부족, 빠르게 먹기 등임을 자각했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반찬부터 먹기, 비탄수화물과 탄수화물 2:1 비율 섭취, 조금씩 천천히 먹기 등으로 바꿨다. 그 결과 허리가 6인치나 줄어들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

박 교수는 정작 의사이면서도 자신의 잘못된 식생활을 뒤늦게 깨달은 셈이다. 의료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라면 그런 깨달음을 얻기는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애초부터 버리에 입력된 전문가들의 말을 거스를 수 있는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 모임에서 건강에 대해 강연한 적이 있다. 질의응답 시간 때 사람들은 한번 머릿속에 입력된 ‘믿음’에 대해 얼마나 강하게 집착하는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강의의 요점은 ‘약(병원)에 의존하지 말라. 병(증상)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증상을 없애려는 대증치료는 근본치료가 되지 못한다. 과식과 육식은 혈액을 탁하게 만들어 현대병의 원인이 된다’ 등의 이야기였다.

참석자 중 한 명이 “검진을 받아 이상 증세가 나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병원 치료 대신 병을 유발한 생활습관을 반성하고 생활을 개선해 건강을 되찾는 쪽을 택하겠다”고 대답했다.

“잘못된 인풋(input) 때문에 병(증상)이라는 아웃풋(output)이 나타나는 것이니 인풋을 바꿔야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과 의사가 병을 ‘고친다’는 맹목적 믿음에서 벗어나 생활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 중에는 기존의 고정관념이 흔들리는 듯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혹자는 “이제 병(증상)을 무서워하지 않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건강에 대한 지식도 그렇지만 종교든 정치적 신념이든 처음에 입력된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지식의 확장이나 인식의 폭이 넓어지기를 기대하긴 어렵다.

비교종교학자 오강남(문리대 61) 교수는 ‘산에 높이 오를수록 시야가 점차 넓어지는’ 예를 든다. 고정관념에만 집착하면 정신적·신앙적 성장이 멈춰진 ‘원초적(primitive) 신념체계’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다.

산기슭에서 보이는 눈 앞의 풍경을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이고 경직성을 탈피할 수 있다. 거기서 생겨난 지혜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준다.

박 교수가 자신의 신념을 ‘반성’하지 않았다면 오늘 같은 건강을 되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멘토 덕에 자란다”



강신용(사대 73) CA
회계사(CPA) · 수필가

장례식장에 ‘대니 보이’가 울려 퍼진다. 저녁노을에 물든 산골짜 동네가 목동들의 피리소리에 저물어간다.

‘고울립’이라는 중창단의 노래 속에 고인의 거니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민 생활에는 세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고인의 가는 길에 고마운 마음들이 안팎으로 가득하다. 힘들고 어렵던 시절 먹고 살기도 바빴던 시절에 공인회계사였던 업계의 선구자다.

여름 가고 꽃이 떨어지니 목동들의 사색이 깊어진 계절에 먼저 가셨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있다. 업계의 멘토이던 김성철 장로님을 뵈러 다녀왔다. 고갯마루가 사랑 속에 묻혀 있다.

산골생활이 어려워도 대니네 동네 사람들은 행복해보인다.

이민 보파리에 희망을 담았다. 겨우 허리를 펴고 하루를 접는 코메리칸의 모습이 보인다.

한 시간을 일해서 겨우 햄버거 하나를 살 수 있었던 시절. 최소 시급이라도 받는 일터만 있어도 감사하던 시절. 많은 봄·여름을 보내고 오랜 꿈들이 가을에 알아야 영광였다. 반은 햄버거로 받은 사랑으로 무럭무럭 잘도 자랐다.

훌륭한 사람 뒤에는 멘토가 있다고 한다. 그동안 수많은 스승들을 모셨다.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친다고 모두가 평생 멘토일 수는 없다. 촌철살인이라고 말한 마디에 사업에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는 멘토가 있다면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고인도 지혜의 디딤돌을 놓아준 여러 멘토 중의 한 분이였다.

형님은 30년 무사고 운전의 멘토다. 고국에 갈라치면 온갖 일로 두근거린다. 전망좋은 산 속에 오랫동안 외롭게 계시는 조상 묘를 찾는 산행은 언제나 우리를 어린 시절로 데리고 간다. 호랑이 담배 피울 적 이야기부터 동네 방네 소문까지 출발에서 도착까지 몇 시간이고 최신 뉴스처럼 들려준다.

형님은 반듯한 자세로 항상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한다. ‘안전운전이 최고의 운전’이라며 조용히 앞만 보고 달린다.

평생운전하면서 그의 겸손한 운전태도에서 안정감이 느껴진다. 발품을 팔아 건물을 찾아 형제를 만난다. 천성이 근면하면 밥걱정은 없다고 한다.

20년 전부터 하숙집을 운영하는 가까운 장로님은 부동산 멘토다. 진흙에 숨어 있는 보석을 찾는 심정으로 건물을 찾아다닌다. 일단 손 안에 들어오면 기름 치고 광내서 건물이 진주처럼 빛나게 만드는 근면한 재주를 가졌다. 날이면 날마다 쓸고 치우니 뒷골목도 앞길처럼 깨끗해진다.

평정심이 전문인의 마음이라고 배운다. 회계업부는 때때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도 한다. 테니스 시합 뒤에 그와 같은 테이블에 앉으면 참가상을 탄 거나 진배없다.

당대 최고의 전문인의 삶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돈 앞에 약하지 말고 당당하라”고 이야기한다.

10여년 전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나 이번에 갔을 때나 실내에는 행장들과 CEO들의 화환이 환하게 밝히고 맞이하고 있다. 밤하늘의 북극성은 길 찾는 나그네의 나침반이 되듯이 그는 동업자로서 흠모의 대상으로 오래 오래 가슴에 남아 있다.

교회당에 모인 가슴들에 피리소리가 울린다. 깊은 산골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은 흐르고 흘러 어디로 올라가나.

조용한 아우성이 가슴을 두드린다. 고마운 멘토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

누군가 희망을 꿈꿀 수 있다면

한정민(농대 87) VA
워싱턴 가정상담소 상담사
미주 동창회 총무국장

“선생님도 우울하고 사는 게 힘들어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선생님은 상처도 없을 거 같아요.” 상담 중에 내담자들로부터 가끔 듣는 질문 중 하나다. 따뜻한 미소로 내담자의 이야기를 집중하여 들어주고 머리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나의 모습이 상처나 아픔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비춰졌나 보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산다는 건 매일 흔들리다 가끔은 심하게 넘어지는 것이고, 때론 지독한 외로움에 가슴이 찢기는 것이며, 어느 때는 예상치 못한 독화살이 심장을 관통하는 아픔을 겪기도 한다는 걸... 어느 누구도 이 사실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으리라.

그러면 난 “오죽하면 몇년 동안이나 상담 공부를 했어야만 했겠어요?”라고 답한다.

실제로 상담 대학원에서 만난 적지 않은 동료들은 “자신이 가진 상처와 아픔이 상담 공부를 하게 된 동기와 원동력이 됐다”고 고백한다. 알콜 중독자 아버지에게 구타 당하며 자란 백인 친구, 동네 켄디 장수에게 성폭행 당한 흑인 친구, 물몬교인이란 이유로 왕따 당했던 교수님, 부모의 이혼 후 버려져 미국에 입양된 한국계 친구.

심리학자 앨리스 바(Alison

Barr)의 연구에 따르면 ‘74%의 상담사가 자신의 한 가지 이상의 상처가 결국 그들이 상담사의 길을 택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상담수가 소위 ‘상처입은 치유자(Wounded Healer)’로 살고 있는 것이다.

‘상처입은 치유자’란 ‘오직 상처 입은 자만이 치료할 수 있다’는 의미로 심리학자 융(Jung)이 처음 사용했다. 이는 ‘상담치료사 자신이 스스로 겪은 경험의 범위 안에서 내담자를 도울 수 있다’는 뜻으로 그리스 신화 ‘케이론’ 이야기에서 유래된다.

반인반마(半人半馬)였던 케이론은 헤라클레스가 잘못 쏜 독화살에 맞고 상처를 치료하려 약초를 붙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대신 고통스럽고 치료할 수 없는 상처만 남았다. 무리에서 벗어나 동굴에 은거하며 상처 치유를 위해 애썼으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그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차라리 죽기를 원했으나 죽을 수도 없는 존재였다.

케이론은 상처로 인한 고통에 끊임없이 시달려 하루하루 치료법을 찾으며 보냈다. 들판을 헤매고 다니다 그는 약초와 풀의 약효를 잘 알게 되었다. 또한 주위의 피조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데 귀를 기울였다. 고통 속에 사는 삶이 어떤지를 충분히 알게 된 그는 다른 이들에 대한 동정심과 더불어 약초의 효능에 대한 지식도 커졌다. 그래서 그는 다

른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상담 중 상담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하지만, 상담사의 비슷한 경험이 내담자의 치유와 회복에 도움이 될 경우에 한해 ‘자기 표출(self-disclosure)’을 허용한다.

2년을 만나는 내담자의 솔직한 고백이 떠오른다.

“선생님도 옛날에 우울증과 강박증, 불안장애와 분노폭발 등을 겪었다고 말할 때, 죄송하게도 저는 속으로 참 신났었어요.

‘와! 선생님도 나처럼 불안장애가 있었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환해지며 희망이 싹트는 걸 느꼈어요. 나도 언젠가는 선생님처럼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내 상처가 제일 커 보이고 나만 실패하고 좌절한 듯 보이니 실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용어는 ‘상처를 가진 사람’과 혼동될 여지가 있다. 다시 쓰자면 ‘상처를 입고 치유된 사람’이다. 상처를 입고 이를 극복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삶에서 많은 상처를 입으나 그 때마다 그 고통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통찰을 얻고 다른 이의 아픔을 더 공감할 수 있는 ‘치유된 치유자’의 삶을 걸어가는 일. 그 일이 어찌 상담사에게만 국한될 수 있겠는가?

나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꿈꾸게 한다니... 참 감사할 따름이다.***



관악세대/Acro광장

‘심판의 날’

민경훈(법대 78) CA
미주 한국일보 논설위원
미주 동창회 논설위원

지난 11월 4일 열린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는 예상된 일이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승리의 크기다. 공화당은 연방 상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을 뿐 아니라 연방 하원은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의석을 얻었고 주지사 선거에서도 예상을 뒤엎고 주지사 수를 3명 더 늘렸다.

민주당에서는 중간 선거는 원래 늙고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가 많이 참가하고 이번에는 공화당이 우세한 곳에서 선거가 많이 치러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진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선거 결과는 이런 해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선 중간 선거가 공화당에 유리하다는 주장은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6년 선거에서는 아들 부시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들고 일어나 의회를 민주당에 넘겨줬다.

4일 공화당은 연방 상원 선거에서 몬태나, 사우스다코타 등 전통적 강세 지역 뿐 아니라 노스캐롤라이나, 아이오와, 콜로라도 등 스윙 스테이트에서 승리했다. 웨스트버지니아에서는 60년 만에 처음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이자 첫 여성의원원을 탄생시켰고 조지아에서는 과반수를 얻지 못해 결선까지 갈 것이라던 예상을 깨고 공화당 상원의원이 당선됐다.

공화당은 공화당 강세지역과 스윙 스테이트에서 뿐 아니라 푸르디 푸른 민주당의 아성 매사추세츠와 메릴랜드, 그리고 오바마의 정치적 고향인 일리노이 주에서마저 주지사 자리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남북 전쟁 후 첫 흑인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이, 네바다에서는 첫 흑인 여성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값진 것은 스캇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와 샘 브라운백 캔자스 주지사 등 개혁 성향 공화당 주지사의 승리다. 워커 주지사는 공무원 노조의 단체 교섭권을 제한하고 노조 회비를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로 전국 공무원 노조의 원수로 떠올랐다.

워커는 이 때문에 주민 소환 투표에 부쳐져 쫓겨날 뻔 했으나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소환에 실

패한 공무원 노조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워커가 아니라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닌 메리 버크를 경쟁자로 내세워 그의 낙선에 모든 것을 걸었지만 또 다시 실패했다.

워커가 재선에 승리한 이유는 간단하다. 위스콘신 주민 대다수가 그의 개혁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커는 세계 개혁파 친 비즈니스 정책으로 실업률을 2008년 이후 최저로 낮추고 공무원 노조에 대한 혜택 삭감을 통해 재산세를 낮추면서도 교사들의 감원을 막았다. 이번 선거에서 이런 워커의 정책은 시비거리조차 되지 못했다. 그 성과가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이다.

캔자스의 샘 브라운백 주지사도 비슷하다. 그는 나날이 쇠락해가는 캔자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감세를 중심으로 한 개혁 정책을 폈다. ‘캔자스의 레이거노믹스’라 불린 그의 정책은 민주당은 물론 기존 체제에 안주하고 있던 일부 공화당원들의 반발을 샀고 그의 낙선은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막상 선거 날 캔자스 주민들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기대보다는 느리지만 꾸준한 일자리 창출 등 그의 정책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압승은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오바마의 무능과 무기력함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그 원인이다. 접전 지역 민주당 후보들은 오바마가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했지만 공화당은 이들 의원들이 오바마 안에 98%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에 알람으로써 이들의 도망가기 작전을 무력화시켰다.

오바마의 앞으로 남은 2년에 관해서는 두 가지 전망이 나온다. 하나는 클린턴처럼 공화당과 대타협을 이뤄 ‘웰페어 개혁’과 같은 업적을 남길 것이라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와 같이 좌파 성향 정책을 고집하다 허송세월을 하고 말 것이라던 것이다.

오바마는 선거에서 참패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이 좋은 밤을 가졌다”는 말 외에는 어찌해서 자신이 대다수 미국 유권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반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공화당이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가져 오지 않으면 일방적인 행정 명령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선거에서 압승한 공화당이 고분고분 그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다. 앞으로 남은 2년은 지난 6년처럼 호지부지 흘러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건강의학 칼럼

“건강관리를 잘 하면 암에 걸리지 않을까?”

차민영(의대 76)CA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이 제목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강 관리를 잘 하면 암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반면 건강 관리를 잘 해도 암에 걸릴 것이라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정답은 ‘건강 관리를 아무리 잘 해도 암에 걸린다’가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저는 암에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술, 담배 전혀 안하고 하루 1시간 씩 운동도 열심히 하며 몸에 좋다는 음식, 과일, 채소만 먹는대다 건강서적도 읽고 또 가족 중 암 환자도 없기 때문에 절대로 암에 걸릴 수가 없습니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요.

그런데 “10세 이전의 소아들도 암에 많이 걸립니다. 백혈병을 비롯 많은 암들이 소아기 때 많이 걸리는데 이들의 부모, 형제도 건강하고 또 아이들이니 당연히 술, 담배를 한 적도 없고 가족 중 술, 담배를 하지 않는 부모도 상당 수입니다. 심지어 1-2세 영아들이 암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 이 어린이

이들은 왜 암에 걸릴까요?”

우리가 많은 암의 원인을 알고 있고, 또 상식적으로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다. 붉은 고기를 많이 섭취하면 대장암에 걸릴 수 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위 세균이 위암을 일으킬 수 있다’ 등 발암 요인을 아는 것도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암도 많고 아무리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도 잘 해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확률은 줄겠지만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암에 걸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발병한 경우를 많이 봐 왔습니다. 특히 요즘 연예인들도 언론에 암 투병 중이라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미국 배우인 마이클 더글라스도 후두암으로 투병 중이며 ‘더터덴싱’의 주연 패트릭 스웨이지 또한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의 장모 여배우 또한 꽃다운 나이에 위암, 김자옥씨도 암으로 떠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비단 연예인 뿐 아니라 의사, 일반인들도 암으로 고통 받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연, 금주, 소식, 규칙적인 운동, 정상체중 유지, 즐겁게 살기 등 건강 수칙들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암에 걸리므로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을 매년 받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검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암은 말기 전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세가 2-3주 밖에 안됐더라도 3-4기로 판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암, 폐암, 췌장암, 간암, 대장암 등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조기 발견하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증세 없는 때가 살 수 있는 때’ 이므로 혈액검사, 심전도, 소변검사 외에 위 내시경과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합니다. 폐 X-ray는 미국 의학 협회에서 권하지 않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는 경우도 폐 CT를 권하는 의사와 권하지 않는 의사로 나뉩니다. 의학협회에서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관계로 공식적으로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싼 MRI, PET SCAN 등은 의사와 상의 후 하는 검사입니다.

새해를 맞아 정기 건강 검진을 꼭 하고 검사결과 정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컨디션이 안 좋을 경우 반드시 주치의의 찾아야 합니다. 실제로 검사 결과는 이상 없었지만 3-4개월 후 증세가 있어 다시 검사받았는데 암이 발견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때 발견되면 초기이므로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기검진에서 이상이 없다고 안심하고 1-2년 기다렸다 의사를 찾았다면 그때는 아주 커진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기 건강검진은 기본이고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수시로 추가 검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표의 소중함 일깨운 ‘마라톤 투표’

노재원(인문대 82)CH
시카고 중앙일보 편집국장

제목도 줄거리도 잘 기억나지 않지만 문득 문득 떠오르는 영화가 있다. 인적이 끊긴 거리의 희미한 가로등과 이따금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 사이로 한 남자가 달리고 있다.

건다가 뛰다가 때로는 비틀거리는 땀박질이 한동안 반복된다. 이윽고 남자가 도착한 곳은 이미 수 시간 전 대회가 끝난 마라톤 결승점. 아무도 없는 그 곳에서 그가 그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연인을 만났는지, 어떻게 영화가 마무리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달린 그가 마침내 목표 지점에 이르렀을 때, 땀으로 범벅된 만족스러운 표정은 지금도 남아 있다.

지난 11월 4일 중간선거가 끝났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이번 선거는 야당인 공화당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공화당은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다수당이 돼 연방의회를 장악했다. 주지사 선거에서도 공화당은 일리노이와 위스콘신을 비롯 대부분의 접전지역에서 승리했다.

전국적 관심을 모았던 일리노이 10지구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 밥 돌드 후보가 ‘오바

마의 충성스러운 전사’를 자임했던 현역 의원 브래드 슈나이더를 꺾고 2년만에 지역구를 탈환했다.

현역 주지사인 민주당 팻 퀸마저 정치초년병인 공화당 브루스 라우너 후보에게 패하면서 오바마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와 일리노이주는 민주당 아성이란 통념이 흔들리는 양상을 보였다.

선거 결과를 놓고 전문가들은 ‘경제’를 앞세운 오바마와 민주당이 역설적으로 경제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풀이한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계속된 불황을 무제한 통화 공급이라는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극복했지만 이 과정에서 심화된 부의 불균형이 중산층 유권자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08년과 2012년 대선에서 오바마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 진보-젊은 층에 맞선 보수-중장년층의 반격이라는 해석도 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중간선거 투표자의 인종별 비율은 백인(75%)-흑인(12%)-히스패닉(8%)-아시안(3%)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센서스 인종 비율(백인 63.7%, 흑인 12.6%, 히스패닉 11.3%, 아시안 4.8%)과 비교하면 백인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

다. 연령별로도 45-64세(43%), 65세 이상(23%)의 중장년층이 30-44세(22%), 29세 이하(13%)보다 훨씬 많이 참여했다.

중간선거 관련 뉴스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려 9시간을 기다려 투표를 마친 시카고 주민 디코다 맥기의 ‘마라톤 투표’였다. 그는 공식 투표마감을 1시간 앞둔 지난 4일 오후 6시에 투표소에 도착했다. 하지만 3시간이 지난 오후 9시에야 투표소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일리노이주가 이번 선거부터 도입한 선거당일 유권자 등록제(SDVR)에 의해 이날 등록과 함께 투표를 하려고 했지만 비슷한 유권자가 많고 진행이 더뎠던 탓이다.

그가 투표를 기다리던 자정 무렵 이미 개표가 대부분 완료되고 공화당 라우너 후보는 승리를 선언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지지하던 퀸 후보의 “모든 표를 다 셀 때까지 승복할 수 없다”는 말에 반드시 투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맥기는 5일 오전 3시 뒤늦게 투표를 했지만 선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오바마와 민주당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을 본 공화당의 승리로 끝난 중간선거.

하지만 잠정투표로 분류돼 개표조차 되지 못한 한 표를 위해 9시간을 기다린 맥기 같은 유권자들이야말로 이번 선거의 진짜 승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목표를 향해 자신과 싸우며 묵묵히 한 발 한 발 내달리던 마라토너가 떠올랐다. ***



영화 이야기

Tous les matins du monde

(All the mornings of the world)



이건일(의대 62) CA

나온지가 23년이나 지난(1991년 개봉) 영화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꺼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얼마 전 어느 오후 집 근처에 있는 성공회 교회를 빌려 ‘The Cat-acoustic Consort’ 라는 4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이 영화에서 사용된 음악만 모아 연주회를 열었다. 그런데 여기에 다녀온 다음 몇 해 전에 보고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던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실존하였던 두 사람의 Viola da Gamba = Viola of the leg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Jean de Sainte-Colombe와 궁정 연주자였던 Marin Marais에 관한 실재와 허구를 뒤섞어 만든 이야기다. ‘비올라 다 감바 (Viola da Gamba)’ 는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절 유럽에서 제일 많이 연주하던 악기다. 5~7개의 현으로 구성된 현악기로 현대의 현악기 같이 over hand bow grip 이 아니고 underhand bow grip 으로 연주한다. 현대 첼로 같이 고정용 쇠막대기 다리가 없어서 두 다리 사이에 꼭 끼이게 고정하고 연주하는 악기다. 그래서 이름이 ‘da Gamba(다리의)’ 라고 붙었다. 통칭 ‘비올(Viol)’ 이라 불리는 이 악기는 인간의 목소리에 상응하는 영역인 소프라노, 테너, 바스 등의 음 영역을 갖는다. 영화 개봉 후 200만 명 이상이 관람하였고 세계 31개국에서 상영되었는데, 나는 불행히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지금은 고물이 된 기술인 레이저 디스크 (Laser Disc)로 된 것을 하나 구해 아마 6~7번 이상을 보

았을 것이다. 이번에 이사하면서 그동안 힘들게 모았던 LD 판들을 버리거나 헌책방에 넘겼다. 그때 이 판도 없어졌지만 다행히 DVD를 하나 구했다. 휴우... 여기 나오는 음악은 전부 17~18세기 프랑스에서 연주되던 것들로 흥미없는 사람들에게는 단조로운 자장가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영화에 쓰인 음악은 카탈로니아가 낳은 세계적 음악가, Viola da Gamba 연주자, 지휘자인 Jordi Savall(호르디 사발)이 맡아 연주 지휘하였다. 그것만으로도 이 영화를 감상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영화의 줄거리는 17세기 프랑스, 비올라 다 감바 연주가 생뜨콜롬베 선생(Monsieur de Sainte-Colombe)이 집을 떠난 사이 부인이 죽자 비통해 하던 나머지 정원에 작은 오두막집을 짓고 들어가 살면서 오직 음악에만 정진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리곤 그는 두문 불출하여 두 딸(Madleine과 Toinette)의 속을 상하게 한다. 이 유명한 연주가에 대한 소문은 루이 14세의 왕실에까지 알려져, 왕은 그에게 왕실 오케스트라에 들어오기를 청하였으나 그는 이를 거절한다. 어느 날 젊은 마랭 마래(Marin Marais, Gerard Depardieu의 실제 아들 Guillaume Depardieu가 연기. 성인 역은 Gerard Depardieu가 연기)가 비올라 다 감바를 배우겠다고 찾아오면서부터 두 음악가의 인생이 서로 얽혀들기 시작한다. 프랑스 왕실 작곡가인 늙은 마랭 마래의 회상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가 스승이었던 생뜨 콜롬베 선생(Jean-Pierre Marielle 연기)과의 얽히고 설킨 관계를 이야기해나간다. 이 스승은 죽은 자기 부인을 너무 못 잊어 부인을 위하여 방 한쪽 편에 포도주 병과 과자를 항상 준비해 놓고 비올라 다 감바를 연주한다. 연주되는 음악은 마치 한탄하며 숨쉬는 것 같이 굉장히 감성적이다. 여기에 마래가 스승의 큰 딸인 마들렌느와 연애를 시작하고 또

‘상당기간’의 수수께끼



장석정(법대 68) CH
일리노이 주립대 경영대 교수

최근 중간선거, 에볼라 바이러스, 월드시리즈 야구 등 큰 뉴스거리들이 있었는데 차츰 지나치기 쉬운 소식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그동안 집행해 오던 이른바 ‘양적완화(量的緩和)’ 정책을 지난 달 말로 종료한다는 소식이었다. 이 용어는 평소 경제나 경영에 관심있는 이들에게도 다소 생소할 수 있다. ‘Quantitative Easing’이라는 영어표현을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 줄여서 QE라 하기도 한다. 양적완화는 정부가 국채 등의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통화정책이다. 미국 정부(Fed로 불리는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2008년의 경제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QE를 집행하여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4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시중에 공급해 왔다. 돈이 돌지 않아 경제가 위축될 때 정부는 금리를 낮춤으로써 자금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보

통인데, 최근 수년간 금리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여서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찍어 시중에 뿌리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어쨌든 ‘돈 찍어 벌인 잔치’ 덕에 자금경색으로 질식 상태에 빠졌던 미국 경제가 숨을 돌리기 시작했고 더불어 세계 경제도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 양적완화 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 편 이번 QE 종료가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들리는 이유는 정부도 이제 미국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판단했기에 그런 결정을 했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실업률은 세 번째 양적완화 시작 직전인 2012년 하반기에 8.1%에 달하던 것이 최근 5.9% 수준으로 낮아졌다. 국내총생산(GDP)은 금년 1분기엔 -2.1%로 위축됐으나 2분기엔 4.6%로 증가했다가 얼마 전 발표된 3분기 수치는 예상을 웃돌아 3.5%로 나타났다. 유가 하락 등에 힘입어 인플레이션도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 편 기업투자가 다시 살아나면서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가계소비도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호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적완화 종료가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낙관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다. 이번 조치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시중금리가 오르는 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유로존·중국·일본 등지의 경제성장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미국경제만 지속적·장기적으로 호전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래서 자넷 옐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도 이번에 양적완화는 종료하지만 기준금리는 앞으로 ‘상당 기간’ 지금의 최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거의 제로에 가까운 금리가 인상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고 다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하고 있어 궁금증과 걱정을 더해 주고 있다. 어차피 금리가 인상되면 증시나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그나마 인상시기를 예측할 수 있으면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20년 전 당시 옐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하여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 후임 버냉키 의장은 QE를 언급하면서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서라도” 같은 극단적 표현을 했던 것에 비하면, 최초의 여성 의장인 헐 옐런의장은 ‘상당 기간’이라는 뉘앙스 있는 표현으로 금리인상 시기에 대한 수수께끼를 던지고 있다. 경제가 냉기도 가시기 전에 찬물을 끼얹는 조급한 금리인상도 아니고, 또 너무 달아올라 인플레이가 퍼진 후에 뒷북치는 금리인상도 안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것이 비극을 불러오고 하는 쥘멜로 드라마적인 요소도 있지만 음악만은 절대적으로 아름답다.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은 마랭 마래가 아니고 그의 스승인 생뜨콜롬베 선생이다. 앞 뒤 돌아 보지 않고 오로지 죽은 부인과 음악에만 매달리는 외골수 인생은 우리가 항상 염원

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이 아닐까? 나도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 보았나? 아니, 이 정도로 철저하게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노력은 해보았다고 생각한다. 그 후 이 영화를 여러 번 되풀이해보았지만 보고 났을 때마다 항상 여운을 남기는 몇 안되는 영화 중 하나인 그런 영화다.

감독; Alain Corneau. 각본; Pascal Quignard & Alain Corneau. 음악; Jordi Savall. Monsieur de Sainte-Colombe - Jean-Pierre Marielle Marin Marais - Gerard. Depardieu Young Marin Marais - Guillaume. Depardieu Madeleine - Anne Brochet. Toinette - Carole Richert. ***

다양한 세금공제 사항들



강호석(상대 81) CA
회계사(CPA)

부자가 되기 위해선 일반적으로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 돈을 많이 벌든지, 아껴서 모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고수입을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다수가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이유다. 개인의 지출 중 세금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결국, 절세를

잘 한다는 것은 지출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이다. 세금보고시 공제가 가능한 여러가지 지출들을 살펴보자. 직장인들은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경비가 있을 경우, 그 비용을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와 관련해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지불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다. 회계사에게 지불한 비용 뿐 아니라 세금보고용 소프트웨어 구입, 세금관련 잡지나 책을 구입한 비용까지 공제할 수 있다. 단, 그 비용은 2014년도에 지불한 것이라야 하며 2014년 세금보고서 작성을 위해 2015년에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회계사 비용 중 개인사업과 관련된 Schedule C 부분만큼은 사업체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출비용 중 그 부분만큼의 회계사 비용을 임대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공제를 할 수 있는 항목이란 소득에 포함되는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해, 혹은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들을 말한다. 재난으로 인한 손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파악하기 위해 지불된 감정비나 기부를 한 물건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지출된 감정비는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직장에서 업무수행 중 생긴 재난이나 도난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도 세금공제를 할 수 있다. 투자수입이나 기타 과세수입을 얻기 위해 사무실 경비 등의 여러가지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 또한 세금공제 대상 항목이다. 집에서 업무용으로 또는 과세수입을 창출하는 일을 위해 컴퓨터를 사용했다면 이 컴퓨터 사용에 대한 일정 부분을 감가상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자수입이나 배당수입을 징수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했다면 그 또한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문의 (714)530-3630 ***

아메리칸 드림 50년<17>

최용완(공대 57) CA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시인·수필가

천안문 광장에 모택동의 얼굴이 크게 걸렸고 경비는 삼엄하였다. 사람들은 우리가 미국에서 왔다고 하면 적국에서 어떻게 여행왔는지 궁금해 했다.

▶자금성과 만리장성 = 돌다리를 건너 천안문 안에 들면 자금성 궁궐에 든다. 원·명·청 시대 24명의 황제가 살았다는 자금성은 방의 수가 9천여 개에 달하여 갓난아기가 궁내 방에서 하룻밤씩 자더라도 27살이 된다는, 세계에서 제일 큰 황궁으로 알려졌다. 궁궐의 오래 된 북쪽 부분은 원나라의 건축양식이기에 명·청 궁궐을 짓기 전 원나라 왕궁이 있었을 듯 싶었다.

도시 외곽 가까운 곳에 만리장성이 있다. 산을 넘고 계곡 넘어 끝없이 쌓아 올린 벽돌 성벽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포함한 ‘세계 7대 기적의 건축물’ 중 가장 큰 규모다. 성벽 위 큰 길은 병사들이 이동하는 통로이며 곳곳에 병사들이 머무는 누각이 세워졌다. 지도를 보면 한반도의 서부에서 시작되어 대륙을 횡단하여 서쪽으로 뻗어 나갔다.

기원 전 400년 경 춘추전국시대부터 북방민족이 두려워 세워졌지만, 중국은 몽골에 지배되었고 만주족이 지배하는 청나라가 중국역사의 가장 오랜 왕조가 되었다. 만리장성 남과 북이 서로 경쟁하며 56개 민족이 섞여 살면서 고대부터 12세기까지 세계 문화와 문명을 지배한 대륙이었음을 볼 수 있다.

▶서안 = 서안은 실크로드를 따라 이집트나 그리스, 로마와 교역을 하던 주, 진·한·당나라의 수도였으며 진나라 진시황제의 본향이다. 보존된 문화양식이 한반도의 백제·신라·일본의 나라시대 문화와 연결된다.

서안의 도시 평면을 보면 옛 경주와 일본 교토의 가람과 공통성을 보이며 동서와 남북을 축으로 사각형의 성곽을 건설하였다. 명대에 개축된 현재 성곽은 잘 보존돼 있다. 서안 11,000년의 역사 속에서 모계사회에서 부계 씨족사회로 변천하고 고대 왕조의 기록이 잘 보존된 아시아 문화사의 보고다. 흙으로 지은 피라미드도 산재하여 피라미드의 고장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세계 8대 기적 중의 하나인 진시황 병마용갱은 1974년 한 농부

가 땅을 파다가 발견하였으며 우리 일행은 그 농부와 만나 인사도 하였다. 진시황릉에서 약 1km 되는 거리에 8천여 명의 군대와 130개의 전차, 520마리 말의 모습을 흙으로 빚어 실물 크기로 각각 다르게 만들었다. 그때부터 시작된 이 거대한 발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계림 = 중국의 계림은 월남과 가까운 지역으로 하천과 산의 모습이 동양화에서 보는 수려한 경치의 근원지인 듯 하다. 우뚝우뚝 선 산봉우리들은 신의 조각처럼 특이하고 아름답다. 봉우리마다 이름이 있고 전설이 있어 4시간 배를 타고 흘러가는 동안 이야기와 그림책을 보는 듯 났을 일고 도취했다.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맨몸으로 개울물에 헤엄치는 아이들을 많이 보았다. 밤이면 어부들이 대나무 배 위에서 새의 목을 묶어 생선을 물어오기만 하지 삼키지 못하도록 하여 고기 잡는 풍습도 구경하였다. 일본사람들은 자기 나라 고유의 풍습인 줄 알았다가 이곳에서 유래된 연줄임을 후에 알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독사를 술에 담아 오래 보관한 후에 마시는 술맛을

“아내는 돌층계 셋을 남기고 바닥에 얼굴을 부딪치며 넘어졌다. 놀란 친척들과 급히 뛰어갔을 때는 입과 코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앞가슴까지 흥건히 적시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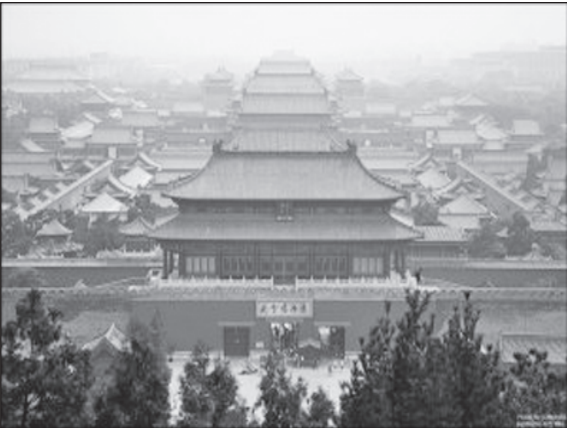
이곳에서 처음 맞보았다.

상해는 중국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부산과 같은 역할의 도시다. 북경은 북방을 대표하고 상해는 남방을 대표하여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다. 우리 일행은 병원과 학교를 방문했다.

중국은 인구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 가족에 한 아이’ 정책을 세웠기에 그 귀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듯 하다. 유치원 학생들에게 외국인 선생이 영어를 가르치고 서구식 교육을 모방하여 공산당 이념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고 있었다.

병원 시설에는 크게 실망했다. 시설과 의료수준이 미국에서 보는 현대의학에 이르기엔 요원함을 보았다. 도시의 교통은 보행자와 자전거가 대부분이며 가끔 보이는 모터사이클과 자동차는 그 안에 섞여 교통질서는 혼잡할 뿐이었다.

공산당 정책으로 부자는 모두 어디에 숨었는지 보이지 않고 가



↑궁궐로는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자금성(왼쪽 사진)과 역시 세계 최대의 만리장성

난한 살림에 부엌과 변소 설비가 모두 공용으로 지저분하고 비위생적 환경이 대부분이었다.

▶잠자는 사자 = 우리 일행의 1997년 방문은 중국의 1984년 덩샤오핑 주석에 의한 개혁개방정책 이후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외국인 방문이 이제 막 시작하였기에 여러 면에서 불편하고 후진성을 경험했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잠자는 사자’로 불렸던 중국이 이제는 분명히 잠에서 깨었음을 보았다.

아내는 어린 시절 함경남도 함흥에서 자랐다. 아군과 미군 수천 명이 한국전쟁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에 포위되어 살해되고 부상당했을 때 가까운 흥남부두에서 후퇴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장인 장모와 8세 된 아내는 마지막 배에 올라 거제도를 거쳐 남한으로 옮겨왔다. 부산에 사는

CD 디스크 한 장을 소중히 들고 다음 날 아침 비행기에 탑승했다. 얼굴 한 쪽에 붕대를 감고 먼 창공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에게서 처음 만났을 때의 웃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그리고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창 밖의 풍경구름처럼 아름답던 추억이 몽실몽실 떠올랐다.

▶이 세상에 하나 뿐인 여인 = 만날 때면 언제나 다소곳이 웃고 있던 아내의 얼굴은 세상 어느 여인보다 아름다웠다.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고, 아기들을 향해 웃는 아내의 얼굴이 바로 사랑이란 것을 새롭게 느끼면서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지금은 손녀들을 보고 오는 날이면 아내의 혼자서 웃는 얼굴을 자주 보게 된다. 세월이 흘러 할아버지가 된 나에게 아직 웃음을 아끼지 않는 아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인이다.

여자는 아이 때부터 거울 보는 것을 좋아한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화장을 하고 밖에 나가기 시작한다. 집안에서는 생 얼굴, 밖에서는 화장한 얼굴 사이를 오가며 한 평생을 그려 넣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살아간다.

날마다 가꾸어야 할 소중한 아내의 얼굴인데, 상처가 난 아내의 속 사진이 한 장의 CD에 담겨 아내의 핸드백 속에 처박혀 있다. 가슴이 허허로워져 자꾸 아내의 붕대 감은 얼굴을 쳐다보게 된다. 그 곱디 고운 아내의 얼굴이 본래대로 돌아올까 걱정도 되었지만, 그보다 말없이 회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아내를 보는 것이 더 괴로웠다.

본래 인간의 피부는 털로 덮여 있었다. 그런 인간에게 옷이라는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면서 털은 빠지고 그 자리에 솜털로 자리바꿈이 되었다. 이렇게 형형색색의 옷에는 자신의 얼굴도 옷에 맞게 치장을 하며 살아간다. 그게 어찌면 인생살이 중 하나이지만 말이다.

아내는 30여 년을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들의 마취를 담당했다. 지금은 미국 감리교 부목사로 시무하며 동시에 가정상담소에서 목회자와 의사로 가정상담을 하고 있다. 이런 아내의 생활이니 화장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 비행기는 LA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집 부근 오렌지카운티 병원을 찾았

다. 50세 전후의 한국인 2세 성형외과 의사에 의해 수술이 시작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대학 병원에서도 가지고 온 CD 디스크 한 장이 놀랍게도 미국 수술실 절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컴퓨터 스크린에서 보여주고 있었다. 1960년대에 한국을 떠난 우리 부부는 한국의 경이로운 의료기술 발전을 체험하는 순간이었다.

수술은 아침 8시에 시작하여 11시 반 경에 환자는 회복실로 옮겨졌다. 얼굴 반쪽이 퍼렇게 멎고 부어 있었지만, 옛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다. 의식을 회복한 아내는 내게 물었다.

“얼굴 어때요?”

“다친 쪽이 안 다친 쪽보다 더 예뻐.”

얼굴 피부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아내의 웃는 눈빛을 볼 수 있었다.

의사는 수술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주었다. 얼굴의 세 곳을 열고 타이타늄으로 받침대를 만들어 들어 올렸다고 했다. 얼굴에 흉터가 보이지 않도록 입안과 귀 뒤로 수술했고 가장 작은 흉터를 남기려고 온 정성을 쏟았다는 곳은 눈 아래에 작은 주름살 부분이었다고 했다. 나는 감사한 마음에 울크었다.

▶50대 중반의 혈전 =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하루에 전혀 예기치 못하고 깜짝 놀라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묻기 전에 앞을 보고 더 낳은 미래로 연결되는 기회였다고 보면 회복이 빠른 듯 싶다.

지구의 저쪽에서 일어났던 사고를 지구의 이쪽에서 수습했다. 사람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당할 적마다 우리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온 정성을 모아 회복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내가 40대 중반 나이에 목과 허리의 척추에 신경이 눌려 치료받고 회복한 후에 50대 중반에 몸에 혈전이 생겨 위기를 넘겼다.

한국과 중국을 다녀오는 긴 비행기 여행을 마치고 귀가한 후에 곧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참석하였다. 다음 날 오후 오후 직장에서 집에 오는데 왼발이 붓고 걷기가 어려웠다. 아내는 이미 저녁상을 차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운동하다 나도 모르게 다쳐서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밥 먹으려는 데 의사인 아내의 눈은 유심히 관찰한 다음 차려놓은 밥상을 뒤로하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서둘러 직행했다. 의사가 나를 진찰하는 위급하고 심각한 모습을 보고 나는 이 병의 위협을 처음 느꼈다.

<다음호에 계속>



←세계 8대 기적 중의 하나인 진시황의 병마용갱 발굴 모습.



<달러 속 주인공의 이야기>

50달러 지폐의 윌리시스 그랜트

이영목(공대 59)DC
미주 동창회 상임고문

1822년 4월 27 출생, 1885년 7월 23일 사망. 미국의 제21대 대통령(1869~1877) ‘그랜트’ 라면 떠오르는 것은, 우선 나는 해외여행시 100달러짜리보다 50달러짜리를 지니고 떠난다는 사실이다. 이상하게 100달러짜리를 내밀면 가짜 돈인지 아닌지 까다롭게 굴지만 50달러짜리는 그리 세심하지 않은 듯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웃기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나 나는 100달러짜리보다 50달러짜리에 더 친근한 마음이 든다.

▶Carpetbagger = 그러면서 ‘그랜트 대통령’ 하면 2개의 단어가 떠오른다.

첫째가 ‘Carpetbagger’란 단어다. 카페트를 들고 잘라서 양 끝에 긴 낚시로 잠금장치를 하고 옆구리를 다시 카페트로 만들어 꿰매면 커다란 여행용 가방 같은 것이 된다.

오래 됐지만 내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다. 남군의 패잔병들이 터벅 터벅 고향을 향해 걸어가는데 마차에 한 몸집 좋은 흑인 남성이 옆에 친구인 듯한 백인을 태우고 큰 시가를 입에 물고 비키라고 소리 지르면서 달려간다. 그리고 그 뒤에는 커다란 카페트 백이 놓여 있다. 수단이 어떠하든지 한 밀천 벌겠다고 남으로 남으로 달리는 장면이다 무슨 영화냐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이다

사실 북부군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며 북쪽 사람들이 건방을 떨며 돈 보따리를 들고 와서 남부의 재산들을 헐값에 사는지 빼앗는지 할 때 커다란 카페트 또는 가죽으로 된 가방을 들고 마차를 타고 나타났다.

이렇게 타지방, 낯선 이들이 돈을 빼앗는 듯한 사람들을 ‘carpetbagger’라 부른다. 근간에 공화당에서 힐러리 여사를 carpetbagger라 부르기도 하는데 클린턴이 남부 아칸소 주지사로 있을 때 힐러리가 금융투자 사업에 관여했던 것을 두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유행되는 단어다. 어찌 됐던 카페

트베거라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랜트 대통령 때 시작됐다.

▶Lobbyist = 그리고 또 하나가 ‘로비스트(Lobbyist)’란 단어다. 그랜트 대통령은 어인 일인지 백악관에서 근무는 했지만 잠은 백악관 옆에 지금도 있는 윌라드(Willard) 호텔에서 잤다.

그리고 당시는 정책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같은 것이

↑그랜트 대통령이 숙소로 사용하던 Willard Hotel의 정면 모습.

오하이오 주에서 가죽공장으로 그런대로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출신이다. 당시 웨스트포인트 입학에는 주 상원의원의 추천이 있어야 했더니 그의 집안 배경이 그런대로 좋았던 것 같다.

그러나 임관 후 경리장교 대위로 근무지가 서부 벽촌이어서 장래가 없다고 비판하며 근무에 충실하지 않고 술타령만 하다 군법회의냐, 아니면 제대냐, 하는 기로에서 제대를 하고 고향으로 돌

“역사에서는 그랜트를 가장 훌륭한 장군이요, 역대 가장 무능한 10명의 대통령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가 재선된 것은 내세울 사람이 없어서...”

나 청탁을 하려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 그랜트 대통령이 출근하기를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다가 나타나면 붙들고 부탁했다. 그래서 그들을 로비스트라고 불렀다. 이것이 로비스트의 시작이다. 이 두 개 단어로 유추하건대 당시 정치관이 어땠는지 짐작이 간다. 사실 역사에서는 그랜트를 가장 훌륭한 장군이요, 역대 가장 무능한 10명의 대통령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그가 재선된 것은 인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사람이 없어 하는 수 없이 그를 다시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웨스트 포인트 출신 = 그는

↓그랜트 대통령의 사진.



아 온다. 돌아와서 아버지 사업을 도왔다고 하나 장부 정리도 제대로 못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다 기회가 왔다. 남북전쟁이 발발해 일리노이 주 의용군에 지원, 의용군 대령으로 시작해서 곧 준장이 되고 공을 쌓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당시 링컨 대통령에게 아주 골치 아픈 사람으로 포�맥 군대를 지휘하던 북부군 맥클렐런이 있었다. 그는 월등한 군사력으로 남부군을 격파하고 전쟁을 끝낼 수 있었건만 참호만 파고 움직이지 않았다.

이때 그랜트 장군이 서부 허리에 해당하는 빅스버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며 남군을 패배의 길

↓Carpetbagger의 풍자 커리커추어.



↑윌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의 얼굴이 인쇄된 50달러 지폐

로 들게 하는 전환점이 된다.

그 뒤 윌리엄 셔먼 장군이 이 승리를 몰아 버지니아를 지키는 로버트 리 장군의 뒤통수를 때린다. 조지아 주, 애틀랜타, 그리고 바다로! 바다로! 하면서 군수물자 수입 공급처인 사반나 항구까지 점령한다. “윌리(셔먼 장군 애칭) 어서 가요. 그랜트 장군이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행군하며 부르는 노래는 전설이 됐다.

링컨 대통령의 코멘트가 꽤나 재미있다 “그랜트가 리 라는 꿈에게 손을 물려 있는 동안 셔먼은 그 꿈의 가죽을 산채로 벗겨 버렸군” 하는 것이다.

부터 항복문서를 받을 때 누가 승리자이고 누가 패자인지 헷갈렸다는 빈정거림을 받았다.

▶뭇밖의 프로포즈 = 어느 사람이 초대받아서 가고 있었다. 그 때가 비가 오는 저녁이었다. 그가 우산을 들고 가는데 우산도 없이 초라하게 걷는 사람이 있어 불려서 같이 우산을 받고 가면서 그가 “오늘 그랜트 전 대통령도 초대되는 모양인데 난 그가 너무 과대평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그 사람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했다고 한다. 그런데 아뿔사, 그가 바로 그랜트 전 대통령이었다고 하니...

비 오는 날 개울을 건너야 할 경우가 생겨서 줄리아라는 여자가 그랜트의 팔을 붙들고 개울을 건넜다. 그 때 그랜트가 “바라건대 평생 내게 매달리면 어떻겠습니까” 했다. 그 줄리아가 평생을 같이한 부인이다

“직업군인이긴 했지만, 나는 전쟁에 어떤 호감도 가진 적이 없었고, 전쟁을 옹호한 적도 없었다. 평화를 위한 전쟁만이 예외였을 뿐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가 하면 그는 ‘무조건 항복 (Unconditional Surrender)’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던 장군이 기도 하다.

참! 우리나라의 대원군 시대에 발발했던 소위 신미양요는 그랜트 대통령 시절 일어난 사건인지 전투였는지...

그리고 그가 생의 마지막 시기에 ‘툼소여’와 ‘허클베리 핀’의 소설로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도움으로 자서전을 써서 과산으로 생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고 얼마의 유산도 남길 수 있었다고 한다. ***

↓그랜트 공원에서 잠시...



여행기

보고 싶은 대동강<1>



김원호(약대 63) CA

다시 찾은 북경의 모습은 15년 전 관광으로 왔을 때와 비교해 매우 달랐다. 공항에서 Rosedale Hotel까지 고속도로 변으로 보이는 주변 고층 아파트와 상업 빌딩들은 말로만 들던 세계 제2의 경제대국 바로 그 모습이었다. 호텔 로비에는 보스턴 대학에서 교육학 공부를 한다는 Carol을 비롯한 미국에서 온 학생 자원 봉사자들이 평양 과기대의 학부 건물 준공식 참석자들에게 안내서와 비자를 나누어 주면서 도착을 확인하고 있었다. 비자를 발급받는 사람은 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10시 대형 버스로 함께 공항으로 이동하여 평양행 고려항공에 탑승하게 되어 있었다.

기내에서 주는 북한신문과 햄버거로 점심을 하며 약 한시간 반만에 순안 공항에 도착하니 과기대 박찬모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들과 북한 교육부 대외사업부원 5명이 영접을 나와 입국 수속과 짐을 챙겨주었다. 이날 때는 몰랐으나 남가주 의대 신경내과 David 부교수와 Sarah라는 원예전문가인 LA에서 온 같은 고장 친구들을 만나게 돼 반가웠다.

▶여권을 맡겨두어야 = 두대의 버스에 나누어 타고 평양 시내로 향하는 도중 모든 방문자들의 여권과 비자를 대외사업부 지도원들에게 맡기도록 권유 받았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 시내 모습을 그들은 유창한 영어로 지나는 곳마다 친절히 설명을 해주며 몇가지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사진은 얼마든지 찍어도 좋은데 다만 군인 및 군사시설은 삼가하고 사람들을 찍을 때는 미리 당사자 허락을 받고 찍으라고 정중히 부탁하였다. 인터넷 사진으로만 볼 수 있었던 인민 대학상담, 평양역, 노동신문사 건물, 김일성 광장, 평양예술단 건물, 복원된 보통문 고적, 아직도 미완성인 유경호텔, 체육관과 백화점등과 유경대로를 따라 평양 시내 유명한 건물 모든 곳을 지나치며 설명하여 주었다.

시내 도로는 깨끗이 청소돼 있었고 퇴근길 통행자들이 많이 보였다. 나선시와 비교해 월등히 풍족한 도시임을 알 수 있었다. 대동강변을 지나며 현대식으로 지은 원통형 쌍둥이 아파트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마침내 대동강을 건너 양각도 섬안에 52층으로 지은 양각도 국제호텔에 도착해 등록을 마치고 곧바로 식당으로 내려와 참석자 서로를 소개하고 인사를 나누었다. 이렇게 웅장한 호텔을 지

어 놓았는데 절전하느라 조명은 침침하고 손님이 많지 않은 걸 보고 적자운영이 아니겠나 하고 얼른 투자회수 및 감가상각과 흑자경영의 걱정이 앞섰다. 식사 중 나는 서울에서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학위를 한 은퇴 과학자라고 소개하였다.

▶우리 조국의 수재들 = 박찬모 교수는 재미 과학기술자 협회에 있을 때부터 익히 알고 있었고, 필자가 한국에서 KIST와 LG 연구소에서 모시고 같이 일하던 분들과 모교 공대 화공과 동기로 같은 식탁에 앉아 시간가는 줄 모르고 늦게까지 옛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인이 되신 김순경 교수, 박달조 박사 등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거리가 많아서였다. 필자의 영세명이 조셉인 것은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간 이야기에서도 아니고, 호구조사에 응하여 베들레헴으로 간 말씀의 것도 아닌 Teflon의 개발자 Joseph P. Park에서 가져온 것이었다는 가벼운 이야기부터 박 교수께서 포항공대 총장시절 국정조사 나온 야당의원들의 무례에 무척 마음의 상처도 입었다는 말씀 등 그칠 줄 모르고 이어졌다.

박 교수처럼 당시 경기고, 서울공대 화공과를 나온 분들은 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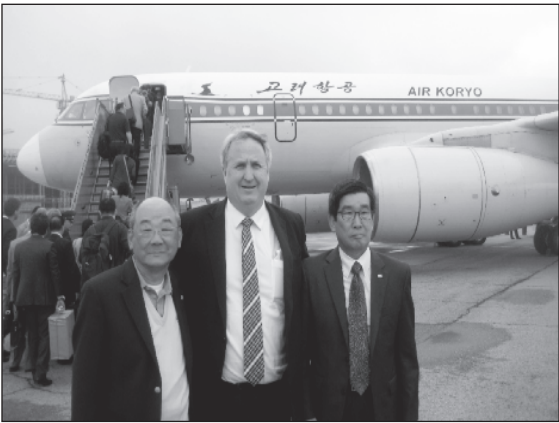
“대학 구내식당으로 가는 학생들은 하얀 셔츠에 빨간 넥타이 차림으로 줄을 맞춰 행진하는 모습이 군대처럼 씩씩해보였으나 자유분방한 젊은이들로 보이진 않았다”

소 박사를 비롯해 한국의 천재들이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작금의 교육감들은 서울대를 없애 평준화 하려 들지 말고 동경대나 케임브리지 대학처럼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 키우고 지방대학의 균형발전을 꾀함이 옳을 줄 믿는다.

▶어린 시절 조개줍던 대동강 = 31층으로 정해진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고 동쪽 주채탑 방향으로 내려다 보이는 대동강의 야경은 아름다웠다. 다리에 설치해 놓은 빨강, 파랑 전구로 장식된 빛이 강물에 아롱거림을 사진에 담아보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니었다. ‘전력이 모자라다’고 들었는데 ‘라고 생각하며 한참 동안 내려다 보며 상념에 젖어 옛날 어린 시절 조개를 주어 담던 대동강과는 다른 것임을 알았다.

밤새껏 준설 바지선의 자갈채취 소리에 잠을 설칠 정도였다. 하기야 한강변의 윤증제를 보면 얼어 붙은 한강 위에서 빙상대회를 하는 장면을 더이상 보지 못함과 같은 것이리라. 잠시 정전이 되곤 하는 것을 보면 역시 전력 사정은 충분하지 않고 겨울은 컴퓨터는 다시 부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평양 방문횟수가 여러 번 되는 동행자에 의하면 지난 1년 전과 비교해 시내의 자동차 수가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아침 7시 다시 창문을 열어 보았는데 대동강 강변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은 거의 없



↑ 평양 순안 공항에 도착해서 기념 촬영.

었다. 한강 남쪽에서 양화대교를 바라보며 그 시간에 미어터지는 한강 강변도로의 교통량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다. 아내의 조반 차림에 익숙해서인지 내키지 않는 북한 최고의 호텔 아침 음식을 먹는 등 마는 등 끝내고 과기대에서 보낸 버스에 동승해 캠퍼스로 향하였다.

▶평양과기대 첫 졸업식 = 평양과기대(PUST)가 설립 4년이 되어 오늘 첫 졸업식이 있는 날이다. 졸업생들은 아침 일찍 깨끗이 의복을 차려 입고 만수대에 올라 현화하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세워진 김일성 부자 동상 앞에서 졸업기념 단체사진을 찍었다. 우리도 같이 섞여 촬영하며 그들의 앞길을 축원하고 경내를 둘러보며 두루 여러 방면으로 촬영을 하였다. 매우 신성한 곳으로 청결 유지가 돋보였다. 지도원들은 동상 사진이 절대로 신체일부가

잘리지 않게 찍으라고 여러 번 당부했다.

다시 평양 시내를 돌아 대동강을 건너 3대 현장탑 밑을 지나 평양 동남쪽에 위치한 학교로 접어들었다. 아빨사, 캠퍼스로 돌아 들어가는 논밭에서 아직 분노를 거름으로 사용하는 분노통과 바가지를 운반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학교 정문에서는 여군들이 차를 잠시 세웠다가 문을 밀어 통과시켜 주었고, 건물 앞쪽에 높이 세워 놓은 탑에는 선군조선의 태양 아무개 장군 운운하는 표어가 쓰여 있었다.

졸업식은 본관 2층 강당에서 있었는데 주빈석의 총장은 두 분이 있었다. 한 분은 당 교육부장이고 다른 한 분은 김진경님이었다.

첫번 식순으로 졸업생들의 국가 제창이 있었는데 ‘동해물과...’도 아니고 ‘오우 씨이 켄 유 씨...’도 물론 아니었다. 매우 씩씩하게 들렸다. 때로는 애잔하게 들리는 애국가도 프랑스 국가처럼 활기차게 들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졸업식에 부모는 한 사람도 안보여 = 졸업생들은 나라가 정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할 터이니 미국이나 한국의 요즘 대학 졸업생들처럼 구직 걱정은 안해서 좋으련만 매우 특이한 점은 졸업식에서 부모들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 매우 신기하게 보였다. 과기대는 대학원 과정이라며 박사원이라고도 불렸다. 학생들은



의학부 건물 준공식에 참석해서 준공 기념 삽질.

우수한 학부에서 모아 왔다고 들어서인지 모두 뚝뚝하게 보였다. 하지만 충분한 교과과정과 철저한 논문지도를 받은 후 학위를 받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졸업식 다음에는 운동장으로 이동해 의학부 건물 준공식이 있었다. 캠퍼스가 넓어서 한참을 걸어 삽과 시멘트, 모래가 준비된 식당에 각계 인사 30여 명이 도열해 테이프를 자르고 첫 삽을 뜨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의학부는 2015년 개설한다고 돼 있고 치의학 및 약학부 그리고 공중보건학부도 포함돼 있다.

준공식이 끝나 대학 구내 식당으로 가는데 학생들은 하얀 셔츠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줄을 맞추어 행진하는 모습이 군대행렬처럼 씩씩하고 기백이 있어 보이긴 했으나 자유분방한 젊은이들로 보이진 않았다. 총장, 교수들과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식판

욕, 사업철학에 관해서는 너무나 스케일이 크고 추진력이 강해 소위 그의 ‘사랑주의’라는 신념을 이해하고자 노력해도, 내가 직접 그의 사업에 더 깊이 노출(exposed)되거나 함몰(involved)되지 않는 한 따라가기 힘들 것 같이 여겨진다.

▶봉사 희생정신의 학자들 = 의학 교육은 건물 짓고 교수 몇 분 초빙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심도 깊은 수련 과정이 따라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니 “모든 것은 저 위에 계신 분이 계획하고 실천하는 초월적인 힘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가 그분의 답변이었다.

“오시오, 환영합니다. 4반세기 전 연변 과기대를 만들 때도 모두가 안된다고 하였소. 아무 걱정 말고 오세요. 오면 됩니다.”

내가 만난 YUST/PUST의 교수들은 숭고한 선교 신앙심에 입각한 자기 헌신을 할 수 있는 젊은 학자들지, 많은 학문적 경험을 가지고 은퇴해 더 이상 기존 직장에서 일해주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노교수들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70을 넘긴 필자도 과거 경력으로 볼 때 ‘연구 약학’과 ‘임상 약학’의 모든 방면에 두루 견문이 있어 적합하리라 생각하지만 우선 개인적 희생봉사 정신이 박약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두 곳 대학을 모두 방문해보니 임상 약학의 필요성보다는 연구 약학 방면으로 약학부 설치의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왜냐하면 디스펜싱할 약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도 못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의학부 부총장인 강 교수와 대화에서 평양의 다른 학교나 제약 시설을 보고 협력을 하려 해도 북한 당국이 연결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고충이 있다고 들었다. 동행한 연세대의 대대 인요한 교수는 어느 자선기관에서 막대한 양의 의료기구가 들어왔는데 바로 옆에 보이는 저 건물임에 틀림없다는 지적이었다.

기여자들은 총체적 코디네이션에는 상관할 일 없고 많이 기부해주시길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장들의 개인 또는 그동안의 홍보 활동으로 세계 석학들을 모셔오고 한국의 과거 세분 대통령의 협조, 대형 교회들로부터의 재정적 후원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신념과 열정을 가진 김 총장이 계시는 한 무언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희망이 보였다.

학교에서 식사 전 기도는 있었으나 신앙 전달의 표정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다음 호에 계속>

<여행기> 아일랜드

아름다운 에메랄드섬 <2>



김명자(문리대 62)
Heartland

콘네마라 마블공장(Connemara Marble Factory)엘 갔는데 주로 초록색갈의 마블을 다루고 있었다. 그곳은 ‘와이어트맨(The Quiet Man)’이라는 영화를 촬영한 곳으로 존 웨인과 모우린 오하라의 사진과 달력이 여기저기 걸려 있었다.

넓은 상점에는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 많은 물건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여러 번 스웨터 만드는 상점과 모직공장(woolenmill)에도 들어갔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가지고 싶다는 마음도 들지 않아 구경으로 그치고 말았다.

▶**잠시나마 성주 기분 만끽** = 저녁에는 번라티성에서 큰 파티(Bunratty Castle Banquet)가 있었다.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합창단의 임원들이자 또한 웨이터와 웨이트레스들로 아름다운 전통 옷과 머리들을 하고, 이 나라의 전통 악기인 하프(Harp)와 바이올린을 치면서, 우리들이 도착하자 ‘My lady!’ ‘My Lord!’을 연발해가면서 고기(meat)로 만들었다는 위스키를 권했는데, 그저 한 가지의 술이었고 특별히 다른 점은 없었다.

돼지갈비와 감자, 닭찜과 브로콜리, 당근 등으로 포식을 하였으며, 아름다운 노래와 힘차고 정열적인 춤을 맘껏 즐겼다. 잠시나마 내가 성주가 되어 있는 기분이었다. 크지도 않은

(medaeval)성 안에서 300~400여 명이 벤치에 꼭꼭 끼어 앉았는데, 그 많은 관광객 손님들을 다 만족하게 다루었다는 것을 치하해 주고 싶다. 주위를 돌아보면 모두가 아이리시의 후에들이었고, 우리만 전연 피가 섞이지 않은 듯 했다.

▶**모허의 낭떠러지** =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멋있는 경치로 모허의 낭떠러지(Cliffs of Moher)를 손꼽을 수 있는데 6개의 절벽들이 들락 날락하는 것을 멀리서 볼 수 있었다. 견고한 큰 돌판으로 담을 만들어 절벽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그장엄한 모양은 반대편 산등성이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 보였다. 절벽들은 700피트가 되는 높이인데 최근에는 1년에 50여 명 이상의 자살 사건이 일어나서 당국에서는 골치를 썩는다고 했다.

미시간에서 온 여학생 2명은 미국으로 돌아갔고 새로 7일간의 일정으로 온 새로운 여행객들이 들어와 분위기를 다시 살려주었다. 그 중에는 80세의 어머니와 딸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 2마일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었다.

계속 돌담과 키가 작은 슈랍(shurab)으로 경계가 되어 있는 푸른 초원을 지나오다가, 섬의 서남쪽으로 오니 나무도 없었고, 크고 작은 돌밭 뿐이었다. 그리고 돌들 사이로는 물이 조금씩 흐르고 있었다.

포이네스(Foyness Flying Boat Museum)에서 배처럼 생긴 비행기 박물관으로 갔다. 활주로나 필요 없으니 물론 비행장도 필요가 없었고 샤논 강(Shannon River)에 내리곤 했는데, 1935년부터 5년간 뉴욕을 오고 가곤 했다.

워낙 비행기 값이 비싸서(one way ticket에 320달러), 지금의 가격으로 \$5,000이 넘는 가격이었으며, 그 값을 내고 다닐만한 여객은 많지 않았다.

여기서 커피에 위스키와 크림이



↑아일랜드의 대표적 명승지인 Cliffs of Mohe(왼쪽)과 Blarney Kissing Castle

들어가는 아이리시 커피를 만드는 법을 배웠는데 이곳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했다.

▶**남편을 Dingle로 불러** = 언제부터인지 나는 아들한테 들은 말로 남편을 ‘딩글(Dingle)’이라고 불렀는데, 오후에 우리는 딩글 반도에 도착했다.

‘Fortress’라는 말로 조용하고 아담한 어촌이었다. Dingle Bay의 특별한 새우를 점심에 먹었으나 내가 만드는 새우 튀김을 따라 올 수 없었다. 거의 47년을 열심히 음식을 하다 보니 이제는 모든 것에 도사가 된 기분이자.

비를 맞으면서 키세인이라는 양(Kissane Sheep)들을 치는 농장엘 들렀는데 돌들이 많은 험한 산이었다. 개 세마리가 짖어대면서 그 많은 양들을 한 곳에 모아 울타리 안으로 몰아들였고, 일이 끝난 다음에는 울타리 안에 납작 엎드려서 주인의 칭찬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인의 명령이란 “오른쪽, 왼쪽, 그리고 한 배 모아라”를 두 손으로 지시하는 것이었는데, 순한 양들은 개들이 쫓으면서 뛰어 다닐 때는 몹시 무서워 하는 것 같았다.

▶**돌에 키스하면 소원 성취** = 블라니(Blarney)성에서 돌에다 키스를 하면 소원이 성취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올라가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다. 처음에는 5-6층까지 올라갈 마음이 없었지만 줄이 길어 천천히 올라가도 된다는 것을 알고는 나 역시 도전을 해보고 싶었다.

좁은 층층대로 한 없이 올라가는 듯 했다. 물론 초록색의 아름다운 경치는 올라갈수록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잘 가꾸어 놓은 잔디밭과 정원의 꽃들도 풍치를 돋구어 주고 있었다.

성 꼭대기 한 구석에는 돌이 없어 수백 피트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았고 거기에 누워 쇠막대기를 잡고 돌 벽에 키스를 하는 것이었는데, 위에는 카메라가 있고 한 남자가 내 몸을 붙들어주어 떨어질 듯한 불안을 없애주고 있었다.

미국에 돌아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 질문을 받았는데 아일랜드에서 그 경험을 하고 왔다는 것에 기분이 좋았다.

워터 포드(Waterford) 크리스탈 공장견학도 재미 있었으나, 미국에서 마살이나 티 제이 맥스에서 사는 값보다 훨씬 비싸서 살 마음이 없었고, 이제는 무엇을 새로 산다는 시절이 지나서 더욱 더 관심이 없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조차 처리할 생각을 하면 아찔해진다.

던 브로디(Dunbrody Famine Ship) 구경을 하면서 100여년 전 50~60일이 걸리던 대서양 횡단과 배값이 한 사람당 3파운드였고, 항해하는 동안 절반은 배에서 죽어 물고기 밥이 되기도 했다고 했다.

잠을 잘 공간이 없어 교대로 잠을 잤고, 조그만 나무 버킷에 10명이 불 일을 보고 바다에 버리고 그릇을 씻었다. 1등석 손님들은 닭과 양을 잡아 저녁을 대

접했으나 3등석 손님들은 오트밀과자 하나였다.

▶**케네디 대통령 선조의 집** = 존 F. 케네디 대통령(JFK Home-stead Cultural Museum)의 조상이 살았다는 집도 흥미가 있었다. 3대로 거슬러 올라가 선조들이 살던 보잘 것 없는 목조 건물에 많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는 살아 있는 동안 두번이나 방문을 했단다.

2주간 버스를 타고 유창한 아이리시의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와 비슷했던 그들의 가난했던 과거를 같이 느끼기도 하고,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양과 젖소들을 보면서 한없이 조용하고 잠잠한 전원의 맛을 만끽했다.

40여 가지의 초록색이 있다고 했지만 내 눈에는 10가지 정도의 그린으로 보이는 듯 했다.

또한 인상이 깊었던 것은 가는 곳마다 술집(Irish Pub)이 많은 것이었다. 크고 화려한 술집은 못보았지만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술집들은 제각기 달랐고, 풍성하고 독특한 그들대로만의 장식들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항상 그 지방의 독특한 음악이 있었다.

오랫동안 대영제국의 지배하에서 압박과 설움을 받던 나라에서 충성이 사라지고, 하이텍으로 인해 많은 직장들이 생기고, 관광 사업으로인해 4천500만이라는 후손들의 발걸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 더블린 비행장을 떠나오는 나의 마음도 몹시 즐거웠다. ***

<끝>

“서울대학교 역사 자료를 찾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대 총동창회(회장 서정화)와 서울대(총장 성낙인)는 2015년 맞을 개학 120주년을 계기로 모교의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서울대 120년사’ 편찬과 ‘서울대 역사연구기록관’ 건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하오니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문과 가족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대상 : 서울대학교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록물
 - 1)문서류 : 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류, 수업 관련 강의노트 및 과제물, 자치단체 회의록 등
 - 2)시청각물류 : 교내 교정 및 학내 행사 사진·영상자료, 각종 슬라이드, 강의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등
 - 3)간행물류 : 팸플릿, 리플릿, 소식지, 요람, 편람, 졸업앨범 등
 - 4)박물류 : 교표, 교기, 배지, 교복, 갑

- 사패, 현판, 액자, 직인, 기념품, 상장, 임명장, 개인애장품, 성적표 등 5)기타 대학 역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 (원품, 모사품, 앨범 포함)
2. 수집기간 : 2014년 12월 31일까지
 3. 수집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문의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전 화 : 02-702-2233 팩스 : 02-703-0755 E-mail : webmaster@snu.ac.kr
주 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416호
담당 : 임성용 과장(010-9238-9759)
서울대학교 기록관(전화 : 02-880-8819)
팩스: 02-884-7149 E-mail: archives@snu.ac.kr
주 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기록관 220동 446호
담당 : 김봉은 전문위원(010-3032-5913)
 5. 제공자혜택 : 역사연구기록관에 제공자 성명을 표시하는 등 혜택 제공.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서정화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모교 역사자료 수집에 동문 148명 기증

본회와 모교 기록관이 진행하고 있는 모교 역사연구기록관 건립 자료 수집에 지난 9월 1~30일 9명의 동문이 추가로 기증했다. 이로써 지난 8월 31일 이전에 기증한 동문 1백39명(서울 동창회보 421호 8면, 422호 4면, 423호·424호·425호 6면, 426호 8면, 427호 7면, 428호 8면, 429호 4면, 430호 6면, 431호 3면, 432호 7면, 433호 8면, 434호 9면, 435면 6면, 436호 4면, 437호 5면, 438호 7면 게재)을 통합해 현재까지 총 1백48명의 동문과 교직원이 소중한 자료를 보내왔다.

추가 기증자와 접수품은 다음과 같다.
▶故 李基昌(경성사범 38졸)동문: 경성사범학교 관련 자료 ▶故 柳明植(기계공학 47~52)동문: 공과대학 관련 자료 ▶羅東鎬(행정 49~55)동문: 졸업장 ▶金正基(농학 56~61)동문: Grain 1호 ▶金鎭秀(화학 59~63)동문: 1951~1986년 서울대 대학신문 영인본(부록포함) 총11권 <사진> ▶金正基(전기공학 63~67)동문: 졸업장 ▶朴明潤(보대원 74~76)동문: 보건학 박사 동우회 20년사, 학



술세미나 자료집 등 ▶金大午(철학 85~89)·金外淑(사법 85~89)동문: 대학원 학위논문용 원고지, 보고서 용지, 메아리 정기발표회 책자(1985년)·봄 정기대 공연 책자(1988년) 등. ***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703) 462-9083

CA 남가주

공인회계사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9315
19401 Vermont Ave. Suite C-201
Torrance, CA 90502
kangdon@att.net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300,L A,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Kim & Kang CPA's
(김경무 강정욱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사대 73)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530-3630
12912B 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STANLEY Cha, CPA
차기민(공대 85)
213-739-5700, 714-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장 준(인문대 85)
818-772-2811 213-481-0100
junchangcpa@hotmail.com
19520 Nordhoff St. #16 Northridge, CA 91324
1100 Wilshire Blvd. Suite 2904 LA, CA 90017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운송/유통/통관/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엔지니어링 컨설팅/ 건축

Lee & Ro, Inc.
노명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Santa Ana CA 92705

의료/ 약국/ 치과병원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의대 65)
Diana Kim MD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암내과 · 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Gilbert Pharmacy
* 최무식 (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황준오 D.D.S.
황준오(치대 73) 408-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재정/ 보험/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간호대 72)
213-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Michael Kim, CEO
김기형(상대 75)
3435 Wilshire Blvd, #2820 LA.CA 90010
213-505-8102(0) 626-722-7836
e-mail Michaelk@UnitedProjects.US
www.UnitedProjects.US

비영리법인 애양 극지에너지

ISOPE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P.O. Box 189,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Jin S Chung 정진수

Ocean, Arctic, Energy
www.isopec.org: jschung@isopec.org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우주개발/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공대 64)
714-952-2240
10874 Hope St.P0 Box6034 Cyoress CA 90630
jc@taycoeng.com www.taycoeng.com

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수의대 66)
909-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리테일러/보석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213)627-0547
650 S. Hill St. #E 8 LA, CA 90014

부동산/ 클리닉/ 교외

Teamspirit Investment & Dev.
이종묘(간호대 69)
714-396-0624 949-251-040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800(B) 714-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 원(공대 65)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NY-NJ 뉴욕/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약대 64)
(212) 760-1768 (917)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l New York NY 10016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건축/ 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법대 60)
201-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김주현 건축사무소
김주현(공대 93)
347-213-3516
150 S. Middle Neck Rd. #1D
Great Neck NY 11021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
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정지선(상대 58) 510-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공대 76)
404-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동물병원/건축 설계/레스토랑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수의대 68)
215-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Timothy Haahs & Assoc.
손재옥(생활과대 77)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MD·VA·워싱턴 DC

치과 / 부동산 / 기계 / 전기

이준영 치과(치대 74)
(301) 220-2828 (301)926-9692
6201 Greenbelt Rd.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shady Grove Ct.Gaithersburg MD 20877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Drivetech, Inc
엄달용(공대 69)
703-327-2797
Carrington Drive, Chantilly, VA 20152

개쟁/ 보험 / 컨설팅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자연대 82)
703-663-8400(0) 703-785-8467(C)
1952 Gallows rd.Ste 214 Vienna, VA 22182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경영대 84)
301-279-6969.
414 Hungerford Dr.#203 Rockville MD 20850

Best Care Dental
김영중(치대 66)
702-384-2828 702-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89113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농대 78)
612-418-5393
P.O.7416 Beaverton OR.97007

TX 텍사스

C&C Industries INC.
진기주(상대 60)
713-466-1644
10350 Clay Rd., Ste.250 Houston TX 77041
kc@candcvalve.com www.candcvalve.com

<27면에서 계속>

후원회비

▶Arizona
박양세(약대 48)200
▶California
고영순(음대 59)200
김민국(문리 50)300
김동호(농대 58)200
김진형(문리 55)500
박종수(수의 58)300
석균범(문리 61)200
염동해(농대 74)200
원미랑(미대 65)200
유재환(상대 67)425
이채진(문리 55)200
임춘수(의대 57)200
최용완(공대 57)100
▶Chicago
강수상(의대 48)200

서상헌(의대 65)125
이용락(공대 48)500
조봉완(법대 53)200
▶Hawaii
김승태(의대 57)200
▶New England
윤상래(수의 62)200
▶N.Carolina
이달호() 25
▶NY & NJ
곽선섭(공대 61)225
권영국(상대 60)200
김기훈(상대 52)200
김정순(법대 57)200
이강홍(상대 60)300
이은미(음대 77)200
조아미(음대 61)200
최한용(농대 58)200
허선행(의대 58)200
▶Ohio
송용재(의대 63)200

▶Philadelphia
김국찬(치대 64)200
손재옥(가정 77)500
송성균(공대 50)200
송영두(의대 56)200
윤경숙(문리 59)200
정정수(의대 56)200
지홍민(수의 61)200
▶Texas
진기주(상대 60)200
▶DC.
김동훈(법대 56)200
박용길(약대 56)200
윤경의(공대 57)200
이영수(공대 59)200
장수영(공대 57)200
정평희(공대 71)200
한성엽(의대 55)200
▶Wa.States
고광선(공대 57)500
김무웅(음대 64)225

기타 후원

강연식(사대 57)125
공순옥(간호 66)100
김동수(의대 60)125
김부근(의대 54)100
이운순(의대 52)125
이원택(의대 65) 25
임필순(의대 54)100
정량수(의대 60) 25
정정옥(의대 60)100
정창동(간호 45) 50
정태광(공대 74)100
한영준(사대 60) 25

광고 및
업소록

Wilshire Bank 1000
김영도(공대 67)300
김일영(의대 65)120
김창수(약대 64)120

김혜정(문리 82)400
박희진(농대 78)120
서동영(사대 60)240
이전구(농대60)1000
이준영(치대 74)120
이영진(공대 76)120
이종모(간호 69)120
정재훈(공대 64)120
정진수(공대 56)120
하선호(치대 81)120

2차년도지역동
창회 분담금 납
부<괄호안은 서울
2014.7~2015.6>
<완남동창회>
▶NY 3000(3000)

편집후기

O...워싱턴 DC 동창회 정세근 골프회장에게 감사 = 미주 동창회 사무실 인터넷 시스템이 그동안 아주 빈번하게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Cox 인터넷을 이용 중인 데 그동안 아침에 출근하면 연결이 되지 않거나 사용 중 느닷없이 끊어지면 몇 시간씩 불통되는 곤조(?)를 부리다 저절로 다시 회복되곤 했습니다. 지난 11월 25일은 하루 종일, 26일 출근해서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다. 이 바람에 각 지역 동창회와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e-메일에 답신을 드릴 수가 없어 매우 송구스러웠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같은 건물 C & N Insurance의 CEO 정세근(자연대 82) 워싱턴 DC 동창회 골프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비즈니스로 너무나도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정골프회장께서는 전문가 수준의 기술력으로 약 30분만에 문제를 아주 근본적으로 해소시켜주었습니다. 동창회 사무실 개소 때부터 컴퓨터 시스템에 많은 도움을 받아오고 있지만 12월호 마감을 앞두고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고마울 데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필자의 컴퓨터 기계치(癡)가 한 층 더 부끄러울 뿐입니다.***

<편집주간>

동문신간

● 새헌법 개정안
김철수 지음

모교 법학부 김철수(법학 52 ~ 56 서울 동창회보 논설위원) 명예교수가 국회의장의 헌법개정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리한 심의자료집을 출간했다. 김 명예교수가 과거에 발표한 논문을 중심으로 새 헌법 개정안 성립의 배경, 헌법 전문, 기본권 개정, 국회제도 개헌, 정부제도 개헌, 지방자치제도 개헌 등에 관한 개인의견을 담았으며 말미에 개헌에 관한 일간지와 월간지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김 명예교수는 머릿말에서 “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만들어진 이 헌법 개정안은 현실 적합성을 고려한 차선의 안이고 앞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만 최선의 안이 될 것이기에 이 안이 앞으로의 헌법 개정 논의의 토대가 됐으면 다행이겠다” 고 밝혔다. <진원사 간, 값 3만 6천원>

● 격동기에 겪은 세상들
정범모 지음

수많은 사건들로 점철된 파란만장한 격동의 세월을 보낸 모교 교육학과 정범모(교육 45 ~ 49) 명예교수의 교육자로서의 삶의 추적과 인생철학 및 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들이자아 정체성을 찾는 청년기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희망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충북대 총장, 한림대 총장 등을 지낸 아흔살의 노 교수는 이 책에 살면서 부닥치는 시행착오들조차 진솔하게 털어 놓으며 읽는 이로 하여금 사상은 곧 믿음임을 확신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 현실의 편협함을 걱정하는 그의 노 교수로서의 고뇌가 있다. 또한 극단주의를 경계하며 양립과 조화를 찾아가기를 바라고, 충용의 길을 강조하며 행위가 목적의 수단이 아닌 그 자체가 보람이기를 바라는 그의 생각들이 녹아 있다. <서울대 출판문화원 간, 값 2만 6천원>

● 엄마와 아빠, 아이가
함께 자라는 서울대
부모교실
이순형 외 지음

모교 소비자 아동학부 이순형(가정관리 70 ~ 74) 교수가 처음 정(대학원 03 ~ 05), 김유미(소비자 아동 97 ~ 02), 안혜령(소비자 아동 01 ~ 05) 동문과 공동 집필한 이 책은 시기적으로 발달 전환기에 해당하는 3 ~ 5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교수를 비롯한 필진이 육아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을 부모됨, 신체, 뇌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인지 발달, 언어소통 발달, 문화 발달 등 7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설명한다. 카테고리 안에는 부모와 아이의 관계, 아이의 기질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합한 양육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으며 신체와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활동, 상황과 시기에 따라 올바르게 키우는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아카넷 간, 값 1만 6천원>

● 중국과 미국의
해양경쟁
이재연 지음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를 맡고 있는 동아시아 평화문제연구소 이재연(행대원 78 ~ 80) 소장이 중국과 미국, 두 나라의 해양 각축전이 어떠한 배경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분석한 책이다. 해양과 인류의 역사 발전에 대한 상관 관계를 시작으로 중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가 해양 경쟁에서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인지를 분석하는 내용에 이르기까지로 구성돼 있다. 이 동문은 이 책에서 금세기는 물론 다가오는 세기에도 해양력은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 원천이며, 한 국가의 국위 선양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황금알 간, 값 2만원>

● 테너 이인범과 순교자
원우현 편저

글로벌 사회과학 아카데미 원장인 고려대 원우현(행정 61 ~ 64) 명예교수가 장인 이인범 연세대 음대 전 학장의 탄생 100주년을 기해서 아담한 단행본을 썼다. 국민일보에 대서특필한 임순만 논설실장의 이인범에 대한 애정과 집념을 시발점으로 하여 반세기를 넘어 수많은 애청자와 애독자의 마음과 뇌리에 각인된 테너 이인범의 목소리와 그의 부친 이학봉 목사를 배경으로 한 김은국의 장편 소설 ‘순교자’를 다시 한 번 조명, 정리해 이 책을 구성했다. 이 책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잊혀진 과거 걱정 of 시대의 인물들을 되새겨 보면서, 현재의 우리들의 정체성을 재발견하려는 노력으로 맺은 결실이다. <철우 한빛원 간, 값 1만원>***

작가의 집

House of Writers

그림이 있는 문화 공간

Park View Gallery

전시회 · 출판기념회 · 결혼피로연 · 송년회 · 동창회 · 각종모임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www.houseofwriters.org ● 김병연(공대) ● (213)380-3000

미주 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2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 · 강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이용락(공) · 오흥조(치) · 이영목(공) · 이전구(농) · 송순영(문)

명예회장 : 김은중(상)

제12대 회장 : 오인환(문)

차기 회장 : 손재옥(가정)
관악후원회 부회장 : 김인순(가정)
Brain Network담당 부회장 : 이채진(문)
미 주류사회 담당 부회장 : 공순옥(간)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 권기현(사대)

상임고문 : 박윤수(문) · 이영목(공)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정평희(공) 총무국장 : 한정민(농)
조직국장 : 백옥자(음) 재무국장 : 유홍열(자연)
광고국장 : 함은선(음) 사업국장 : 김정식(농)
섭외국장 : 이우진(농) 기금모금위원장 : 권철수(의)
IT개발위원장 : 손재옥(가정)

회보 임원

발행인 : 오인환(문)
주필 : 백순(법)
편집위원장 : 장경태(사)
편집주간 : 이기준
편집위원 : 윤경의(공) · 서윤석(의) · 이윤주(상) · 이해덕(상)
정평희(공) · 김정식(농) · 진학송(약) · 함은선(음)
이나래(경) · 각 지역 동창회 편집간사
Homepage Webmaster : 김원영(미대 82)

논설위원장 : 이항열(법)

논설위원 : 김일훈(의) · 고병철(법) · 조동준(의) · 이채진(문)
최용완(공) · 정홍택(상) · 윤상래(수의) · 김창수(약)
차민영(의) · 이석구(문) · 김용현(경) · 유재풍(법)
장석정(법) · 하용출(사) · 민경훈(법) · 이원영(정)

회칙위원회

위원장 = 한재은(의)
위원 = 서종민(공) · 이민연(법) · 윤상래(수의)
김지영(사) · 신응남(농) · 함은선(음)

감사 : 박평일(농) · 주기목(수의)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남가주	회장	이서희(법대 70) 213-840-2064 sleelapt@gmail.com	회계년도 Feb-Feb
	차기회장	박혜옥(간호대 69) 818-952-2871	
북가주	회장	이장우(문리 72) 408-891-0200 president@snuua-nc.org	Jan-Dec
	부회장	박희례(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뉴욕	회장	곽승용(의대 65) 347-506-0478 syngkwak@yahoo.com	Jan-Dec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회장	장수인(음대 76) 978-821-9434 sooihnee@comcast.net	
	차기회장	이경애(인문 73) 978-479-0046 kyungaelim@gmail.com	
달라스	회장	최연(공대 70) 817-919-3057 younchoy@sbcglobal.net	
	차기회장	오기영(공대 73) 214-457-7974 kiyoungoh@gmail.com	
룩키마운틴스	회장	김영일(법대 64) 719-321-9989 youngisaackim@hanmail.net	
	차기회장		
미네소타	회장	변우진(인문대 81) 952-926-0040 woodlaw@yahoo.com	
	차기회장	조해석(공대 84) 952-807-6559	
샌디에고	회장	최흥수(자연대 87) 858-259-5273 heungsoo.choi@knobbe.com	Jan-Dec
	부회장	김주성(농대 83) 858-213-5666 briankim00@yahoo.com	
시카고	회장	김호범(상대 69) 847-657-8919 hkim@moogong.com	Jan-Dec
	부회장	김용주(공대 69) 630-235-9387 kimyongjoo@msn.com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문리대 56) 520-271-2601 younhwan-oh@yahoo.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회장	윤제중(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차기회장	배석현(농대 58) 907-561-0818	
오레곤	회장	김기린(사대 75)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차기회장		
오하이오	회장	송원길(의대 58) 614-378-2918 wonsong3140@aol.com	
	차기회장		
워싱턴 DC	회장	장경태(사대 75) 703-901-3770 jangkent@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주	회장	이원섭(농대 77) 206-954-1871(C) wonlee@qbmintl.com	
	수석총무	임현민(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회장	정경완(자연대 83) 801-897-4060 Kyungwan@mathradar.com	
	부회장		
조지아	회장	김동현(상대 68) dhkimkim@hotmail.com	
	부회장	강창석(의대 73) 314-363-8396 kang5@gmail.com	
중부 텍사스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i5chris@gmail.com	
	부회장	이주희(음대 89) 512-663-0931 Juhee.williamson@gmail.com	
필라델피아	회장	전방남(상대 73) jeonbana@gmail.com.	Jan-Dec
	부회장	유영진(경영 85) 215-307-0001 yxy23yoo@gmail.com	
플로리다		조동건(공대 69) 561-213-8228 dcho0806@bellsouth.net	
캐로라이나	회장	정신호(자연대 78) 919-928-9696 sinho.jung@duke.edu	
	차기회장	이상구(자연대 78) 919-610-2830 slee109@nc.rr.com	
테네시	회장	박재현(자연대 81) 865-696-9066 jae.park99@gmail.com	Jan-Dec
	부회장	백승준(농대 85) 865-974-8216 865-671-3602 sbaek2@utk.edu	
하와이	회장	김용수(농대 75) 808-394-2369 ykim@hawaii.edu	
	차기회장	성낙일(해양 77)	
하틀랜드	회장	이상강(의대 70) 918-687-1115 wanjunhada@gmail.com	
	차기회장		
휴스턴	회장	이호성(공대 72) 281-877-6584 hlee@eagle.org	Jan-Dec
	부회장	최인섭(공대 75) inchoi@msn.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부회장	김종욱(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조용희(자연 82) 403-620-8261 dalhousiedq@hotmail.com	
	부회장		

*사진·취재·기사작성·편집·디자인= 이기준 편집주간
snuaausalkj@gmail.com. snuaausa12@gmail.com
*인쇄= Silver Communications
102-A Executive Dr., Sterling, VA 20166

A Tasty Gift From The Sea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Dish Pizza Salads Soups Sushi

USDA ORGANIC

Seas Gift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SUSHI NORI
Sushi Nori (Seaweed) 100% Natural, No MSG, No Preservatives

대표 이승훈(상대 74)

Jayone 562-633-7400 562-633-7474
facebook.com/JayoneFoods twitter.com/JayoneFoods youtube.com/user/Koreanfoodmart

877-HAPPY-81
장경태(사대 75)

novita usa
Something better for you

JW 토닉 샴푸

HAPPY SEEDS INCORPORATED

세정력의 차이!
욕실품격의 완성
노비타 비데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김해정(82인, 문리대) www.duo.co.kr

좋은사랑 만나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 듀오

- 소비자가 인정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규모와 믿음, 서비스까지 고객이 인정하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듀오만의 매칭 프로그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매칭 프로그램으로 이상형을 찾아드립니다.
- 베테랑 커플매니저: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커플매니저가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드립니다.
- 본국 회원감독: 본국 회원과의 만남을 원할 경우, 2만 6천명이 넘는 회원 중 가장 잘 맞는 상대를 찾아드립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문의 LA 213-383-0077 / NY 201-242-0505

재미서울대 여행동아리와 함께하는 한스여행사!

한스에서 미리 계획하는 일정들은 모두 한스 단독으로 진행되는 맞춤 여행 패키지들로 여행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직접 한스의 전문 인솔자가 모시고 가고 호텔, 식사 모두 upgrade된 고품격 패키지입니다. 모든 여행은 고객들의 신청에 따라 특별히 진행되며 어떤 여행 패키지도 10분 이상만 되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날짜와 원하시는 일정에 맞춰 맞춤 패키지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동창회, 친구들끼리 여러분들만의 특별 여행을 새롭게 만들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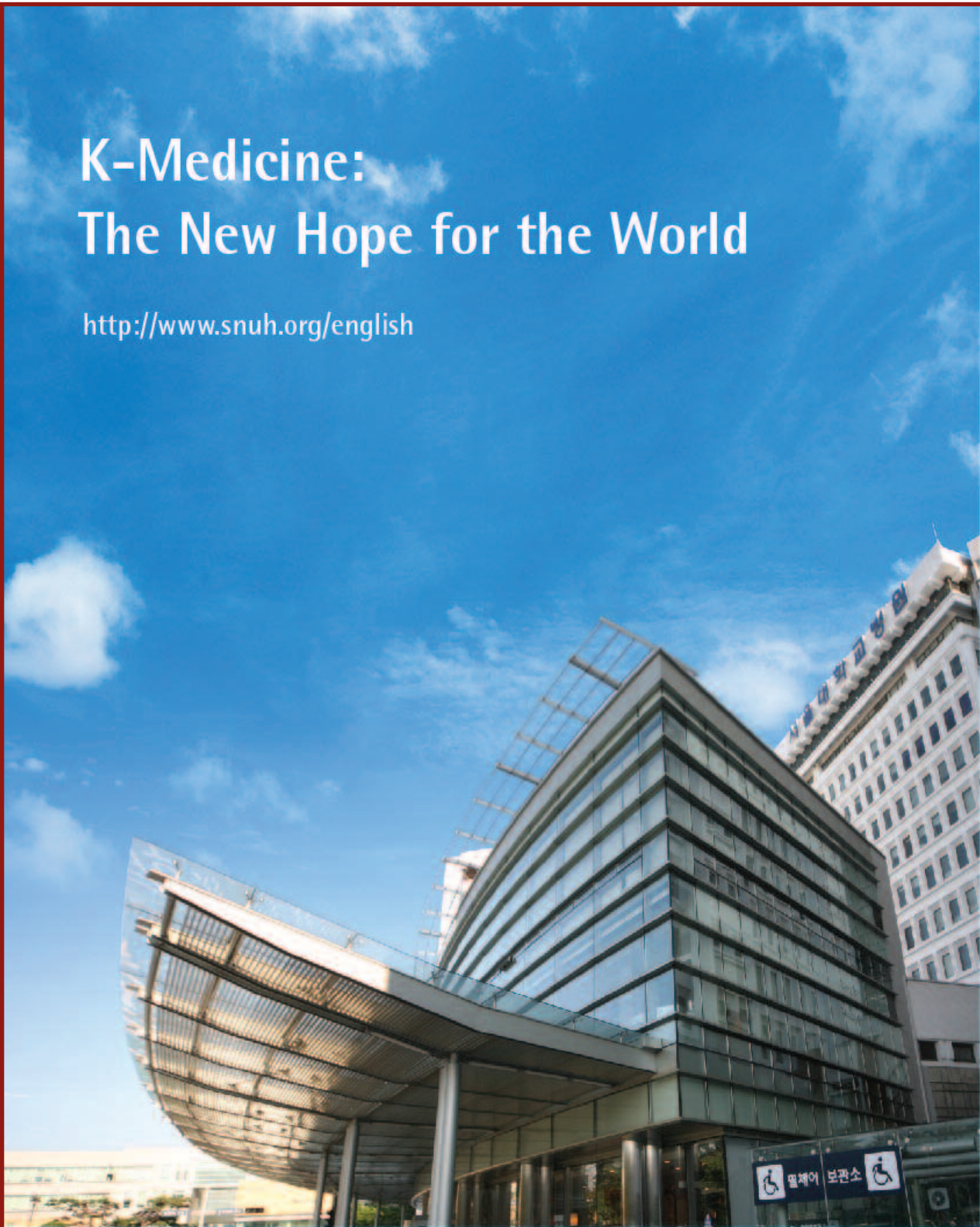
재미 서울대 여행동아리와 함께 했던 여행지들

1차 2007년 중해 크루즈 여행 2차 2008년 이집트와 나일 크루즈 3차 2009년 네덜란드 여행 4차 2010년 러시아, 발틱 여행 5차 2011년 페루 브라질 여행 6차 2012년 발칸반도 9개국 여행 7차 2013년 아프리카 사파리 투어 8차 2014년 베네룩스 3국 투어

2014-2015년 한스관광이 직접 모시고가는 여행

- 5월4일 - 5월13일 - 2014년 SNU 단체 여행: BENELUX 3 COUNTRIES & NORMANDY, FRANCE 9박10일 "잘 다녀 왔습니다" NETHERLANDS(암스텔담, 튜립 축제 참가, 노트르담)- BELGIUM(브뤼셀, 브뤼헤) - LUXEMBOURG (룩셈부르크) - FRANCE NORMANDY(도발, 몽생미셸, 루아르)
- 7월4일-7월16일: 1차/ 7월28일-8월10일: 2차 RUSSIA & N.EUROPE 13박14일
- 7월8일 - 7월14일 -AMAZING KOREA TOUR 6박7일 - 2세대를 위한 영어 가이드 투어
- 9월4일 - 9월14일 -WESTERN EUROPE 10박11일
- 9월12일 - 9월21일 - BOHEMIAN EASTERN EUROPE 9박10일
- 9월21일 - 9월28일 - 크로아티아의 휴일 7박8일
- 9월22일 - 10월4일 -GREECE / TURKEY 12박13일
- 9월25일 - 10월12일 -PORTUGAL / MOROCCO /SPAIN 13박14일
- 10월7일-10월15일: 1차/ 10월15일-10월23일: 2차 고국 전국일주 동서남해안, 홍도, 흑산도 8박9일
- 10월23일 -10월28일 -THE BEST OF CHINA 서안, 장가계 계림 5박6일
- <특별출발> -THE BEST OF CHINA & ESSENCE OF SOUTH EAST ASIA
- 10월23일 -11월2일 중국(서안, 장가계, 계림) - 베트남 (하노이, 하롱 베이) - 캄보디아(앙코르와트) 10박11일
- <특별출발> ESSENCE OF SOUTH EAST ASIA
- 10월28일 -11월2일 -1.베트남 (하노이, 하롱베이)- 캄보디아(앙코르와트) 5박6일
- 10월27일 -11월7일 -HOLYLAND & THE BEST OF JORDAN 11박12일
- 2015년.....
- 1월19일 -1월29일 - INCREDIBLE INDIA (산비의 인도 여행) 10박11일
- 2월5일 - 2월15일 PATAGONIA SPECIAL 10박11일 BUENOS AIRES, USHUAIA, EL CALAFATE
- 2월7일 - 2월12일 - 여자들끼리 가는 PUNTA CANA GOLF TOUR 5박6일
- 3월29일 - 4월4일 -SPRING BREAK SPECIAL - SPAIN 6박7일
- 4월 10일 - 4월17일 - GREEK ISLAND CRUISE & ISTANBUL 7박8일. ISTANBUL, MYKONOS, SANTORINI, ATHENS
- 4월14일 - 4월22일 - 고국 맛자랑, 멋자랑 남해안, 홍도, 흑산도, 해변열차 8박9일
- 4월17일 - 4월26일 - AMADEUS EASTERN EUROPE 9박10일
- 4월26일 - 5월9일 - PORTUGAL, MOROCCO, SPAIN 13박14일
- 5월4일 - 5월15일 - WESTERN EUROPE 11박12일
- 5월18일 - 5월28일 - NORTHERN SPAIN 10박11일
- 5월30일 - 6월7일 -TASTE OF SPAIN -SPECIAL 7박8일

한스관광 HANS WORLD TRAVEL
Toll Free: 800-963-4267 / T. 703-658-1717, 301-770-1717, 410-480-9898
Fax. 703-658-3110,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 Suite 102, Annandale, VA 22003



K-Medicine: The New Hope for the World

<http://www.snuh.org/english>



SNU Children's Hospital



SNU Cancer Hospital



SMG-SNU
Boramae Medical Center



SNU Bundang Hospital



SNUH Healthcare System
Gangnam Center



SNUH
Biomedical Research Institute

- For the last five years, all organ transplantation cases: 0% mortality rate
- First hospital in the world: >20,000 stomach cancer surgeries (Yr 2007)
- Total of 17 specialty centers obtained the "SNUH World-Class Center" certification: e.g. Gastric Cancer Center, Liver Cancer Center
- SNUH is the first hospital, outside of North America, to achieve the "Stage 7" EMR Adoption Model SM scale of HIMSS Analytics

4,000 beds

2,400 physicians

4 million outpatient visits